

# 특별연구 논문집

2006년

공공도서관협의회

# 목 차

□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서 작은도서관 활용 방안 ..... 1

- 25개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

\* 제 출 자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도서관    백호승 , 이대유, 신선철

□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서 작은도서관 활용방안 ..... 59

\* 제 출 자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나영희  
                  인천광역시중양도서관      정연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이송자

□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서 작은도서관 활용방안 ... 135

\* 제 출 자      청주기적의도서관      서일민  
                  인천화도진도서관      박현주  
                  부평기적의도서관      최지혜  
                  용인느티나무도서관    박영숙  
                  부천문화재단            이진우

#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서 작은도서관 활용 방안

- 25개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

❖ **제 출 자**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도서관  
                     백 호 승, 이 대 유, 신 선 철

I. 서    론 .....	4
II. 작은도서관의 개념 및 기능 .....	6
III. 타 지역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비교 .....	8
IV. 우리 지역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	21
V. 작은도서관 운영상 문제점 .....	38
VI.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	40
VII. 결    론 .....	49

여 백



# 1. 서 론

## 1. 연구의 배경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문화공동체, 생활 속에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생활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시, 문화도시의 모습이다. 일찍이 예향, 의향, 미향의 고장으로 소문난 광주는 최근 문화수도로 지정되어 명실공이 아시아 문화의 중심도시로서의 다양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정보 및 자료센터 뿐 아니라 주된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문화의 중심에 도서관이 있고 생활 속에 자리 잡은 도서관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알찬 정보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서관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축적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의 보고이자 정보의 공급원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풍부한 정신적 양식과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공급하는 핵심적 문화기반 시설이다.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식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정신개발과 시민생활 향상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문화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숫 적인 부족과 지리적인 편중 등으로 인해 실제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받는 주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요즘은 도서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실제로 정부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민간 차원의 도서관운동도 활발해져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현실을 보강해 주고 있다.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 공공도서관의 분관형태의 작은도서관들이 민간 주도로 지역 곳곳에 세워져 운영되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가 상호 협력하여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지역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연계해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45만 인구의 우리 북구는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좋은 문화북구’를 캐치 프레이지로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현대적 미술관을 두루 갖춘 문화기반도시로서 비엔날레와 각종 공연이 끊이지 않는 앞서가는 문화 자치구로서 지역 특성상 이러한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특히 강조된다.

광범위한 면적에 주민들의 거주지가 산재해 있고 중심지구 또한 흩어져 있어 주민들의 교통, 문화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관내 공공도서관은 2개관으로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는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책과 정보, 평생교육 등 문화혜택을 쉽게 접하게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이 관내 25개 동사무소에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걸어서 5분 거리에, 주민들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한 이러한 작은도서관의 지리적 잇점과 그 간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공공도서관이 연계해 서로 협력한다면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은도서관이 활발히 운영된다면 지역주민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 작은도서관 및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공도서관이 중심에 서서 25개소의 다양한 형태의 작은도서관의 설치 현황과 운영 내용을 살펴보고 다른 자치단체에 설치 운영중인 작은도서관들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 지역 작은도서관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작은도서관들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서재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작은도서관의 개념 및 기능

### 1. 작은도서관의 명칭 유래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은 1980년대 말 관(官) 주도의 ‘문고’ 활동이 부진해지자 이에 대한 반성으로,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인 참여운동으로 문고를 설립 하면서 문고라는 명칭 대신 ‘작은도서관’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후 1992년 종로도서관을 시초로 관에서도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현재 전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작은도서관 운영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천의 작은도서관은 민관 합동의 사례로 이미 널리 알려졌으며, 순천, 창원, 부산 등의 사례도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작은도서관 사례로 알려져 있다.

(사)어린이와도서관,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좋은책읽기가족모임 등은 순수 민간이 주도하는 주목받고 있는 운영사례라 할 수 있겠다.

### 2. 작은도서관의 개념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정의했듯이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작은도서관 또는 문고는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규모 면에서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의 독서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건물면적 33m<sup>2</sup> 이상, 열람석 6석이상, 자료 1,000권 이상 규모의 도서관을 말한다. 작은도서관은 마을문고나 도서실, 도서방, small library, mini-library, micro library로 불리며 정부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이 아닌 주민들이 손쉽게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이루고자 주민들이 스스로 설치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의 도서관을 일컫는다.



### 3. 작은도서관의 성격 및 기능

거주지가 어디든 걸어서 5~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시장 다녀오며 잠시 들러 가고 방과 후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들러 보고 싶은 책을 보거나 빌려 올 수 있는 곳, 강연회, 독서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동네마다 하나씩 세워져 있어 마을의 정보와 문화가 모이는 곳이다. 더불어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지만 큰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다.

사실 공공도서관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아직은 그만큼 많은 도서관이 세워져 있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기에는 모자라다.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여도 도서관 인근의 일부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너무 멀리에 거주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한번 가기위해서는 큰 결심을 하고 가야만 하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작은도서관을 세우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지렛대로서의 도서관을 주민 누구나 보다 쉽게 이용하게끔 하자는 움직임이 작은도서관 설치로 나타났다.

현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자치단체장은 읍·면·동 단위로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공립문고를 설치하거나 종업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7,000㎡ 이상의 건축물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박물관·미술관·공연장·지방문화원·복지회관·청소년 시설·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 이용시설 중 도서관이 설립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립문고를 설립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저히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규모는 작더라도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할 작은도서관을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토록 제도적인 마련을 한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정책추진에 대한 적극성 부족, 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자세 미흡과 건물주나 사업주의 참여자세 부족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미흡하였다.

다행히 근래에 와서 공공도서관 특히 어린이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주민들의 자발적인 도서관 운영이나 공공기관의 지원이 늘고 있다. 또 공공도서관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건전한 지역문화의 건설과 자기교육 기회의 제공을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개인과 단체, 기관 등 다양한 설립주체가 주가 되어 도서관을 세우고 운영하고 있으며 차츰 공공기관 특히 공공도서관과의 상호 연계를 통한 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Ⅲ. 타 지역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비교

#### 1. 경기도 부천시 작은도서관 현황

부천시립도서관은 1985년 처음으로 심곡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20주년이 되는 2005년에는 4개의 시립도서관(부천시립중앙도서관, 부천시립심곡분관, 부천시립북부분관, 부천시립꿈빛분관)과 11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부천시 중동과 상동의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86만 부천시민이 원하는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천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4개의 도서관 건립과 2개의 작은도서관 신규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부천시 11개 작은도서관 현황

명 칭	시설 및 자료			이용 자수	프로그램운영		설립일
	면적㎡	좌석	도서		강좌수	참여인원	
도란도란어린이도서관	93.03	28	7,820	27,974	9	3,411	02.3.22
복사꽃필무렵도서관	77.57	20	6,690	27,336	11	4,085	"
새싹어린이도서관	132	33	6,855	10,228	9	1,115	
아름드리도서관	132	43	7,588	11,708	6	1,052	02.8.16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	105.6	24	6,515	28,569	12	2,024	02.11.11
꿈나무가족도서관	209.5	47	7,212	21,612	15	1,273	02.12.18
햇살이가득한도서관	209.3	32	6,665	22,119	8	1,061	
행복한도서관	82.5	24	6,335	22,709	11	4,718	03.3.13
사랑나무가족도서관	148.5	54	3,892	25,008	7	107	03.12.17
소새울가족도서관	153.2	24	3,853	9,094	6	671	04.8.16
고리울꿈터도서관	97.5	37	4,822	16,028	10	373	04.9.13

작은도서관 사업은 시립도서관과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주민에게 균등한 정보 및 독서기회 제공을 위하여 마을 단위에 시립도서관 분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나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에 30~100평 규모의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사랑방으로 온 가족이 함께 지식·정보문화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부천시 작은도서관 사업이 활성화되어 문화관광부 작은도서관 사업 시범모델로 소개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문의 및 견학을 오고 있으나 2000년도에 처음 작은도서관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당시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어려움도 있었다. 2001년도에 시민단체(푸른 부천21)에서 사업목표를 ‘동네마다 하나씩 작은도서관 만들기’로 설정을 했고 이는 시립도서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같은 내용이였다. 시민단체(푸른 부천21)와 시립도서관은 부천시가 도서관이 많은 도시, 책 읽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확신하고 상호 협력에 의한 사업추진을 시작하게 되었다.

### 1-1 부천시 작은도서관 운영

부천시립도서관에서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은 시립도서관과 먼 거리에 위치하여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이 걸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립도서관에서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을 하며, 시립도서관 분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사업내용은 도서대출·반납 및 도서행정서비스, 지역특성에 맞는 도서·학습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역 주민의 문화공간 및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작은 면적과 적은 장서량으로 큰 도서관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비결은 설치되어 있는 곳의 시설관리기관(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과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 시설관리기관의 장소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민(부천시역 작은도서관협의회)·관(시립도서관)·학(부천대학 몽당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상호협의 및 공동추진 등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부천시가 민·관·학간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 1-2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시립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 사업 중 가장 독특하면서도 시민의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가까운 장소에서 시립도서관과 부천대학 몽당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대출 및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으로 작은도서관의 공간특성에 따른 장서부족, 시립도서관별 주제전문 도서관 운영으로 주제별 자료구성에 따른 장서 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 2. 서울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현황

2002년 3월 19일에 공식 개관한 성북정보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이 설립한 지방공사인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민간위탁 도서관이다. 성북정보도서관은 “도서관은 지식정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문화의 구심점”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따라 지역주민 모두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문화와 정보를 즐기고 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오늘날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식정보센터의 보람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개관초기 2만 8천여권의 자료를 갖고 출발 했으나 현재는 각종 도서와 비도서자료 및 디지털콘텐츠를 대폭 확충하여 6만 여종의 자료를 보유한 도서관으로 성장하였으며, 과거 학습 공간 위주의 제한적 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식과 정보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정보센터 및 평생교육센터로 거듭나게 되었다.

특히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학교도서관 현장을 지원해 학교도서관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관내 30개동 동사무소의 작은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웹상에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해, 102,456 권의 책을 통합된 DB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작은도서관 검색서비스는 작은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 관내 30개동 작은도서관과 시스템으로 연계해 작은도서관을 운영자들을 위한 독서지도 교육 등 지역의 창조적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 2-1 성북구 작은도서관 운영

성북구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공동의 힘으로 책을 늘려 나가고 이를 관리 운영하여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함으로써 생산기술과 생활문화 향상의 축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단위의 공공도서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성북구에는 작은도서관이 관내 30개동에 있는데, 이들중에 대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마을문고 이용방법

- 대상 : 성북구민 누구나
- 이용 장소 : 각 동 작은도서관
- 등록 방법 : 신분증 지참, 동사무소(작은도서관) 방문 등록
- 이용 시간 : 월 ~ ~ 토
- 대출 권수 : 1인 1회 3권

## 성북구 30개 작은도서관 현황

동 명	좌석수	장서수	동 명	좌석수	장서수
성북1동	4	2,176	길음1동	3	3,101
성북2동	5	3,064	길음2동	-	3,878
동소문동	8	3,102	길음3동	2	4,378
삼선1동	-	3,296	종암1동	1	3,196
삼선2동	7	2,663	종암2동	1	3,788
동선1동	10	3,727	월곡1동	6	4,166
동선2동	3	3,318	월곡2동	27	3,704
돈암1동	10	2,704	월곡3동	-	2,510
돈암2동	-	2,852	월곡4동	6	3,533
안암동	25	3,904	상월곡동	6	2,703
보문동	9	2,357	장위1동	40	6,018
정릉1동	5	7,113	장위2동	6	3,605
정릉2동	7	3,413	장위3동	3	2,310
정릉3동	4	2,508	석관1동	-	3,103
정릉4동	2	9,540	석관2동	10	2,843

### 2-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 방안

성북구의 30개 작은도서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지도·육성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이 구청 담당자 및 개별조직에만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봉사거점으로 활용하고 지도함으로써 기대되는 기능상의 상호 보완작업이 시급하다. 그 기본적 전제조건으로 성북정보도서관과 마을문고 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추진할 상호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 2-2-1 회원증 발급

성북정보도서관과 관내 작은도서관과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하나의 회원증으로 관내 소재한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도서를 대출·반납하고 이용자를 통합관리 하기 위함이다.

### 2-2-2 도서구입 및 정리

도서구입은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장소, 규모 등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자료선정위원회는 작은도서관 담당자 1인을 포함시켜 자료의 전반적인 형태 및 내용상 특성을 세밀히 검토하여 수준있는 자료수집이 되도록 선정한다.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세밀히 검토하여 아동서, 문학서, 일반양서 위주로 수서하고 그 외 전문서 및 정기간행물은 지역중앙도서관으로 이용을 유도한다. 희망도서는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희망도서를 작은도서관 담당자가 접수 받아 도서관 희망도서 구입시 함께 처리한다.

### 2-2-3 문화 및 독서프로그램 연계 지원

성북구는 9개 작은도서관에서 독후감대회, 독서경진대회 등 독서관련 행사를 주최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이 소속된 자치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 및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2-2-4 「작은도서관 운영지침」 제공

대부분 작은도서관은 구청 공무원들 아니면 작은도서관 회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에게 맡겨져 있다. 또한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환경에서 효과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용 운영지침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 3. 경기도 시흥시 작은도서관 현황

경기도 시흥은 전체 면적 132.74km<sup>2</sup>에 2005년 2월말 현재 총 인구 378,631명의 중소도시로 인구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시흥시의 공공도서관은 정왕동 소재 시흥시립도서관과 대야동 소재 시흥시 종합복지회관 등 2개관이 있으며 2005년 4월 어린이도서관이 2006년 개관을 목표로 착공되는 등 앞으로 1~2개관의 도서관이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립도서관은 지난 2002년 개관 이후 장서수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103,022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종합복지회관은 1996년에 교육과 공연, 도서관 등 복합 업무용 기관으로 개관하여 현재 97,661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종합복지회관은 공연, 교육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기능은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2개관이 운영 중인 시흥시 공공도서관은 총 인구대비 1개관당 봉사대상인구수가 18만 9천여명이다. 이는 2003년 말 전국 공공도서관 봉사대상인구수인 10만 4

천명 보다 무려 8만명 이상이 많은 수치이다.

더구나 시흥시의 지역 특성상 면적이 넓고 거주지가 정왕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 전체에 산대되어 있어 여타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은 다른 시 주민이 느끼는 것 보다 더욱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3-1 시흥시 작은도서관 운영

거주지의 산재, 이로 인한 교통의 불편, 공공도서관의 수 적인 부족 등으로 시흥 시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은 여의치 않다.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뜻있는 주민들에 의해 여러 형태의 작은도서관이 개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을 신고하고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은 총 25곳이며 이 외에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신고하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도 10여곳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정왕동 지역이 8개소로 가장 많고 신천동 조남동이 뒤를 잇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정왕동 지역에 작은 도서관도 많이 건립되어 있으며 자연취락지구가 많은 도창동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종교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 13곳으로 가장 많으며 규모가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 주도로 관리동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작은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현황을 보면 장서수가 1천 5백권 미만인 곳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료의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서의 양적인 부족 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의 열악은 더욱 심하다. 대부분의 작은도서관들이 개관 당시 소장도서의 많은 부분을 기증으로 마련하고 도서구입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신간도서의 구입이 어려운 까닭이다.

### 3-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 방안

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 공공도서관과 소지역 단위의 작은도서관의 협력은 효율적인 도서관봉사를 위해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흥시의 도서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공공도서관간 네트워크 연결을 포함한 도서관 정책 및 운영의 일원화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운영의 합리화, 특성화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추가 건립과 더불어 각 지역에 산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상호연계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 갖는 취약점을 서로 보완해줌으로써 지역 주민의 도서관 이용은 활성화되고 이는 곧 지역사회 정보 및 자료센터로서의 역할 완수로 이어질 것이다.

시흥시 도서관간 협력방안을 자료이용 측면, 도서관이용 활성화 측면, 도서관 업무분담 측면에서 살펴보자

도서관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인력과 예산, 네트워크 연동 등과 함께 무엇보다도 도서관 협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발적인 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3-2-1 상위도서관의 자료 지원

도서관 이용자가 특정한 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원하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간 자료이용 측면에서의 협력이 강조된다. 도서관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를 작은도서관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작은도서관의 자료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 (1) 단체대출

시간이나 거리상의 문제로 공공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거주지 인근의 작은도서관에 대량의 도서를 장기간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는 것으

로 현재 운영 중인 협력방법이다. 도서를 대출하는 도서관과 받는 도서관간의 관리 시스템이 통일되어있지 않아 대출도서에 대한 관리 및 도서의 대출·반납에 어려움이 있다. 대출도서를 일괄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 대출시 작은도서관 특성에 맞는 자료의 배분과 대출기간, 방법 등에 탄력적인 운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2) 상호대차

상호대차는 자관의 자료를 타 도서관 소속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현재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다. 작은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없을 경우 그 자료를 소장한 공공도서관에게 자료대출을 요청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가능하면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상호검색 및 대출·반납도 이용하는 작은도서관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상호대차의 운영방법은 택배나 우편, 지역적으로 인근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몇 도시에서 시행중인 순환차량운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 (3) 온라인 목록 서비스 제공

상호대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상호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온라인 목록은 협력 도서관간에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며 특정한 자료가 소장된 위치를 알고자 할 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도서 관련 프로그램 이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사용 중인 공공도서관 자료관리프로그램을 작은도서관이 사용하기는 어렵다. 또 시흥시 도서관 전체의 종합 목록을 제작하기는 예산, 인력 등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 대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사이버중앙도서관의 종합 목록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3-2-2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제공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공공도서관의 역할 등을 거주지 인근의 작은도서관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 또 공공도서관 이용이 여의치 않은 주민들에게 작은도서관을 활용하여 보다 이용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1) 도서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독서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은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운영 방법과 예산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홍보에 양 도서관이 협력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 (2) 프로그램 홍보 및 연계운영

공공도서관이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은도서관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지역 구석구석에 홍보한다. 또 공공도서관이 운영하는 각종 독서교육이나 문화프로그램을 작은도서관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공공도서관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잠재적 이용자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3-2-3 도서관 업무의 지원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비전문적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한 전문지식의 부족, 최신정보 습득의 어려움 등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공도서관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작은도서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자원 봉사자나 도서관 종사자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교육한다.

### (1) 업무 관련 프로그램 및 매뉴얼 제공

많은 작은도서관들이 소장도서와 이용자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전산화가 되지 않아 모든 업무를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도서관도 있고, 어렵게 전산화를 완료했지만 운영프로그램의 부적절함, 관리의 지속성 부족 등으로 인해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도서관이 대부분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도서관이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향후 네트워크 연결까지도 고려한 업무 매뉴얼 등을 작성, 제공해야 할 것이다.

### (2) 업무관련 교육 실시

작은도서관 업무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의 제공 뿐만 아니라 도서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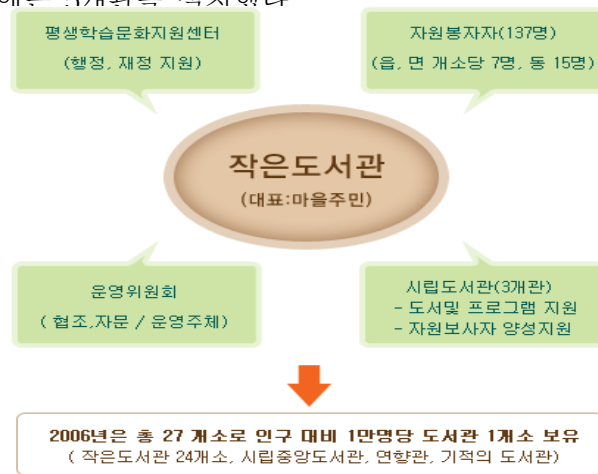
과 관련한 전문지식, 최신정보 등을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 도서관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통해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향후 지역 도서관발전을 위한 방안을 공유한다.

#### 4. 전남 순천시 작은도서관 현황

순천시는 1995년 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된 인구 27만의 도·농복합도시로서 통합 10년이 지나도 도시와 농촌간 문화, 경제, 교육, 시민의식 등 여러 분야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생활문화 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필요성과 2003년 11월 기적의 도서관개관을 계기로 도서관과 독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기적의 도서관 적극 1호관 도시로서의 우리나라의 새로운 독서문화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소명의식에 따라 다양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 4-1 순천시 작은도서관 운영

기적의 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늘어나고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 도서관 건립에 대한 요구가 많으나 도서관 건립은 시의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어서 주민 가까이에 있는 기존 공공시설 중 활용 가능한 소규모의 공간에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2004년에는 12개관, 2005년에는 7개관, 2006년에는 5개관을 설치했다



##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지도



구체적으로 작은도서관 설치 대상지역은 도서관과 원거리에 위치한 읍·면·동지역으로서 주민의 독서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자체운영요원 및 운영비 확보가 가능한 지역, 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중 도서관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자체 운영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온돌이 깔린 내 집 안방과 같은 공간과 지역특색을 살린 초가 도서관, 강이 보이는 북 카페 등 이색적인 맞춤형 도서관으로 꾸며 학습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운영자는 사서자격증, 독서치료사, 동화 구연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도서관학교 수료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시 지원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문화센터로 육성했다.

### 4-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협력방안

시립도서관 3개관과 작은도서관 24개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립도서관 3개관의 장서를 공유토록 하여 작은도서관의 장서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이동도서관 차량 운행으로 신간도서, 베스트셀러등 이용자 희망도서를 정기적으로 공급하기도 한다.

작은도서관에 시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은 영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교육 프로그램,

소리박자 교실을, 유아 및 유치부를 대상으로 그림 책 이야기, 책 읽어 주기, 좋은 친구들, 종이 접기, 레고닥터 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화를 읽어요, 세계를 알아(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즐거운 책 읽기, 즐거운 미술 활동, 작가에게 듣는 그림동화 이야기 등,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독서캠프, 글 어떻게 쓸까, 책으로 떠나는 역사 여행, 우리나라 전래동화 등, 성인을 대상으로 시민 문예교실, ‘책 한 권 하나의 순천’ 관련 프로그램을, 노인을 대상으로 한글 작문교실 등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도예체험, 천연염색, 짚물공예, 한지공예, 나무공예, 판소리 등을 운영한다.

### 순천시 19개 작은도서관 현황

연번	도서관명	개관일	면적	보유장서	열람석	위치
1	가곡 웅달샘도서관	04.7.13	66㎡	4,540권	20석	가곡동(교회)
2	낙안읍성도서관	05.5.4	116.89㎡	1,370권	28석	낙안읍성내
3	남제도서관	05.3.14	89.10㎡	1,780권	30석	남제동사무소
4	도사 우성도서관	05.9.15	46㎡	1,573권	18석	도사동아파트
5	동신 별빛도서관	05.2.19	82.11㎡	3,560권	24석	왕조동아파트
6	매곡도서관	05.9.23	67㎡	950권	25석	매곡동사무소
7	별량 구룡도서관	05.9.5	51.62㎡	938권	22석	별량면마을회관
8	상사 용암도서관	04.8.6	100㎡	1,659권	30석	상사면마을회관
9	서면 선평도서관	05.7.25	62.40㎡	1,021권	28석	서면마을회관
10	생목 벽산도서관	04.7.28	165㎡	2,880권	89석	덕연동아파트
11	서면도서관	05.5.31	72㎡	1,957권	30석	서면사무소
12	조례 금호도서관	05.9.14	49.18㎡	1,952권	22석	왕조동아파트
13	조곡도서관	04.7.14	91.13㎡	1,155권	25석	조곡동사무소
14	조례 송촌도서관	04.7.29	66.11㎡	2,352권	25석	조례동아파트
15	주암 광천도서관	05.3.25	169.2㎡	3,427권	70석	주암면복지회관
16	해룡 소안도서관	05.2.19	69.60㎡	1,137권	24석	해룡면마을회관
17	해룡 신성도서관	04.5.21	65.52㎡	1,010권	14석	
18	해룡 호두도서관	05.7.21	41.28㎡	873권	16석	해룡면경로당
19	황전 용림도서관	05.9.6	42.05㎡	865권	18석	황전면마을회관



## IV. 우리 지역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 1. 작은도서관 설치 배경

우리 지역의 작은도서관 설치는 2001년 일곡도서관 개관 1주년을 맞이하여 거점도서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일곡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권역별 주민자치센터에 작은도서관을 설치,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에 나서기로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 ‘작은도서관’ 명칭을 ‘자치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음

여기서 거점(據點)이란 활동의 근거로 삼는 중요한 지점이란 뜻으로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도서관 운동의 거점을 마련한다는 뜻으로 본 계획에서는 일곡도서관을 거점으로 하여 권역별로 주민자치센터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북구민을 대상으로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빌려보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정보를 수집, 가공, 보관하고, 필요한 정보자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정보센터 기능을 함께하는 도서관 서비스 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에 일곡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운영의 일환으로 지난 2002년 1월 18일 작은도서관 1호 동림 작은도서관 개설을 시작으로, 2002년 5월 17일 문흥2 작은도서관 2003년 1월 14일 오치2 작은도서관 을 개설하게 되었다.

오치2 작은도서관 개설 후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관내 석곡동, 건국동을 제외한 전동에 개설 하게 되었다. 주민자치센터내 작은도서관 설치 가능 4개동(중앙, 운암3, 풍향, 두암3)은 별도의 실로 설치하고, 나머지 17개동은 주민자치센터 여건상 여유공간이 없는 동은 시설물을 증축하여 작은도서관 설치하게 되었다.

설치규모는 주민자치센터내 약 15~30평 정도로 운영이 되며, 설치내역으로는 서가 및 검색대, 열람 탁자 및 의자, 소파, 신발장, 커튼등 기본적인 시설물을 비치하게 되었다.



### 거점도서관 5개년 계획

가. 사업기간 : 2001년 ~ 2005년(5년)

나. 추진부서 : 일곡도서관,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구청(주민자치과)

다. 부서별 담당업무



- 일곡도서관 : 도서관리 프로그램 보급, 홈페이지 구축, 도서정보 제공, 독서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도서대출, 작은도서관 근무 공익요원 및 차량 확보 등
-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 작은도서관 또는 디지털자료실 운영, 도서대출·반납, 이용자 확보 및 홍보, 자원봉사자 관리
- 구청(주민자치과) : 권역별 작은도서관 선정, 도서구입비, 비품 등 관련 예산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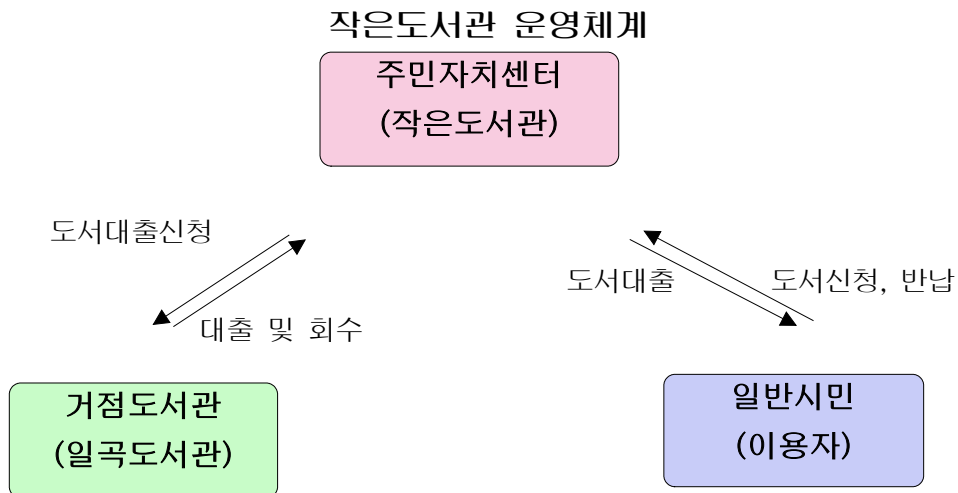
라. 년차별 추진계획

추진년도	세 부 추 진 계 획	소요예산
계		1,322,400천원
2001년 (1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도서관 개설 : 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 소 : 동림동사무소내(민원실)</li> <li>- 개설시기 : 2001. 10월말</li> <li>- 개설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시 운암 지구내 도서관 건립 건의로 도서관 필요성이 강한 지역</li> <li>· 현재 주민자치센터내 도서실로 구성된 별도 실이 마련되어 보완하면 즉시 개설</li> </ul> </li> <li>-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의 비용으로 서가, 도서검색 pc, 쇼파 등을 갖추고 이용자가 직접 대출 신청</li> <li>· 지역특성에 맞는 도서구입 : 어린이, 주부를 위한 도서 중점 비치</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400천원 (확보190,000, 추가 4,400)</li> <li>· 도서구입 : 100백만원(기 확보)</li> <li>· 도서반납함: 200천원(2곳)</li> <li>· 시설비:200천원</li> <li>· KOLAS구입: 90백만원(기 확보)</li> <li>· 쇼파:2,000천원</li> </ul> </li> </ul>
2002년 (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도서관 개설 : 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 소 : 별도 선정</li> <li>- 개설시기 : 2002. 9월중</li> <li>- 개설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민 호응도, 저소득 계층 다수거주지 등을 감안하여 개설</li> </ul> </li> <li>- 대출서비스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대출 신청 → 일곡도서관 → 다음날 해당 작은도서관으로 배달 → 신청자 도서 수령 → 작은도서관 반납 → 일곡도서관</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구입비: 6,000천원</li> <li>· 시설비:2,000천원</li> <li>·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6,000천원</li> </ul>

추진년도	세 부 추 진 계 획	소요예산
2003년 (3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도서관(일곡도서관)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등에서 도서를 대출하였을 경우 관내 어느 작은도서관에 자유롭게 반납 가능한 시스템 구축</li> <li>· 도서관에 없는 자료의 경우 타 도서관 등에 연결하여 자료대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 추진</li> <li>· 장서확보 : 87,000권</li> </ul> </li> <li>○ 작은도서관 개설 : 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 소 : 별도 선정</li> <li>· 개설시기 : 2003. 9월중</li> <li>· 개설 및 이용 : 전년도와 동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계 - 224,000천원</li> <li>· 거점도서관 도서구입비: 200백만원</li> <li>·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8,000천원</li> <li>· 시설비:4,000천원</li> <li>·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li> </ul>
2004년 (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도서관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가정에서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통하여 자료나 정보수집, 도서대출 서비스 실시</li> <li>· 작은도서관에서 도서예약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우편배달도 시행</li> <li>· 장서확보 : 113,000권</li> </ul> </li> <li>○ 작은도서관 개설 : 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 소 : 별도 선정</li> <li>· 개설시기 : 2004. 9월중</li> <li>· 개설 및 이용 : 전년도와 동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000천원</li> <li>○ 소 계 - 234백만원</li> <li>· 거점도서관 도서구입비: 200백만원</li> <li>·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2,000천원</li> <li>· 시설비:4,000천원</li> <li>·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li> </ul>
2005년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도서관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단지 등 상가에 설치된 개인운영 도서대여점 중 희망 업소에 한하여 거점도서관과 연결, 회원제 업소로 지정하여 대여점에 없는 도서를 대여하는 서비스 실시</li> <li>· 도서소외계층(병원환자, 장애인)을 위하여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도서대출 서비스</li> <li>· 장서확보 계획 : 87,000권</li> </ul> </li> <li>○ 작은도서관 개설 : 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 소 : 별도 선정</li> <li>· 개설시기 : 2005. 9월중</li> <li>· 개설 및 이용 : 전년도와 동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000천원</li> <li>○ 소 계 - 236,000천원</li> <li>· 거점도서관 도서구입비: 200백만원</li> <li>·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8,000천원</li> <li>· 시설비:4,000천원</li> <li>·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000천원</li> </ul>

## 2. 작은도서관 운영 내용

작은도서관은 일곡도서관, 주민자치과, 등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2004. 3월 제정 : 광주광역시북구자치도서관운영규정, 별첨)로 운영되며 세부적으로 일곡도서관 소장도서관의 대출서비스를 위해 작은도서관 코너 옆에 도서 검색대(pc)를 마련하여 동에서 도서 대출을 신청하면 일곡도서관의 도서가 다음날 작은도서관으로 배달이 되고, 이용자는 주민자치센터에 들어서 도서를 수령하여 읽은 후, 다시 반납하면 일곡도서관 담당자가 도서를 수거해가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과 다소 먼 거리에 있는 이용자들은 도서관을 직접 찾는 수고를 덜뿐만 아니라 집과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의 작은도서관을 통해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2층이나 3층에 별도의 실을 만들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자유롭게 대출·열람 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매월 신간 및 베스트셀러 보급, 독서회구성 및 독서교실, 구연동화 등 독서 강좌도 마련하는 등 말 그대로 지역 주민을 위한 독서활동 및 문화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작은도서관 시설 현황

도서관별	개설일	장소	설치품목
중흥1도서관	2003. 10. 2	민원실	서가1, 잡지대1
중흥2도서관	2004. 2. 12	"	서가1, 열람의자10
중흥3도서관	2003. 11. 20	"	서가1, 열람의자3, 테이블1
중앙도서관	2003. 10. 10	센터내	서가5, 테이블1, 의자7, 잡지서가1, 책상1, 비디오장1
임동도서관	2003. 10. 29	민원실	서가1, 민원용의자6
신안도서관	2003. 11. 12	"	서가1, 열람의자5, 파티션1
용봉도서관	2003. 12. 13	"	서가1, 민원용의자6, 탁자1
운암1도서관	2003. 11. 5	"	서가2
운암2도서관	2003. 11. 18	"	서가1, 민원용의자3
운암3도서관	2003. 10. 31	센터내	서가4, 테이블3, 소파7, 의자26, 이동서랍1, 책상8, 사물함1
동림도서관	2002. 1. 18	4층증축	서가9, 열람대4, 안내데스크1, 의자32, 장의자1, 검색대1, 책상4, 테이블2(주민자치위원회 협조)
우산도서관	2003. 11. 12	민원실	서가1, 민원용의자3
풍향도서관	2003. 10. 31	센터내	서가5, 열람테이블4, 의자25, 소파5, 잡지가1, 이동서랍1
문화도서관	2003. 11. 21	민원실	서가1, 의자3, 탁자1
문흥1도서관	2004. 2. 4		서가5, 의자14, 잡지서가1, 검색대2, 열람책상2
문흥2도서관	2002. 5. 17	센터내증축	서가1, 탁자1, 의자8
두암1도서관	2003. 8. 22	민원실	서가1, 잡지대1, 탁자1, 의자18
두암2도서관	2003. 12. 18		서가2, 테이블2, 의자 6, 검색대1
두암3도서관	2004. 6. 25	센터내	서가6, 테이블4, 의자18, 칸막이1, 검색대1
삼각도서관	2004. 4. 10	민원실	서가1, 검색대1, 의자11, 소파5, 열람테이블1
일곡도서관	2004. 3. 5	"	서가2, 테이블1, 의자6, 소파8, 잡지대1
매곡도서관	2003. 11. 11	"	서가1
오치1도서관	2003. 11. 24		서가1, 의자4
오치2도서관	2003. 1. 14	센터내	서가1, 의자2(주민자치위원회 3층옥상 가건물)
건국도서관	2005. 5. 11	민원실	서가1, 의자6, 검색대1

## 작은도서관 유형별 설치 현황

### <민원실내 설치>



### <주민자치센터내 설치>





<북 카페 설치>



## 작은도서관 이용 현황

(2006. 1. 1. 현재)

도서관명	장서권수			대출증 발급	도서관 대출	이용실적		독서회 구성여부
	구입도서	기증도서	총장서수			대출	열람	
<b>합 계</b>	<b>22,610</b>	<b>23,719</b>	<b>46,329</b>	<b>22,443</b>	<b>1,674</b>	<b>134,760</b>	<b>114,962</b>	
중흥1도서관	416	217	633	404	202	899	881	○
중흥2도서관	424	864	1,288	197	3	428	659	○
중흥3도서관	483	262	745	369	59	1,062	677	○
중앙도서관	1,286	1,175	2,461	274	110	5,923	3,887	○
임동도서관	594	456	1,050	375	-	2,884	1,380	
신안도서관	693	148	841	438	123	2,762	5,431	○
용봉도서관	552	98	650	324	-	3,189	1,517	
운암1도서관	420	178	598	94	4	2,291	1,153	
운암2도서관	678	349	1,027	247	-	2,590	1,437	
운암3도서관	1,756	1,753	3,509	312	18	8,583	9,633	○
동림도서관	2,634	4,192	6,826	5,838	364	54,782	49,706	○
우산도서관	397	140	537	197	5	354	542	
풍향도서관	1,284	1,556	2,840	1,094	546	1,442	1,773	
문화도서관	807	473	1,280	410	31	1,128	690	
문흥1도서관	576	902	1,478	1,393	11	3,528	1,912	○
문흥2도서관	1,553	381	1,934	3,090	82	6,828	5,003	○
두암1도서관	546	153	699	129	45	2,445	1,622	
두암2도서관	709	376	1,085	717	139	2,940	1,753	
두암3도서관	1,856	4,716	6,572	5,502	8	8,541	8,857	
삼각도서관	873	1,007	1,880	90	1	4,848	3,061	
일곡도서관	464	352	816	23	-	1,017	5,085	○
매곡도서관	913	808	1,712	335	-	5,913	2,371	○
오치1도서관	624	338	962	193	-	2,863	1,347	○
오치2도서관	2,072	2,156	4,228	398	49	7,520	4,585	○
건국도서관	-	669	669	-	-	-	-	

## 2-1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

### 2-1-1 강연회 등 문화강좌 운영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독서활동을 자극함으로써 독서생활화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빈부의 차를 극복하며 지역주민의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작은도서관을 만들고자 초빙강사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가족 책읽기를 유도하는 강연회, 구연동화, 내생각 키우기 등 각종 문화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주요 내역

일시	장소	강좌명	내용	참여인원
04.03.25	문흥2동 작은도서관	· 주제 : 가족의 화목을 만드는 행복한 책 읽기	· 책 읽기를 통한 마음 나누기 원리 · 책을 통한 적극적인 부모의 학습지도 방법	120명
04.06.24	동림동 작은도서관	· 주제 : 독서를 통한 여유로움의 미학	· 전자 매체의 자극적이고 빠른 정보속에서 독서의 의미 찾기 · 활자 매체가 주는 여유로움과 지혜를 가져보고자 하는 강의	100명
04.07.09	두암3동 작은도서관	저자와의 만남 (멋 들어지게 살자)	· 정찬주작가의 인생경험담과 삶의 얘기	22명
04.09.21	문흥2동 작은도서관	마인드 맵 (역사책이 어렵지 않아요)	· 초등생을 위한 쉬운 역사 이해하기	50명
04.07.27	중앙동 작은도서관	구연동화 (앗! 동화 책이 보이네)	· 영상으로 보는 동화책 읽기	70명





## 2-1-2 찾아가는 독서교실 운영

독서교실은 청소년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과 습관을 갖게 하고, 올바른 독서태도를 길러 독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며, 도서관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와 같은 독서교실을 25개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작은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좋은 책 고르기, 독서방법, 독서토론, 마인드 맵, 원고지 작성법, 작은도서관 이용법 등 독서와 도서관에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알기 쉬운 문학 감상, 독서 감상문 쓰기 등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작은도서관을 바르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작은도서관 찾아가는 독서교실 운영

일 시	장 소	내 용	인 원
02. 12. 26 ~ 1. 3	오치2 작은도서관	속해 독서법, 구연동화를 통한 뮤지컬 체험, 독후감 만화그리기	56명
03. 7. 25 ~ 8. 1	동림 작은도서관	만화로 그려본 우리고장 유래, 흙으로 생각하기, 우리가락 장단 맞추기, 동화에서 본 역사논술	42명
04. 1. 6 ~ 1. 13	중앙 작은도서관	동화 역학극, 이야기 병풍 만들기,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좋은 책 소개하기	67명
04. 8. 10 ~ 8. 13	두암3 작은도서관	마인드 맵으로 생각하기, 장애인 관련 신문 만들기,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33명
04. 8. 17 ~ 8. 20	임동 작은도서관	마인드 맵으로 생각하기, 장애인 관련 신문 만들기,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29명
05. 1. 11 ~ 1. 14	운암3 작은도서관	독후감상문 어떻게 쓸것인가, 독서퀴즈, 상계동 아이들 독서토론	47명
05. 1. 18 ~ 1. 21	풍향 작은도서관	독후감상문 어떻게 쓸것인가, 독서퀴즈, 상계동 아이들 독서토론	36명
05. 7. 25 ~ 7. 29	중흥1 작은도서관	가방들어주는 아이 독서토론, 원고지 작성법, 전자책 이용방법	

## 2-2 작은도서관 도서기증운동 전개

2001년부터 개설이 시작된 작은도서관은 초기에 도서구입예산의 부족으로 장서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각 작은도서관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기증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3,000여권의 도서를 기증 받아 작은도서관에 비치하였으며 이후로도 작은도서관 장서확보를 위하여 '1인 1책 기증하기', '지역 기업체 방문 도서기증운동'등 다양한 형태의 도서기증운동을 주민과 동사무소 직원, 주민자치센터 독서회원이 함께 펼쳐 나가고 있다.

여기에 맞추어 거점도서관인 일곡도서관에서도 '책 돌려보기 장터'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작은도서관 도서기증운동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 6월에는 다량의 도서를 기증하여 주신 분께 북구청장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 2-3 작은도서관 독서회원 세미나 개최

독서회는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독서하는 가정풍토를 조성하고 독서후 토론으로 발표력 및 표현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독서토론, 독후감작성 및 발표, 작가와의 대화 등이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25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기 마련과 독서회의 올바른 운영방향 및 내실화 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가, 독서회원,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도서관 운영사례발표 및 자치도서관 운영과 독서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 2-4 작은도서관 온라인 도서대출

온라인 도서대출이란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내 작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도서의 경우 작은도서관내 설치된 도서검색 pc로 일곡도서관 소장도서를 검색하여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도서를 신청하면 2~3일 후 대출 신청도서를 일곡도서관

담당직원이 해당 작은도서관으로 순회 방문하여 대출하여 주는 온라인 서비스제도로서, 2006년 1월 1일 현재 134,760권이 대출되었으며, 일곡도서관 대출증을 발급 받은 회원수도 22,443명에 이르고 있다.



## 2-5 「책 읽는 가족 인증패」 수여

한국도서관협회는 문화관광부와 책읽는사회만들기운동, 한국출판회의 후원으로 ‘가족독서운동 캠페인 : 책 읽는 가족이 됩시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2년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대구광역시부터 시작하여 연중 전국 공공도서관으로 확대하여 추진되었다.

‘책 읽는 가족’은 가족단위의 독서생활을 통하여 책 읽는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는 한편,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제고와 이용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의 독서기반시설로서의 도서관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책 읽는 가족’ 행사 추진방법은 전국 공공도서관 관장이 해당 도서관의 이용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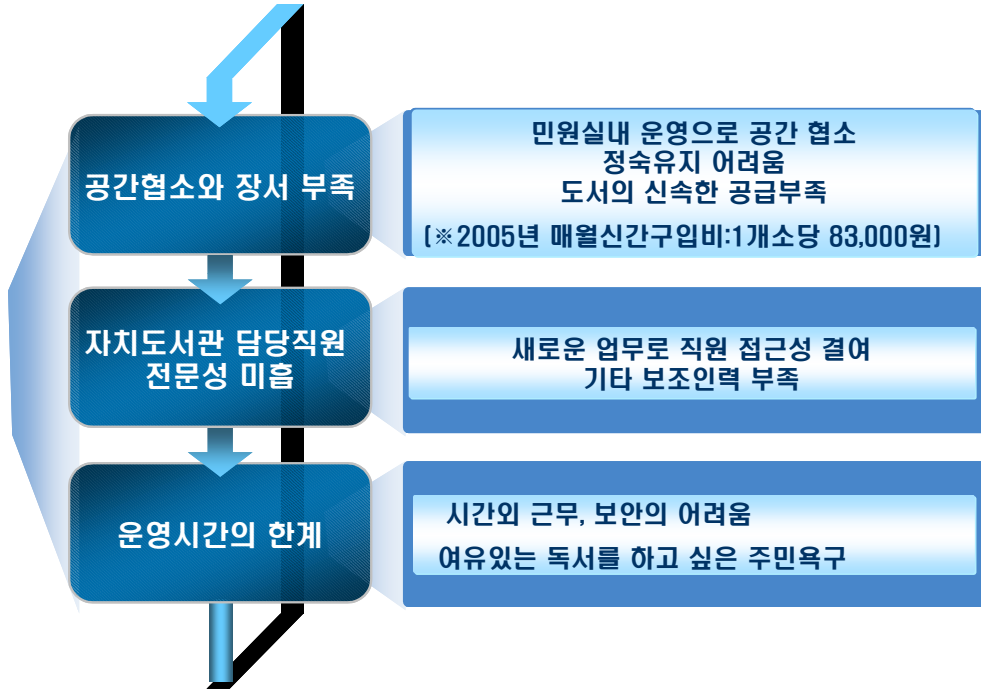
도서관을 잘 이용하는 가족을 발굴하여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하고, 이를 한국도서관협회에 통지한다. 선정된 ‘책 읽는 가족’에게는 한국도서관협회장과 해당 공공도서관장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 선정 기준은 첫째, 해당 공공도서관에 가족 모두가 회원등록을 한 경우 둘째, 가족 모두 도서관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족 모두 다른 이용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경우이다. ‘책 읽는 가족’은 1년에 두 번(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도서관협회 단체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에서만 행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행사 취지에 맞추어 우리 구청과 일곡도서관에서는 가족 단위의 독서생활을 통하여 책 읽는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는 한편,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의 독서기반 시설로서의 작은도서관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자 2004년 12월부터 가족단위로 작은도서관을 가장 잘 이용하는 가족을 매월 선정하여 책 읽는 가족 인증패 및 부상을 매월 1회 구청 월례조회시 구청장이 직접 시상하고 있다.



## V. 작은도서관 운영상 문제점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평생교육 및 균등한 정보접근기회 제공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 1. 다각적인 홍보 부족

먼저 다양한 지식기반 역량을 갖추기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미래문화를 선도하는 장소로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면서도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작은도서관의 존재를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먼저 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서관을 매일 이용하는 일부 주민이 몇 개의 프로



그럼에 반복적으로 참석하여 통계적용 이용자수가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홍보, 한정된 주민에 의한 홍보와 더불어 언론, 방송 등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작은도서관 이용주민이 적고 소수의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공간협소와 장서부족

지역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자료의 이용과 운영프로그램 참여인원이 늘어날지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개설이 얼마 되지 않고 민원실내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의 경우, 빠듯한 시간을 내어 민원을 보러 오시는 주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하고 대출할 수 있는 공간도 협소하다. 또한 동사무소 특성상 주변의 소음이 발생하여도 차단이 되지 않고 도서관의 정숙함을 유지하는데 다소 어려움도 있다. 그리고 신간도서, 베스트셀러 등 독서흥미를 유발시킬수 있는 도서의 신속한 공급부족도 주민의 이용률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 3. 작은도서관 전담인력의 전문성 결여

작은도서관이 25개 전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됨으로써 이에 따른 운영 전담인력(자원봉사자, 공익요원 등) 부족과 전문성 부족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즉 작은도서관 기능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대학생 인턴요원, 공익요원 등 장기적으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며 또한 이들의 지속적인 교육도 병행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 VI.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 1. 자료이용 측면

도서관 이용자가 특정한 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원하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점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자료이용 측면에서의 협력이 강조된다. 도서관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일곡도서관 소장 자료를 작은도서관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작은도서관의 자료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 1-1 장서확충

그 동안의 작은도서관 도서는 공급자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독서성향과 욕구를 반영한 도서 확보보다는 양 위주의 도서 확충에만 전념한 경향이 있어왔다. 지역주민들이 항상 찾고 싶은 작은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다양한 독서 욕구를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베스트셀러 및 신간도서 위주의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도서관이 기존 공급자 관리 중심에서 찾아가는 수요자 관리중심으로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즉 월별로 대중성 있는 베스트셀러 및 이용자의 희망도서를 신속하게 구입비치하여야 주민들이 항상 찾는 도서관이 될 것이다.



## 1-2 장기 단체대출

시간이나 거리상의 문제로 일곡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거주지 인근의 작은도서관에 대량의 도서를 장기간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협력방법이다.

이때 도서를 대출하는 일곡도서관과 받는 작은도서관간의 도서관리시스템을 통일하여 대출도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 대출시 작은도서관 특성에 맞는 자료의 배분과 대출기간, 방법 등에 탄력적인 운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1-3 상호대차

상호대차는 자관의 자료를 타 도서관 소속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현재 공공도서관간, 대학도서관간 등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다. 작은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없을 경우 그 자료를 소장한 거점도서관이나 타 공공도서관에게 자료대출을 요청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가능하면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상호검색 및 대출·반납도 이용하는 작은도서관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상호대차의 운영방법은 택배나 우편, 지역적으로 인근이라는 점이 고려하여 순환차량운영 방법도 다각도로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 1-4 온라인목록 서비스 제공

상호대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상호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온라인 목록은 협력 도서관간에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며 특정한 자료가 소장된 위치를 알고자 할 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도서 관련 프로그램 이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사용 중인 공공도서관 자료관리프로그램을 작은도서관이 사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되기 위하여 어려움없는 목록 검색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결시켜 온라인 목록 검색이 가능한 자료관리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구입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

## 2. 도서관이용 활성화 측면



### 2-1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 홍보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공공도서관의 역할 등을 거주지 인근의 작은도서관과 함께 운영하며 또 이를 홍보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이용이 여의치 않은 주민들이 가까운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으며 이는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독서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은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지역의 거점도서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운영 방법과 예산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홍보에 양 도서관이 협력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 프로그램 운영사항

- 찾아가는 도서교실 운영
- 독서세미나 및 우수자치도서관 사례 발표회 개최
- 자치도서관 독서회 구성
- 책읽는 가족 인증패 시상
- 자치도서관 독서마일리지 시상



#### 2-1-1 찾아가는 도서교실 운영

방학 중에 1~2개동만 운영하던 도서교실을 25개 전동으로 확대하여 연중 전 작은도서관에서 한번쯤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도서교실을 통하여 독서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독서에 대한 흥미를

크게 높일 수 있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어 작은 도서관 이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독서교실의 강좌로는 ‘알기 쉬운 문학 감상법, 독서 감상문 쓰기, 자치도서관 이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서 강사는 문인협회 회원이나 전문 강사, 도서관 사서직원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 2-1-2 독서세미나 및 우수 작은도서관 사례발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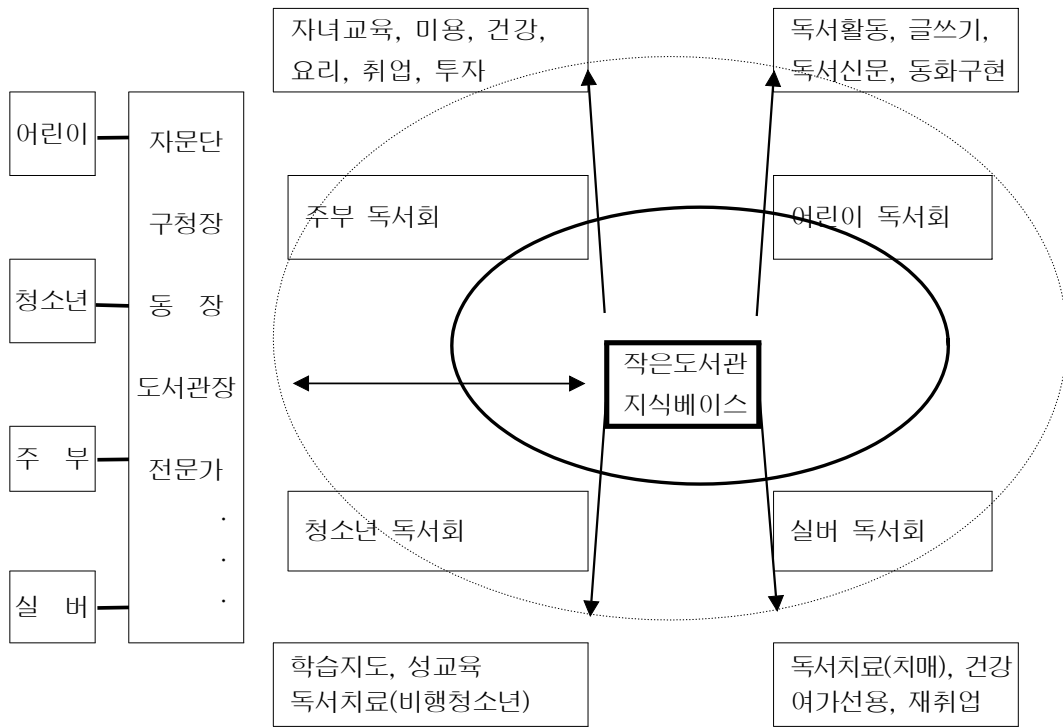
매년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우수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특색 있는 우수사례를 타 작은도서관으로 전파하고, 지역의 유명한 작가를 초대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독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 지역주민들에게 독서생활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2-1-3 작은도서관 독서회 구성

작은도서관별로 노인, 직장인, 취학 전 아동 등 계층별 독서회 구성이나 영화, 음악, 여행, 스포츠와 접목한 독서회 구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독서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구성된 독서회는 지역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도서관 탐방”, “독서회원의 날”, “독서캠프”등 의 현장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또한 독서회원, 자원봉사 단체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발적인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



## 작은도서관과 독서회의 지식 창조형 모형



위에서와 같이 효율적인 독서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의 욕구를 수렴하여 계층별, 주제별 독서회를 구성(8~15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문화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운영되어질 수 있다면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민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독서회 프로그램의 구성이다. 따라서 독서프로그램은 철저한 지역 사회와 이용자 분석을 바탕으로 그 지역에 맞도록 개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거점도서관에 독서지도를 전담하는 사서를 두어 자관 및 작은도서관의 전체 독서회를 총괄하여 지도할 수 있는 종합지도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넷째, 도서관 주민 봉사에 대한 수준을 강화시켜야 한다.

거점도서관은 지역의 실정과 상황에 맞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작은도서관에도 연계하여 도서관과 독서회원 등 연계된 구성원을 향한 끊임없는 교육과 홍보가 이어져야 한다.

#### 2-1-4 「책 읽는 가족 인증패」 시상

지금 전국적인 가족독서운동캠페인(책 읽는 가족)사업에 맞추어, 지역주민들의 책 읽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가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도로써, 매월 1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선정하여 시상 하던 것을 이를 확대 2~3개소 작은도서관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책 읽는 사회 만들기와 작은도서관 이용을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1-5 작은도서관 대상 「독서마일리지」 제도 도입

2003년부터 우리 지역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곡도서관 도서를 대출한 도서대출과 독후감 제출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용하여 평가, 시상하는 제도로 이를 확대하여 25개 작은도서관에 소장된 도서의 대출과 독후감 제출 실적을 별도로 평가하여 마일리지를 적용 년 1회(10월 중) 시상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2 자원봉사자 활용

#### 2-2-1 자원봉사의 개념

자원봉사란 ‘특정한 사회적 요구의 인식하에 사회적 책임감의 태도를 가지고 금전적 보상이나 이득에 관심 없이, 또한 기본적 의무감에 매이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할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타인의 지향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란 ‘주로 정신적 이득을 기대하면서 동기화된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역사를 보면 농경사회에서 공동작업을 위한 두레, 각종 상부상조, 계, 향약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미풍양속은 지방에 따라 다양한 명칭과 기능을 지닌 독특한 상부상조 관행들로서 오늘날의 자원봉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이어져 있다.

#### 2-2-2 작은도서관에 자원봉사자 활용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여유시간을 활용토록하기 위해 주말이나 일과시간 후(18:00~22:00) 작은도서관 개방을 희망하는 주민과 작은도서관이 지역내 문화 사랑방으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휴일이나 야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운영 인력 문제는 작은도서관의 취지에 맞게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 스

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중·장기적인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의 경우 이를 위하여 북구 내 거주하면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주민이나 북구청 자원봉사자회, 교육청에서 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은빛자원봉사자회 등 다양한 자원봉사자나 단체를 모집하여 활용하여 휴일, 야간, 주말시간 작은도서관 개방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몇군데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이용주민, 독서회원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체를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 3. 거점도서관의 업무 지원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비전문가(동사무소 직원, 공익요원, 주민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한 전문지식의 부족, 최신정보 습득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작은도서관 공간협소, 소장장서의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낙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공공도서관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나 작은도서관 업무 종사자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교육한다.



### 3-1 업무관련 프로그램 및 매뉴얼 제공

많은 작은도서관들이 소장도서와 이용자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전산화가 되지 않아 모든 업무를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작은도서관이 대부분이고, 어렵게 전산화를 완료했지만 자료관리프로그램의 부적절함, 관리의 지속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도서관이 대부분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거점도서관이 적극적인 자세로 자료관리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향후 네트워크 연결까지도 고려한 업무 매뉴얼 등을 작성, 제공해야 할 것이다.

### 3-2 업무교육 실시

업무관련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의 제공 뿐 아니라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전문지식, 최신정보 등을 정기적·비정기적 교육을 통해 제공하도록 한다. 또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인적지원을 통해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향후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도록 한다.

### 3-3 작은도서관 공간확대와 체계적 도서관리

2006년 1월 현재 작은도서관 장서 수는 46,329권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장서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일로에 있지만 별도 공간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한 곳을 제외하면 협소한 민원실내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의 경우 주민들이 편안한 가운데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의 별도 독서공간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3-4 거점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적극적 연계시스템 구축

2001년 ‘거점도서관 5개년 계획’ 수립이후 현재 25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약요인(전담인력, 작은도서관 홍보 등) 때문에 거점도서관인 일곡도서관과의 자료 공유 등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

각각의 작은도서관에 이용자의 요구에 충족하는 다양한 형태의 도서 자료를 구입 비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가 있는 거점도서관인 일곡도서관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을 통해서도 일곡도서관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도서대여점의 급진적 증가는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면서도 태될 대여점은 당연히 정리되면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지식기반사회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도서관 이용 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주 5일 근무제와 연계, 생산적이고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을 위해 가족이 함께 가는 도서관 문화 확산 등 캠페인 전개로 다양한 이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Ⅶ. 결 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얼마 전까지도 생활권 중심이 아닌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규모가 큰 도서관을 몇 개 건립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 왔다. 다행히 최근에 이러한 인식이 개선되어 국립중앙도서관에 작은도서관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까지 신설되어 대규모 도서관 건립보다는 소규모로 작은도서관 여러 개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방향으로 정해져 작은도서관을 생활권역 내에 여러 개 건립하는 등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도서관 문화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도서관이 주민들 가까이에 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습득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은 이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문화공간이자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생활로 익혀진 도서관 이용을 통해 독서습관이나 지식·정보 활용능력은 배가되어 이는 곧 개인의 발전이자 지역, 나아가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 광주는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우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역 전반에 걸친 도서관 정책의 방향을 확립해야 한다. 또 중심이 되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공공도서관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역 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태파악과 아울러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굳이 크고 좋은 건물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들을 다양한 지원을 통해 활성화시키거나 주변의 활용 가능한 시설들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 도서관 발전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망이 지역문화의 중심에 있고 모든 주민들의 활동영역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때 문화중심도시로서의 광주의 위상은 정립될 것이다.

**【별첨자료】**

## 광주광역시북구자치도서관운영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주민의 독서 분위기 조성 및 평생학습 증진을 위해 각종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자치도서관의 도서 및 각종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수집·정리·보존하고 효율적인 운영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업무분담) 자치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 운영한다.

1. 주민자치과

- 가. 자치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인력(공익요원) 확보
- 나. 자치도서관에 소장할 도서구입비 확보·지원
- 다. 자치도서관 운영지도

2. 일곡도서관

- 가. 도서 및 각종 자료 수집·정리·보존 등 운영방법 지도
- 나. 자치도서관에 없는 도서 대출서비스
- 다. 자치도서관 연계, 독서교실 운영지원
- 라. 독서 관련 각종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마. 독서 다독상 시상 등 인센티브 부여
- 바. 기타 자치도서관 운영육성 지원

3. 동사무소

- 가. 도서 및 각종 자료 수집·정리·보존 및 운영
- 나. 일곡도서관 도서대출증 발급 신청서 접수 대행
- 다. 일곡도서관 소장도서 대출·반납 대행
- 라. 도서대출 실적 작성 제출
- 마. 주민자치위원회내 독서분과위원회 설치
- 바. 독서회 구성 운영
- 사. 기타 자치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조(도서선정) 자치도서관의 도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제별로 심의하여 선정하면 동장이 결정한다.

제 4 조(도서선정 기준) 도서는 동의 특성에 따라 선정하되, 가급적 일반도서와 아동 도서를 우선적으로 구입한다.

제 5 조(기증도서) ①기증도서는 가급적 출판년도가 3년 이내의 도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관리한다.

1. 기증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증도서대장에 작성 관리한다.
2. 기증도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표제지에 기증인을 찍어서 관리한다.

②자치도서관 운영에 적합하지 않는 도서는 기증 받지 아니한다.

제 6 조(도서등록) 모든 도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 7 조(도서분류 및 기호) 도서분류 및 기호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 8 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동사무소 민원실 운영시간과 같이 하되, 동의 형편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제 9 조(열람 및 대출) 도서의 열람 및 대출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서관의 도서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도서대출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다.
2. 도서대출 책수는 1인 2권이며, 대출기간은 7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대출도서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반납일이 공휴일 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한다.
4. 대출된 도서는 반납기한 이전이라도 대출기관이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로 할 때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5. 도서대출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도서대출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6. 동장은 도서대출 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매년 8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 및 일곡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분실 도서의 변상) 대출도서를 분실 또는 심하게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도서로 변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 등한 수준의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장서점검) 장서 점검은 매년 11월말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장서의 폐기) 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서는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1. 이용으로 인해 심히 훼손된 것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도서

2. 장서 점검시 발견된 망실도서
3. 대출된 도서 중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단, 제10조의 경우는 제외)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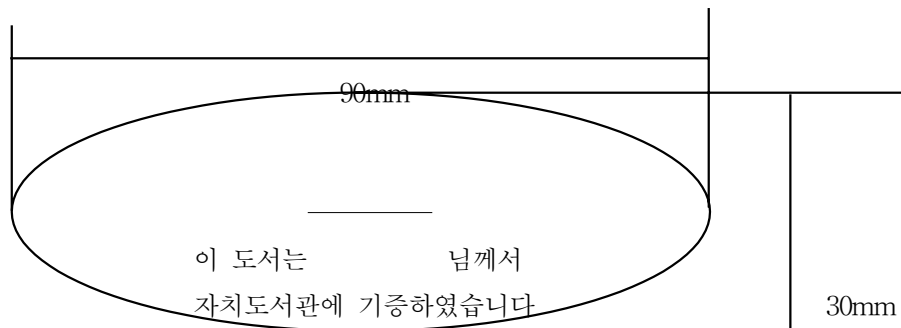
(별지 제1호 서식)

### 기증도서대장

연번	기증일자	기증자			권수	가격	결재			비고
		주소	성명	생년월일			담당자	주무	동장	

(별지 제2호 서식)

### 기증도서 표제지 기증인



(별지 제3호 서식)

### 도서등록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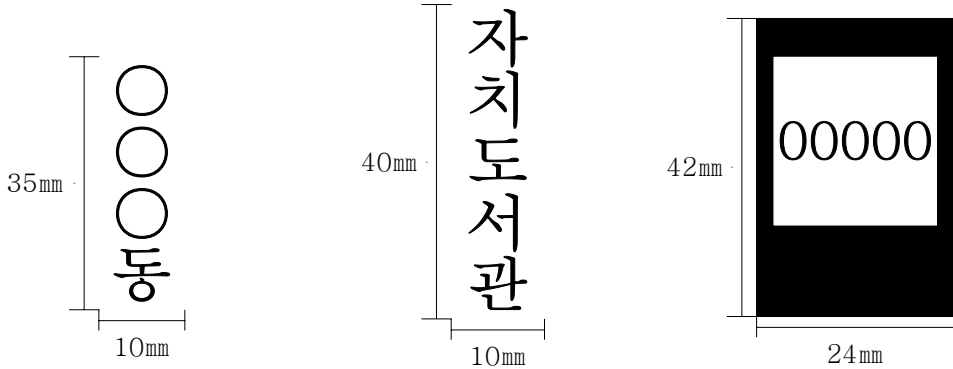
등록번호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년도	구입가	비고

<작성방법>

1. 도서목록은 엑셀파일로 작성하되 아래 서식으로 도서원부를 관리한다.
2. 등록번호는 도서의 수입순으로 하며, 하단에 라벨을 부착한다.

(별지 제4호 서식)

### 도서분류 및 기호방법



<작성방법>

1. 도서의 상단(천)에 '행정동명'의 고무인을 가운데에 날인한다.
2. 도서의 측면(복)에 '자치도서관'의 고무인을 가운데에 날인한다.
3. 라벨은 책 하단에 부착한다.

※ 자치도서관은 장서인·바코드 등 그외 도서정리부분은 생략한다.



(별지 제5호 서식)

## 도서대출증발급신청서

\* 일반인용(중학생이상)

이 름		신청일자	
주민등록번호			
우편발송지역	주택, 근무지		
<b>자택</b>			
우편번호		전화	
주소			
휴대 전화			
E-mail	도서관소식e-mail발송여부 : 예, 아니오		
<b>근무지</b>			
우편번호		전화	
<b>학교</b>			
학교명		학년	반
<b>전자책(E-Book)</b>			
아이디(ID)	주민등록번호로 “-”없이 바로 입력함	암호	

위 본인은 일곡도서관 도서대출회원에 가입함에 있어 대출받은 도서는 반납기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파손하였을 때에는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위 신청인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 도서대출증발급신청서

\* 초등학생용

이름		신청일자	
주민등록번호			
우편발송지역	자택, 근무지		
<b>자택</b>			
우편번호		전화	
주소			
E-mail			
	도서관소식e-mail발송여부 : 예, 아니오		
<b>학교</b>			
학교명		학년	반
<b>전자책(E-Book)</b>			
아이디(ID)	주민등록번호로 “-”없이 바로 입력함	암호	

위 어린이가 일곡도서관 도서대출회원에 가입함에 있어 대출받은 도서는 반드시 반납기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파손하였을 때에는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 )



위 보호자성명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도서대출대장

연 번	대출 일자	도서명	대 출 자			전화번호		반납 일자	확 인
			주 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전화	휴대전화		

(별지 제7호 서식)

### 도서대출실적

연번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출 권수	전화번호		비고
					집전화	휴대전화	

## 【참고문헌】

1. 정동열(2006). 도서관 경영론. 한국도서관협회.
2. 이은철(2001). 도서관 서비스 품질 관리론. 한국도서관협회.
3. 김효정(1999).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도서관협회.
4. 박종삼외(2005). 사회복지학 개론.
5. 홍수진(2004). 마을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 계명대대학원.
6. 이시영(1998). 공공도서관과 마을문고의 협력망 모형에 관한 연구. 청주대 대학원.
7. 김봉호(1994). 마을문고의 사회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단국대대학원.
8. 이용남(2002). 마을문고운동 추진 전략과 행태에 대한 분석적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9. 김영신(2002). 봉사거점으로서 동사무소 문고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0. 이용남(2000). 마을문고운동의 초기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1. 정정식(1998). 공공도서관 및 문고의 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디지털도서관.
12. 김교남(2004). 공공도서관 주부독서회 운영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13. 조준섭(2002). 소집단 독서회 활동이 독서생활 심화에 미치는 효과. 중부대학교.
14. 김영자(2005).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상호 협력방안 연구. 경기도사서협의회.
15. 류병장(2006).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공공도서관연구회지.

#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서 작은도서관 활용 방안

❖ **제 출 자**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나 영 희  
                  인천광역시중양도서관    정 연 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이 송 자

1. 서 론 .....	62
2. 작은도서관의 개념적 정의 .....	63
3.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 .....	69
4.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	93
5. 결론 및 제언 .....	130
참 고 문 헌 .....	133

여 백

#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서 작은도서관 활용방안

제 출 자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나 영 희  
                  인천광역시중앙도서관    정 연 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이 송 자

## 목 차

1. 서 론
  2. 작은도서관의 개념적 정의
    - 2.1 작은도서관의 개념
    - 2.2 작은도서관의 유형
    - 2.3 작은도서관의 역할
  3.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
    - 3.1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 3.2 국내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 3.3 국외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4.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 4.1 작은도서관 운영방안
    - 4.2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협력방안
    - 4.3 작은도서관 특성화 방안
  5. 결론 및 제언
- 참 고 문 헌

# 1. 서 론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한 국가의 문화적 우수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자국에서 생산한 지식을 보관하여 활용하는 측면과 국민들의 문화적 격차와 정보 소외를 해결하는 문화복지센터로서 공공도서관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자국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보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보에 대한 접근 수단을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정보격차는 점차 커지면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복지센터로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다른 어느 행정서비스기관보다 시급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2005년 1월 기준으로 487개로써 인구 약 99,000명당 1개의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정보문화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당위성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도서관을 800개까지 확대하여 국민을 위한 문화정보서비스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완성될 때까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와 국가의 책무성을 유보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문화적 서비스 창구를 개설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대안가운데 사회운동으로 민간단체에서 이미 자생적으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의 활용방안이 현재의 문화정보 환경하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문고 수준의 작은도서관은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과 도서관으로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수준과 현실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도서관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정보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인력,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진입하여 국민의 문화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는 창구로써 도서관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간의 긴밀한 연계체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도서관의 규모(크기)와 상관없이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봉사거점으로 활용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의 큰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육성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최선의 방안으로 보다 차선의 대안으로서 현재의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를 통해 작은도서관을 시설과 인력, 자원, 서비스 등 기본적인 도서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관 혹은 서비스 포인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공공도서관과 같은 문화복지센터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주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주는 채널로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점에 착안하여, 작은도서관의 활성화가 공공도서관의 발전으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도서관으로서의 기본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실제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작은도서관의 운영방안
- 공공도서관의 분관역할로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협력·지원하는 방안
- 작은도서관의 특성화 방안

위와 같은 방안제시를 통해 주민을 위한 정보봉사와 함께 생활 밀착형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포인트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작은도서관의 개념적 정의

### 2.1 작은도서관의 개념

작은도서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만큼 작은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그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작은도서관”은 아직 정확한 개념정립과 법적근거가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문고와 비슷한 소규모의 도서관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재 학계 및 도서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유사용어로는 공공도서관의 분관, 공·사립문고, 새마을문고, 미등록문고, 어린이도서관, 생활도서관, 주민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문화원, 싹지도서관, 이웃도서관, 동네도서관, 마을도서관(town library, village library)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용어상의 개념차이는 크지 않다. 작은도서관에 해당하는 영어 어휘로는 “small Library, mini-library, micro library” 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의 작은도서관 개념은 봉사인구수, 도서관 규모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정의되며, 작은도서관은 큰 공공도서관의 분관이거나 혹은 실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도서관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되는 규모가 작은도서관을 의미하므로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과는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명칭은 1980년대 말 관(官) 주도의 문고활동 부진을 반성하면서, 시민단체 등의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인 참여운동으로 문고를 설립하고, 문고라는 명칭대신 작은도서관이라고 명명한 데에서 출발한다.<sup>1)</sup>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문고라기보다는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용어임을 알 있다. 이후 작은도서관 사업은 운동가나 시민단체들에 의해 작은도서관 설립운동으로 이어졌고, 2004년 문화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로또복권기금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에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작은도서관진흥팀이 신설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민과 관이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 정립 부재상태에서 작은도서관의 명칭 사용은 확산되고 있어, 주민과 일부 도서관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새로 개정된 <도서관법>에서도 작은도서관이란 용어와 그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정립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06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지원계획에서 작은도서관을 “접근이 쉬운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시설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문고형 도서관을 말하며, 주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50평 내외의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다”라고 하였다.

1)김준, 작은도서관 개념에 대한 이해. 도서관계, 제140호. 2006. pp.1-5.

김준(2006)<sup>2)</sup>은 운동가나 시민단체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시작된 작은도서관 사업을 관에서도 추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하기는 하였지만, 공통적으로 흐르는 정신은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지역문화의 발전, 지식의 평등화를 통한 계층 양극화의 완화 등 단순히 시설이나 형태 이전에 어떤 이념성을 반영하는 도서관이나 문고 같은 ‘시설’의 개념이 아닌 ‘운동’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운동’이며 이러한 운동의 취지에 따르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 - 공사립문고, 주민자치센터, 복지시설, 어린이도서관, 소규모의 공공도서관이나 분관 등 - 명칭 구분과 관계없이 작은도서관이며, 이렇게 할 경우 별도의 법률적 규정이나 절차도 필요하지 않게 되며, 또 일정한 수혜계층에 한정될 필요도 없이 시대변화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정현태(2006)<sup>3)</sup>는 작은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에는 시설 및 운영여건이 미치지 못하고, 문고보다는 시설규모가 큰 민간의 문고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기대되지만, 실정법상으로는 공공도서관의 시설규모 80평에 미달하고, 문고로 신고된 10평 이상의 독서시설 중 일정수준의 시설과 자료를 갖춘 공사립문고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세훈 등(2006)<sup>4)</sup>은 작은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은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규모나 서비스범위에서 공공도서관 활동에는 미치지 못하는 시설로써 문고활동의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법률적으로 작은도서관은 주로 개정 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의 하위 범주로 설정된 문고에 해당된다.”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작은도서관을 마을 문고와 유사한 하나의 사회운동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었다.

남영준 등(2006)<sup>5)</sup>은 작은도서관을 “도서관시설기준에 못 미치는 문고시설을 지역의 공공도서관 분관수준에서 활성화시키고,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여백을 메워주는 공, 사립도서관으로 기능하는 독서시설로 본다.”고 정의하여 도서관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는 독서시설로써 문고로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

2)김준. 전계논문.

3)정현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1집, 2003. p.220.

4)김세훈 외.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 방안. 국립중앙도서관. 2006. p.11.

5)남영준 외. 작은도서관(문고포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연구보고서. 2006. p.16.

이상과 같이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개념을 종합하면, 작은도서관을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도서관 설립운동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이란 “운영주체는 상관없지만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서, 인원 및 시설과 규모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독서 및 교육문화공간으로 지역 공공도서관과 긴밀한 지원 및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공공성을 갖는 도서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 2.2 작은도서관의 유형

작은도서관의 유형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분석들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작은도서관의 유형은 지역별, 설립 및 운영주체, 설립장소, 주 이용자층, 규모와 시설, 운영시간 등의 여러 요인들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요인의 혼합유형들이 존재하며 각기 상호 중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작은도서관의 유형구분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반면에 분류기준이 중첩되거나 모호하여 오히려 다소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든 유형에 망라적으로 적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유형에도 복수의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유형이 일관성 있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활성화전략의 성공을 위해서 비교적 포괄적인 기준인, ‘설립 및 운영주체’로 작은도서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설립 및 운영주체가 공공인가 민간인가 여부에 따라 공공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공공주도형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등이 중심이 되어서 필요에 의해 설립 및 운영이 이뤄지는 형태이다. 이 공공주도형은 직영형, 위탁형, 교육청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영형은 구청이나 시립도서관이 설립 및 운영의 주체가 되며, 위탁형은 각종 법인(학교법인·종교법인)이나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 및 운영의 주체가 되어 수탁 운영하는 방식이다. 직영과 위탁 모두 운영예산의 100%가 지방자치제 예산으로 충당된다. 교육청형인 경우 학교도서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이다. 학교는 궁극적으로 학교도서관에 설립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의 업무수행보다, 학교도서관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6) 이와 같은 공공주도형에서는 설립장소가 주로 동사무소,

6)김현. 분관(문고)운영 설치에 대한 소고. 서울시도서관연구회 연구회지. 제4집. 2005. pp.109-121.

마을회관, 복지관, 학교 등의 공간 확보가 용이한 공공시설에 위치한다. 또한 민간역량이 잘 갖추어진 지역에서의 위탁형은 민간조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 직영으로 방치되어있는 곳보다 운영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등과 같은 곳은 특수시설이므로 지역주민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과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작은도서관의 유형에서는 제외키로 한다

민간주도형은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개인, 지역단체, 법인 등이 중심이 되어 주민들이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지고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형태이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애착과 관심이 대단히 높고, 운영이 자율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 및 운영규모가 영세하여, 예산문제로 회원가입비를 받거나 프로그램 등의 수입을 통해 예산 보조를 하기도 한다. 주로 교회나 아파트, 상가건물, 문화센터 등에 설립되고 있다. 대부분 자원봉사자나 설립자 1인이 운영하는 곳이 다수이고 사립문고가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됨으로 도서관으로 볼 것인가 판단 기준이 없어서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표로 요약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유형

구 분		설립 및 운영주체	현 황
공 공 주도형	직영형	- 구 청 - 공공도서관	- 2004년 복권기금으로 설립된 25개 작은도서관 중 일부 - 순천시 7개소 - 제천시 작은도서관 등
	위탁형	- 각종법인 : 학교, 종교법인 등 - 도시(시설)관리공단	- 부천시의 11개 작은도서관 - 창원시의 30여개 작은도서관 - 서울시의 작은도서관 * 창원시는 지자체에서 예산의 일부부담
	교육청형	-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학교도서관	- 강남구, 군포, 수원, 안양시의 학교도서관 일부
민 간 주도형 (사립문고)		- 개 인 - 지역단체 - 법 인	- 광명청개구리도서관 - 보물단지도서관 - 종교단체 작은도서관(교회, 사찰 등 ) - 아파트문고

## 2.3 작은도서관의 역할

작은도서관을 건물 면적이나 도서관 장서규모에 관계없이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지역주민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고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계획’에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대상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화소의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측면을 우선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면을 참조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10분 이내의 단거리 위치하며 열람 및 대출이 용이하므로, 공공도서관이 근거리에 없는 소외 지역에 공공도서관의 공백을 메우며 자연스럽게 독서활동을 장려한다.

둘째, 주민친화적인 밀착형문고로써 건물 면적이나 도서관 장서규모에 상관없이 작은공간(동사무소, 문화 및 교육시설 민간단체나 개인의 부속공간 등)을 이용하되 주민들이 편하고 친근하게 찾을 수 있는 시설이므로 각종 생활정보를 교류하는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작은도서관의 경우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 자녀들에게 공부방 제공과 교육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소외 계층을 지원한다.

넷째,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스토리텔링, 글짓기, 서예, 종이접기, 학습 및 논술지도 등)을 운영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 공동체는 지식과 문화를 추구하는 시민들의 강고한 결합체로서 지역발전의 힘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참여를 장려하여 지역주민과 상호 교류하며, 지역주민은 작은도서관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운영주체(자원봉사, 기부, 프로그램 진행 참여 등을 통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공도서관이 기본적으로 열세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공도서관의 부족현상을 메워주고, 소외계층의 정보, 교육,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지역거점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예술적, 문학적 문제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으로 참여와 나눔이 있는 지역사회의 센터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지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3.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 3.1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국내에서의 작은도서관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요구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공급이 부족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민 스스로 자발적인 문고 형태의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등의 운동을 벌이게 되면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작은도서관의 설치 운동은 1994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문고 설치 권장과 때를 같이 하면서 본격화 되었다.<sup>7)</sup> 공공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한 국내 실정에서 공공도서관 부족현상을 메워 줌으로써 주민의 수요를 해소해 준다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은도서관 설치운동은 지역 문고의 개설 증대, 협의회 결성, 지역협의회 구성 등 현재까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설치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해 운영실태를 체계, 조직, 현황, 자원 면으로 나누어 조명해 보고자 한다.

##### 3.1.1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 1) 작은도서관 등록현황

현재 법령상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립문고는 등록의 의무가 되어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립문고의 경우는 등록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sup>8)</sup> 작은도서관의

7)홍미선. 김혜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8)정현태. 전개논문. p.224.

등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 <표 2>는 2005년 12월 말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전국 작은도서관 현황이다.

<표 2> 전국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2005. 12. 31. 기준)

구분 도	문고수	연면적 (㎡)	평균 (㎡)	열람 좌석수	평균 열람석수	보유장서수 (책)	평균보유장수 (책)	공립	사립
서울	571	27,309	47.8	8,977	15.7	3,033,519	5,312	483	88
부산	130	10,954	84.3	3,625	27.9	472,168	3,632	37	93
대구	61	6,158	101.0	1,600	26.2	151,577	2,485	-	61
인천	77	6,577	85.4	2,215	28.8	359,117	4,664	26	51
광주	42	4,500	107.1	1,941	46.2	156,740	3,732	2	40
울산	44	3,627	82.4	1,233	28.0	106,974	2,431	14	30
대전	69	4,846	70.2	1,792	26.0	271,797	3,939	29	40
경기	546	51,549	94.4	14,399	26.4	1,928,125	3,531	23	523
강원	109	10,518	96.5	2,795	25.6	215,509	1,977	-	109
충북	161	18,869	117.2	5,469	34.0	395,614	2,457	19	142
충남	96	7,610	79.3	2,491	25.9	228,400	2,379	3	93
전북	188	17,278	91.9	5,200	27.7	431,016	2,292	29	159
전남	269	25,036	93.1	7,521	28.0	546,340	2,031	55	214
경북	156	13,865	88.9	5,026	32.2	456,760	2,928	1	155
경남	211	7,043	33.4	1,015	4.8	95,246	451	57	154
제주	142	14,265	100.5	4,119	29.0	450,477	3,172	-	142
계	2,872	230,004	80 (24평)	69,418	24석	9,299,379	3,287	778 (27.1%)	2,094 (72.9%)

상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의 작은도서관은 총 2,872개관으로 공립문고 778개관(27.1%)과 사립문고 2,094개관(72.9%)으로 조사되었다. 작은도서관 평균 면적은 24평의 규모에 24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으며, 3,287 책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시 보다는 농촌 지역에 작은도서관 분포가 활발하며,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작은도서관 운영주체

〈표 3〉 작은도서관 운영주체

도	구분	운영주체 (단위 : 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교육청	동사무소	민간단체	종교단체
서울		40(25.0%)	0	0	60(37.5%)	9(5.6%)	15(9.4%)
부산		7(8.8%)	2(2.5%)	0	11(13.8%)	3(3.8)	20(25.0%)
대구		0	0	0	0	8(16.7%)	9(18.8%)
인천		2(5.0%)	0	0	5(12.5%)	3(7.5%)	9(22.5%)
광주		0	0	1(2.7%)	6(16.2%)	1(2.7%)	12(32.4%)
울산		4(11.4%)	0	0	7(20.0%)	0	10(28.6%)
대전		3(4.1%)	0	0	42(57.5%)	3(4.1%)	11(15.1%)
경기		8(2.3%)	0	0	10(2.8%)	15(4.2%)	120(34.0%)
강원		0	1(1.6%)	0	2(3.1%)	5(7.8%)	38(59.4%)
충북		27(28.7%)	0	0	3(3.2%)	5(5.3%)	19(20.2%)
충남		4(7.7%)	0	0	1(1.9%)	2(3.8%)	29(55.8%)
전북		1(0.8%)	0	0	5(3.9%)	30(23.3%)	41(31.8%)
전남		2(3.3%)	1(1.7%)	0	8(13.3%)	2(3.3%)	20(33.3%)
경북		2(1.6%)	0	0	0	4(3.1%)	13(10.2%)
경남		30(20.4%)	0	1(0.7%)	8(5.4%)	20(13.6%)	22(15.0%)
제주		0	0	0	1(2.2%)	8(17.4%)	2(4.3%)
계		130	4	2	169	118	390
비율		8.4%	0.3%	0.1%	11.0%	7.7%	25.3%

도	구분	운영주체 (단위 : 관)					
		아파트	새마을문고	종합복지관	개인	기타	계
서울		7(4.4%)	23(14.4%)	1(0.6%)	3(1.9%)	2(1.3%)	160(100.0%)
부산		1(1.3%)	13(16.3%)	5(6.3%)	13(16.3%)	5(6.3%)	80(100.0%)
대구		6(12.5%)	0	1(2.1%)	22(45.8%)	2(4.2%)	48(100.0%)
인천		5(12.5%)	1(2.5%)	1(2.5%)	5(12.5%)	9(22.5%)	40(100.0%)
광주		5(13.5%)	1(2.7%)	4(10.8%)	7(18.9%)	0	37(100.0%)
울산		5(14.3%)	0	0	1(2.9%)	8(22.9%)	35(100.0%)
대전		0	0	4(5.5%)	5(6.8%)	5(6.8%)	73(100.0%)
경기		64(18.1%)	70(19.8%)	4(1.1%)	42(11.9%)	20(5.1%)	353(100.0%)
강원		2(3.1%)	5(7.8%)	0	6(9.4%)	5(7.8%)	64(100.0%)
충북		9(9.6%)	21(22.3%)	3(3.2%)	6(6.4%)	1(1.1%)	94(100.0%)
충남		2(3.8%)	1(1.9%)	0	12(23.1%)	1(1.9%)	52(100.0%)
전북		6(4.7%)	8(6.2%)	3(2.3%)	20(15.5%)	15(11.6%)	129(100.0%)
전남		1(1.7%)	21(35.0%)	0	3(5.0%)	2(3.3%)	60(100.0%)
경북		2(1.6%)	83(65.4%)	4(3.1%)	12(9.4%)	4(3.1%)	124(100.0%)
경남		19(12.9%)	32(21.8%)	1(0.7%)	5(3.4%)	9(6.1%)	147(100.0%)
제주		2(4.3%)	28(60.9%)	0	0	5(10.9%)	46(100.0%)
계		136(8.8%)	307(19.9%)	31(2.0%)	162(10.5%)	93(6.1%)	1,542(100.0%)

전국의 작은도서관 운영주체를 확인한 결과, 가장 많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는 종교단체로 390개관(25.3%)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도서관이나 교육청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관의 작은도서관 운영 수가 현저히 낮은 점은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여겨진다.

### 3.1.2 작은도서관 운영조직

#### 1) 예산현황

〈표 4〉 작은도서관 예산규모

도	구분	1관당 연간 예산지출내역 (단위 : 천원)				계
		인건비	자료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	기타운영비	
서울		1,107.1(31.4%)	1,619.9(45.9%)	139.5(3.9%)	657.5(18.6%)	3,524.0(100%)
부산		2,419.1(41.4%)	1,587.1(27.1%)	372.4(6.4%)	1,464.1(25.1%)	5,842.7(100%)
대구		3,958.3(36.6%)	2,844.5(26.2%)	250.6(2.3%)	3,787.1(34.9%)	10,840.5(100%)
인천		1,799.1(28.0%)	2,276.3(35.4%)	881.8(13.7%)	1,473.8(22.9%)	6,431.0(100%)
광주		4,845.8(50.4%)	1,943.3(20.5%)	682.3(7.1%)	2,139.2(22.2%)	9,610.6(100%)
울산		835.6(14.7%)	2,724.8(47.9%)	957.2(16.8%)	1,166.4(20.6%)	5,684.0(100%)
대전		813.1(25.1%)	1,418.7(43.9%)	354.4(11.0%)	646.9(20.0%)	3,233.1(100%)
경기		1,568.6(29.6%)	1,824.9(34.1%)	761.4(14.4%)	1,145.9(21.6%)	5,300.8(100%)
강원		2,313.1(39.0%)	1,811.3(30.6%)	715.4(12.0%)	1,088.1(18.4%)	5,927.9(100%)
충북		778.9(34.0%)	724.4(31.6%)	359.6(15.7%)	427.6(18.7%)	2,290.5(100%)
충남		1,849.3(41.4%)	1,307.3(29.2%)	241.6(5.4%)	1,071.3(24.0%)	4,469.5(100%)
전북		190.4(7.5%)	968.1(38.1%)	49.2(1.9%)	1,330.5(52.5%)	2,538.2(100%)
전남		211.4(25.6%)	332.3(40.3%)	80.3(1.8%)	200.8(24.3%)	824.8(100%)
경북		642.2(21.3%)	1,213.9(40.3%)	359.9(11.9%)	798.2(26.5%)	3,014.2(100%)
경남		5,293.4(42.2%)	2,499.4(20.0%)	1,633.2(13.1%)	3,081.3(24.7%)	12,507.3(100%)
제주		291.4(31.4%)	246.3(26.6%)	159.9(17.2%)	229.2(24.2%)	927.5(100%)
전국평균		1,807.3	1,583.9	499.9	1,294.2	5,185.4
비율		34.9%	30.6%	9.6%	24.9%	100.0%

작은도서관 1,542개관의 예산규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 당 평균 518만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으며, 인건비(34.9%), 자료구입비(30.6%), 기타운영비(24.9%), 프로그램운영비(9.6%)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작은도서관 예산의 수입내역을 보면, 행정기관지원이 36%, 운영자 부담이 20%, 후원회비 7.7%, 종교단체지원 7.3%, 작은도서관 회비 및 이용료 4.3%, 개인기

부 2.8%, 기업체지원 1.1% 등으로 나타나, 여러 다양한 경로의 기금지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개별문고별로 보면, 운영주체에 따라 운영자금의 수입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 지적되었다.<sup>9)</sup>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수입구조이외에 정기적이고 정액적으로 지급되는 예산 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행정기관의 지원은 정규적일 수 있으나, 그 외의 지원방법은 외부적 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인력현황

〈표 5〉 작은도서관 인력현황

도	구분	1관당 인력현황 (단위 : 명)				
		전임	시간제	자원봉사	기타	계
서울		0.12(1.3%)	0.06(0.7%)	8.17(94.2%)	0.33(3.8%)	9.17(100.0%)
부산		0.38(5.2%)	0.34(4.8%)	6.30(88.1%)	0.13(1.9%)	7.15(100.0%)
대구		0.69(26.0%)	0.31(12.0%)	10.63(61.0%)	0.04(1.0%)	5.80(100.0%)
인천		0.90(10.3%)	0.26(3.0%)	7.28(83.7%)	0.26(3.0%)	8.70(100.0%)
광주		0.42(12.5%)	0.31(9.6%)	2.36(71.8%)	0.13(4.1%)	3.22(100.0%)
울산		0.16(7.1%)	0	1.67(74.8%)	0.40(18.1%)	2.23(100.0%)
대전		0.13(2.2%)	0.02(0.3%)	5.54(96.8%)	0.03(0.5%)	5.72(100.0%)
경기		0.26(6.5%)	0.21(5.3%)	3.45(87.3%)	0.03(0.7%)	3.95(100.0%)
강원		0.51(18.5%)	0.17(6.2%)	2.04(74.2%)	0.03(1.1%)	2.75(100.0%)
충북		0.52(20.5%)	0.23(9.0%)	1.79(70.5%)	0	2.54(100.0%)
충남		0.37(22.7%)	0.14(8.6%)	1.1(6.7%)	0.02(1.0%)	1.63(100.0%)
전북		0.54(27.9%)	0.02(1.1%)	1.22(63.2%)	0.15(7.8%)	1.93(100.0%)
전남		0.05(13.1%)	0.05(13.1%)	0.27(71.0%)	0.01(2.8%)	0.38(100.0%)
경북		0.17(2.6%)	0.07(1.1%)	6.17(94.4%)	0.12(1.8%)	6.53(100.0%)
경남		0.51(6.9%)	1.14(15.4%)	5.67(76.6%)	0.04(1.1%)	7.36(100.0%)
제주		0.03(1.6%)	0.02(1.1%)	1.79(97.3%)	0	1.84(100.0%)
전국		0.36	0.20	3.72	0.10	4.43
비율		8.0%	4.7%	85.0%	2.2%	100.0%

상기 <표 5>에서와 같이 전국 2,215개관의 작은도서관 인력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당 평균 근무인력은 4.43명이며, 이 가운데 비상근 자원봉사

9)정현태. 전계논문. p.227.

인력이 3.72명(85%)으로 가장 높아 현재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전문사서가 아닌 자원봉사 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1.3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 1) 개관시간

작은도서관의 평균 개관시간은 아래 <표 6>에서와 같이 하루 4.6시간으로 주당 약 4.2일을 개관하고 있었으며, 공휴일과 야간개관이 각각 379(17.1%), 1,595(72.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개관시간이 정해져 있는 공공도서관 보다는 개관시간이 탄력적인 작은도서관이 이용자의 편의를 좀 더 고려한 생활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6> 작은도서관 개관현황

도	구분	개 관 현 황			
		1관당 개관시간 (시간)	주당 개관일수 (일)	공휴일 개관 (관)	야간개관 (18시 이후) (일)
서울		5.1	5.0	79(33.1%)	160(66.1%)
부산		4.2	4.2	9(9.4%)	18(18.8%)
대구		6.3	5.3	6(12.5%)	26(54.2%)
인천		2.9	3.1	4(5.6%)	6(8.3%)
광주		7.2	5.5	10(26.3%)	17(44.7%)
울산		4.4	4.7	3(8.1%)	9(24.3%)
대전		4.7	4.5	2(2.4%)	14(16.7%)
경기		3.1	3.4	49(9.8%)	105(21.1%)
강원		6.9	6.1	36(56.3%)	31(48.4%)
충북		4.3	3.9	15(13.8%)	30(27.5%)
충남		4.4	3.7	20(27.0%)	21(28.4%)
전북		5.5	4.5	60(35.5%)	33(19.5%)
전남		1.9	1.2	16(6.3%)	19(7.5%)
경북		4.5	4.3	17(13.4%)	33(26.0%)
경남		5.8	5.1	27(16.7%)	61(37.7%)
제주		2.8	2.2	26(18.6%)	37(26.4%)
전국		4.6	4.2	379(17.1%)	620(28.0%)

## 2) 운영프로그램

작은도서관의 운영프로그램은 자료열람과 대출에 전국적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서실과 학습지도로 약 20%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서지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약 14%를, 문화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 약 16%로 조사되었다.

〈표 7〉 작은도서관 운영프로그램

도	구분	운영프로그램 - 다중응답 (단위 : 관)					
		자료열람	자료대출	독서실	공부방 및 학습지도	독서토론	독서지도
서울		140(39.1%)	142(39.7%)	20(5.6%)	11(3.1%)	6(1.7%)	9(2.5%)
부산		56(21.1%)	58(21.8%)	23(8.6%)	31(11.7%)	23(8.6%)	31(11.7%)
대구		46(25.4%)	40(22.1%)	10(5.5%)	10(5.5%)	21(11.6%)	23(12.7%)
인천		27(18.8%)	28(19.4%)	15(10.4%)	13(9.0%)	12(8.3%)	19(13.2%)
광주		27(17.2%)	25(15.9%)	26(16.6%)	23(14.6%)	12(7.6%)	14(8.9%)
울산		11(25.6%)	12(27.9%)	6(14.0%)	4(9.3%)	1(2.3%)	2(4.7%)
대전		61(34.5%)	55(31.1%)	12(6.8%)	9(5.1%)	7(4.0%)	10(5.6%)
경기		230(21.2%)	229(21.1%)	116(10.7%)	89(8.2%)	75(6.9%)	118(10.9%)
강원		51(20.7%)	48(19.5%)	27(11.0%)	31(12.6%)	12(4.9%)	22(8.9%)
충북		42(25.0%)	39(23.2%)	29(17.3%)	25(14.9%)	6(3.6%)	10(6.0%)
충남		32(20.1%)	26(16.4%)	22(13.8%)	15(9.4%)	12(7.5%)	21(13.2%)
전북		127(32.5%)	118(30.2%)	33(8.4%)	39(10.0%)	18(4.6%)	33(8.4%)
전남		49(27.4%)	47(26.3%)	28(15.6%)	18(10.1%)	6(3.4%)	12(6.7%)
경북		83(24.8%)	84(25.1%)	31(9.3%)	34(10.1%)	17(5.1%)	19(5.7%)
경남		108(22.5%)	104(21.7%)	47(9.8%)	41(8.6%)	30(6.3%)	28(5.8%)
제주		19(21.1%)	19(21.1%)	18(20.0%)	9(10.0%)	1(1.1%)	4(4.4%)
계		1,120	1,074	463	402	259	375
비율		25.1%	24.0%	10.4%	9.0%	5.8%	8.4%

도	구분	운영프로그램 - 다중응답 (단위 : 관)					
		어린이캠프	어린이대상 문화강좌	성인(주부) 대상 문화강좌	가족단위 프로그램	기타	계
서울		1(0.3%)	6(1.7%)	13(3.6%)	1(0.3%)	9(2.5%)	358(100.0%)
부산		11(4.1%)	9(3.4%)	10(3.8%)	6(2.3%)	8(3.0%)	266(100.0%)
대구		8(4.4%)	7(3.9%)	8(4.4%)	5(2.8%)	3(1.7%)	181(100.0%)
인천		8(5.6%)	7(4.9%)	6(4.2%)	5(3.5%)	4(2.8%)	144(100.0%)
광주		4(2.5%)	7(4.5%)	9(5.7%)	4(2.5%)	6(3.8%)	157(100.0%)
울산		2(4.7%)	2(4.7%)	2(4.7%)	0	1(2.3%)	43(100.0%)
대전		4(2.3%)	6(3.4%)	5(2.8%)	5(2.8%)	3(1.7%)	177(100.0%)
경기		35(3.2%)	74(6.8%)	57(5.3%)	16(1.5%)	44(4.1%)	1,083(100.0%)
강원		18(7.3%)	11(4.5%)	9(3.7%)	7(2.8%)	10(4.1%)	246(100.0%)
충북		4(2.4%)	3(1.8%)	4(2.4%)	0	6(3.6%)	168(100.0%)
충남		12(7.5%)	7(4.4%)	4(2.5%)	0	8(5.0%)	159(100.0%)
전북		5(1.3%)	8(2.0%)	4(1.0%)	0	6(1.5%)	391(100.0%)
전남		7(3.9%)	5(2.8%)	0	1(0.6%)	6(3.4%)	179(100.0%)
경북		13(3.9%)	19(5.7%)	24(7.2%)	5(1.5%)	6(1.8%)	335(100.0%)
경남		23(4.8%)	31(6.5%)	33(6.9%)	12(2.5%)	22(4.6%)	479(100.0%)
제주		1(1.1%)	9(10.0%)	7(7.8%)	3(3.3%)	0	90(100.0%)
계		156	211	195	70	142	4,467
비율		3.5%	4.7%	4.4%	1.5%	3.2%	100.0%

작은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영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자료 열람(1,120, 25.1%)과 자료대출(1,074, 24.1%)이었으며, 이어서 도서실제공(463, 10.4%)과 공부방 및 학습지도(402, 9.0%), 독서지도(375, 8.4%), 독서토론(259, 5.8%), 어린이대상문화강좌(211, 4.7%), 어린이캠프(156, 3.5%) 순으로 조사되었다.

운영프로그램 대부분이 어린이를 위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작은도서관 주요 이용층이 어린이이며, 어린이를 위한 아동도서가 작은도서관 소장 장서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 이용현황

〈표 8〉 작은도서관 이용현황

도	구분	평일 1일 평균 이용자 수						계	1관당 평균인원
		5명미만	5~10명 미만	10~20명 미만	20~50명 미만	50명이상	무응답		
서울		13(5.4%)	23(9.5%)	23(9.5%)	34(14.0%)	41(16.9%)	108(44.6%)	242(100.0%)	208.7
부산		2(2.1%)	16(16.7%)	19(19.8%)	25(26.0%)	11(11.5%)	23(26.0%)	96(100.0%)	22.9
대구		13(27.1%)	5(10.4%)	7(14.6%)	12(25.0%)	4(8.3%)	7(14.6%)	48(100.0%)	13.3
인천		5(6.9%)	2(2.8%)	11(15.3%)	18(25.0%)	5(6.9%)	31(43.1%)	72(100.0%)	13.1
광주		4(10.5%)	2(5.3%)	9(23.7%)	15(39.5%)	7(18.4%)	1(2.6%)	38(100.0%)	25.1
울산		7(18.9%)	10(27.0%)	6(16.2%)	7(18.9%)	3(13.5%)	2(5.4%)	37(100.0%)	19.4
대전		11(13.1%)	9(10.7%)	11(13.1%)	27(32.1%)	9(10.7%)	17(20.2%)	84(100.0%)	18.2
경기		26(5.2%)	35(7.0%)	87(17.5%)	134(26.9%)	53(10.6%)	163(32.7%)	498(100.0%)	20.3
강원		13(20.3%)	13(20.3%)	12(18.8%)	20(31.3%)	1(1.6%)	5(7.8%)	64(100.0%)	13.9
충북		33(30.3%)	22(20.2%)	19(17.4%)	14(12.8%)	3(2.8%)	18(16.5%)	109(100.0%)	9.6
충남		10(13.5%)	10(13.5%)	12(16.2%)	10(13.5%)	2(2.7%)	30(40.5%)	74(100.0%)	9.1
전북		23(13.6%)	13(7.7%)	21(12.4%)	33(19.5%)	27(16.0%)	52(30.8%)	169(100.0%)	63.4
전남		8(3.1%)	8(3.1%)	9(3.5%)	15(5.9%)	6(2.4%)	209(82.0%)	255(100.0%)	3.7
경북		41(32.3%)	13(10.2%)	32(25.2%)	24(18.9%)	3(2.4%)	14(11.0%)	127(100.0%)	11.6
경남		31(19.1%)	23(14.2%)	25(15.4%)	38(23.5%)	25(15.4%)	20(12.3%)	162(100.0%)	21.4
제주		16(11.4%)	6(4.3%)	10(7.1%)	6(4.3%)	2(1.4%)	100(71.4%)	140(100.0%)	3.4
계		256(11.5%)	210(0.9%)	313(1.4%)	432(19.5%)	202(9.1%)	802(36.2%)	2,215(100%)	29.6

작은도서관의 이용자는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일 평균 인원 30명 정도이며, 연령별대로는 대체적으로 초등학생(46.2%)과 주부(15.9%)가 주된 이용자로 파악되었다. 단, 이용자 수 응답에 소극적인 무응답이 802개관(36.2%)에 이르고 있는 점은, 자원봉사인력으로 운영되는 이들 작은도서관의 운영여건상 기초적인 이용자 통계업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결과로 평가된다. 전체 작은도서관의 23.7%에 불과한 업무시스템의 전산화를 보급함으로써, 기초적인 통계업무의 개선이 요망된다.<sup>10)</sup>

10)정현태. 전계논문. p.232.

#### 4) 이용자 연령구성

아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의 연령별 이용자 구성은 초등학생 (46.2%)과 주부(15.9%)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이용 연령층이 폭넓은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작은도서관에서의 운영프로그램이나 장서구성 등은 어린이와 주부 한 쪽으로 편향된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예상케 한다.

<표 9> 작은도서관 이용자 연령구성

도	구분	이용자 연령별 구성비율 (단위 : %)						
		유아 7세 이하	초등생	중고생	대학생 및 성인	주부	노인	계
서울		10.1	38.3	12.1	15.9	20.1	3.5	100.0
부산		7.7	44.6	13.6	11.7	20.9	1.5	100.0
대구		10.9	50.1	19.1	8.4	11.1	0.4	100.0
인천		12.4	45.9	14.5	6.9	18.7	1.6	100.0
광주		9.7	52.7	15.8	8.4	11.2	2.2	100.0
울산		19.6	30.1	12.7	7.1	30.3	0.2	100.0
대전		7.2	45.8	14.9	8.4	22.6	1.1	100.0
경기		13.9	47.2	12.2	8.3	17.2	1.2	100.0
강원		10.6	55.8	13.1	8.7	7.5	4.3	100.0
충북		5.7	43.8	18.9	14.2	15.5	1.9	100.0
충남		11.3	52.8	16.5	7.3	9.9	2.2	100.0
전북		3.9	41.4	19.8	18.7	10.8	5.4	100.0
전남		7.2	46.2	16.2	12.3	15.9	2.2	100.0
경북		9.2	47.5	11.3	14.5	15.7	1.8	100.0
경남		11.1	35.4	16.6	10.1	22.9	3.9	100.0
제주		6.7	62.6	12.6	10.3	5.4	2.4	100.0
계		9.8	46.2	15.1	10.7	15.9	2.3	100.0

#### 3.1.4 작은도서관 운영자원

작은도서관의 실질적 역량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원으로써 도서를 비롯하여 비도서, 연속간행물, 온라인콘텐츠, 전산화 수준 등 일련의 운영자원을 확인함으로써 도서관의 역할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1) 장서현황

국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자원가운데 장서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작은도서관 장서현황

구분 도	장서현황 (단위 : 권)				
	도서	비도서	연속간행물	온라인콘텐츠	계
서울	2,785.4(99.2%)	19.8(0.7%)	0.7(0.02%)	0.06(0.002%)	2,805(100.0%)
부산	3,935.1(97.3%)	100.8(2.4%)	11.8(0.3%)	0(0%)	4,047.7(100.0%)
대구	2,971.8(98.4%)	42.3(1.4%)	5.3(0.2%)	0(0%)	3,019.4(100.0%)
인천	3,101.3(98.5%)	46.5(1.4%)	0.8(0.1%)	0(0%)	3,148.6(100.0%)
광주	3,882.1(98.4%)	60.1(1.5%)	1.5(0.05%)	0.02(0.01%)	3,943.7(100.0%)
울산	2,581.7(99.3%)	15.4(0.6%)	1.3(0.05%)	0.02(0.00%)	2,598.4(100.0%)
대전	3,216.1(98.9%)	32.1(0.9%)	0.5(0.01%)	1.4(0.04%)	3,250.1(100.0%)
경기	3,326.3(98.2%)	39.2(1.1%)	16.7(0.5%)	3.0(0.08%)	3,385.2(100.0%)
강원	3,522.2(98.5%)	51.4(1.4%)	2.7(0.1%)	0(0%)	3,576.3(100.0%)
충북	1,855.1(97.1%)	53.4(2.8%)	1.2(0.06%)	0.9(0.04%)	1,910.6(100.0%)
충남	9,009.9(99.4%)	51.3(0.5%)	2.5(0.02%)	0(0%)	9,063.7(100.0%)
전북	1,942.2(97.9%)	40.7(2.1%)	0.3(0.01%)	0(0%)	1,983.2(100.0%)
전남	802.9(97.2%)	21.5(2.6%)	0.2(0.02%)	0.04(0.00%)	824.6(100.0%)
경북	3,665.9(98.9%)	36.6(0.9%)	2.1(0.06%)	0.9(0.04%)	3,705.5(100.0%)
경남	3,950.5(96.8%)	128.4(3.1%)	1.9(0.1%)	0(0%)	4,080.8(100.0%)
제주	911.5(99.6%)	2.9(0.3%)	0.03(0.1%)	0(0%)	914.4(100.0%)
전국평균	3,216.2(98.4%)	46.4(1.4%)	3.1(0.1%)	0.3(0.1%)	3,266.1(100.0%)

상기 <표 10>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의 평균 장서현황은 도서 3,216 권(98.4%), 비도서 자료 46점(1.4%), 연속간행물 3종(0.1%), 온라인콘텐츠 0.3종(0.1%) 등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자자원으로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함께, 전자자원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일부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작은도서관의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암시해 주고 있다.<sup>11)</sup> 즉, 전자책과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매체도 주민들이 요구를 시작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이 온라인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장비구입과 해당 전자자원의 구입을 위한 별도의 추

11)정현태. 전계논문. p.228.

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제한된 예산이라는 현실과 이용자의 요구 확대라는 외부상황에 따라 형식적인 장서구성이 될 확률을 갖고 있다. 이는 자체적인 구입이외에 작은도서관간 전자자원 열람을 위한 컨소시움을 구성하거나 혹은 지역 공공도서관의 지원 혹은 협력을 필요로 하는 반증이 될 수 있다.

## 2) 전산화 현황

국내 작은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전산화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실질적 상호대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의 사용과 통일안이 필수적이다.

〈표 11〉 작은도서관 전산화 현황

구분 도	전산시스템 사용	1관 당 컴퓨터 및 시청각 기기 보유현황(대)			
		컴퓨터	영상기기	오디오	계(100%)
서울	136(56.2%)	1.6(80.0%)	0.2(10.0%)	0.2(10.0%)	2.0
부산	28(29.2%)	1.8(58.1%)	0.6(19.3%)	0.7(22.6%)	3.1
대구	10(20.8%)	1.3(46.4%)	0.6(21.4%)	0.9(32.2%)	2.8
인천	21(29.2%)	1.1(78.5%)	0.1(7.1%)	0.2(14.4%)	1.4
광주	10(26.3%)	3.2(76.1%)	0.5(11.9%)	0.5(11.9%)	4.2
울산	10(27.0%)	1.3(65.0%)	0.4(20%)	0.3(15%)	2.0
대전	22(26.2%)	1.2(80.0%)	0.2(13.3%)	0.1(6.6%)	1.5
경기	167(33.5%)	1.0(71.4%)	0.2(14.3%)	0.2(14.3%)	1.4
강원	12(18.8%)	3.2(78.0%)	0.5(12.3%)	0.4(9.7%)	4.1
충북	7(6.4%)	1.6(80.8%)	0.2(10.0%)	0.2(10.0%)	2.0
충남	6(8.1%)	1.4(77.8%)	0.2(11.1%)	0.2(11.1%)	1.8
전북	11(6.5%)	0.7(77.8%)	0.1(11.1%)	0.1(11.1%)	0.9
전남	4(1.6%)	0.3(76.0%)	0.1(25.5%)	0	0.4
경북	23(18.1%)	1.2(35.2%)	1.1(32.4%)	1.1(32.4%)	3.4
경남	59(36.4%)	2.0(86.9%)	0.2(8.7%)	0.1(4.4%)	2.3
제주	0	0.7(100.0%)	0	0	0.7
계	526	1.5	0.2	0.3	2.0
비율	23.7%	71.5%	12.7%	15.8%	100%

작은도서관 전산화 정도를 파악하고자 전산시스템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상기 <표 11>과 같다. 2,215개의 작은도서관 가운데 526개(23.7%)의 작은도서관만이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작은도서관 전산화 현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과 함께 작은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평균 약 1.5대)와 영상기구나 오디오 같은 시청각 기기의 보유 역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열악한 작은도서관의 운영자원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체계, 조직, 현황, 자원 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작은도서관 총 2,872개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24평의 규모에 24석의 열람석, 3,287책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5.3%의 작은도서관이 종교단체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작은도서관은 한 해 평균 518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으며, 인건비(34.9%)와 자료구입비(30.6%) 등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다. 작은도서관 근무인력은 평균 4.43명 정도이며, 전문사서가 아닌 비상근 자원봉사 인력(85%)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작은도서관의 개관시간은 하루 평균 4.6시간으로 전체의 89.1%가 공휴일과 야간에 개관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는 작은도서관의 개관시간이 공공도서관보다는 좀 더 탄력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작은도서관의 이용현황은 평일 평균 30명 정도로 초등학생(46.2%)과 주부(15.9%)가 주된 이용자로 집계되었으며, 운영프로그램 역시 이들을 위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장서와 전산화 현황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운영자원을 살펴본 결과, 작은도서관의 장서는 도서가 평균 3,216권으로 전체 소장 자료의 98.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컴퓨터와 시청각 기기 등의 보유도가 낮고, 전산시스템 사용 여부 또한 23.7%에 그쳐 작은도서관 전산화 현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는 앞서 고찰해 본 국내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와는 사뭇 다르다 할 수 있다. 국내의 작은도서관은 운영현황 파악,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등 초기 단계의 조성 사업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입 사례 또한 부분적이고 지역적이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미국, 유럽(영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국외 작은도서관은 운영 체계, 조직, 현황, 자원 등이 국내보다는 활성화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연구와 사례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운영실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1978년부터 25,000명<sup>12)</sup> 미만의 지역에 봉사하는 도서관 모두를 통틀어서 작은도서관으로 보고 있으며, 그 운영실태는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봉사인구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기 준	인구 2,500 미만 지역에 봉사하는 도서관	인구 25,000 미만 지역에 봉사하는 도서관
도서관 수	공공도서관 전체 9,129개 중 2,662개(29%)	공공도서관 전체 9,129개 중 7,177개(79%)
도서관 개관시간	봉사인구 1,000명 미만 1,041개 중 416개) - 10~19시간 / 1주일 봉사인구 1,000~2,499명 (1,621개 중 680개) - 20~29시간 / 1주일	봉사인구 2,500~4,999명(1,305개 중 457개) - 30~39시간 / 1주일 봉사인구 5,000~9,999명(1,443개 중 505개) - 40~49시간 / 1주일 봉사인구 10,000~24,999명(1,767개 중 548개) - 50~59시간 / 1주일
총 운영수입	\$36,000 (약 ₩36,000,000)	\$192,000 (약 ₩192,000,000)
직원 수	풀타임 직원이 평균 1명(0.6%) 미만	풀타임 직원이 평균 5명
ALA / MLS 학위 사서	169개 도서관(6%)에 ALA / MLS <sup>13)</sup> 학위를 받은 사서가 있음	2,232개 도서관(31%)에 ALA / MLS 학위를 받은 사서가 있음
장서현황	단행본·잡지 등록 책 수 - 11,196 책 잡지 구독 종 수 - 30 종	단행본·잡지 등록 책 수 - 27,235 책 잡지 구독 종 수 - 74 종
전체 대출책 수(1년)	10,277 건	47,528 건
레퍼런스 처리건 수	1,088 건	5,234 건
인터넷접근	90%가 인터넷 접근 가능	95%가 인터넷 접근 가능
전자서비스	79%가 전자서비스 접근 가능	88%가 전자서비스 접근 가능

12)하나의 공공도서관이 봉사해야 하는 인구 수

13)미국도서관협회(ALA) 공인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으로부터 석사학위(MLS)을 받은 자

상기 <표 11>은 작은도서관을 인구 2,500명 미만 지역에서 봉사하는 도서관(2,662개, 29%)과 인구 25,000명 미만 지역에서 봉사하는 도서관(7,177개, 79%)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개관시간, 장서현황, 예산, 근무인력 등에서는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이들 도서관은 규모와 상관없이 도서관의 고유기능인 장서구독, 대출, 참고서비스, 인터넷 및 전자서비스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2 국내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주민밀착형 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문화소의 계층에 대한 복지를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작은도서관은 현재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미약하나마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 우수 작은도서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2.1 부천시

부천시의 작은도서관 운동은 2001년 2월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산하에 ‘작은도서관 분과’<sup>14)</sup>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다. 이 분과는 민관이 함께 구성되어 작은도서관 설치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도서관 현황 조사, 심포지움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2년에 7개의 작은도서관 협약을 체결하여 5개관이 실제적인 운영을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시립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2004년 현재 총 9개의 작은도서관이 설립·운영 중에 있다.

부천시의 작은도서관은 초기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였고, 시립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선정과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11개의 작은도서관(공립문고)은 대학이나 종교단체, 복지기관 등 비영리 법인에 위탁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다.

부천시의 작은도서관에서는 부천시 소재 타 도서관과 함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 열람 및 대출, 상호대차 서비스(시립도서관 4개관, 작은도서관 11개관, 대학도서관 1개관)를 가능케 하였으며, 어린이·성인 독서카페 운영, 동화구연, 독서퀴즈대회 등 독서는 물론 인형공연, 학습프로그램 운영, 박물관이나 역사에 관한 견학이나 공부 등 다양한 문화 관련 프로그램 등을 서비스 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

14) ‘작은도서관 분과’의 정식 명칭은 ‘작은도서관 만들기 네트워크 분과’이다.

관과의 협력을 위해 월1회 사서모임을 설립하고, 워크숍 및 세미나, 간담회 등 공동 행사를 개최하여 내용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동시에 담아내는 등 모범 사례로 언론의 수많은 조명을 받고 있다.

부천시의 작은도서관 사례의 의의를 검토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민간협력 체제를 유지하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긴밀한 연계를 확립한 점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효율성도 배가시킨 점이라 할 수 있겠다.

### 3.2.2 순천시

순천시의 작은도서관 만들기는 2003년 11월 기적의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순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읍, 면, 동 단위의 독서의 열기가 높은 지역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평생학습의 도시의 명성과 책 읽는 도시의 확고한 자리 매김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시작되었다.

순천시는 “도서관이 있어 행복한 삶, 배움이 있어 넉넉한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걸어서 10분 이내에 시민 누구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0년을 목표로 인구 3만 명당 1도서관, 인구 1만 명당 한 개의 작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역으로 환산하면, 하나의 지역공공도서관과 3개의 작은도서관이 지역문화사업을 위한 하나의 컨소시엄을 형성할 수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작은도서관 만들기 3년 계획을 통해 2006년 현재 시립도서관 3개관, 작은도서관 25개관을 설립·운영 중에 있다.

순천시의 25개관 작은도서관은 현재, 민간(부녀회, 청년회, 주민자치위원회)에 의해 자체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작은도서관 운영자 선임, 인건비 지원), 137명의 자원봉사자, 평생학습지원센터(행정과 재정적인 지원), 시립도서관(종사자 교육, 순회문고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 작은도서관은 현재 도서대출 서비스, 독서지도, 독서캠프 등 책과 관련한 내용이 많으며 동시에 북 스타트, 책 한 권 하나의 순천, 각종 문예교실 등의 문화프로그램과 도예, 한지공예, 나무공예, 판소리 등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다. 순천시는 향후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장서를 공유토록 하여 작은도서관의 장서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7,7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통합도서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 여성, 물, 민속 등 테마가 있는 도서관으로 육성할 계획에 있다.

순천시의 작은도서관 만들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된 지원 속에 북 스타트, 책 한 권 하나의 순천 등의 독서캠페인을 전시용 이벤트나 일과성 행사로 삼지 않고 지

역특성에 맞는 항구적 모델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성공적 결과물로 주목을 받고 있다.

### 3.2.3 창원시

1980년대 후반 마산과 창원지역 진보적 인사들의 요구에 의해 열린도서관을 지향하는 민간 도서관인 ‘책사랑’이 설립된 것이 창원시 작은도서관 만들기의 시초가 되었다. 지역사회의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민간 도서관 운동을 주도하던 ‘책사랑’은 1993년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책의 해’를 기점으로 ‘경남도서관 및 정보문화발전연구소’(현재 명칭 경남정보사회연구소)를 1994년에 개소하였다. 동 연구소는 1995년 사과동성마을도서관의 개관 지원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11개의 마을도서관을 개관 및 위탁 운영하였다. 1997년에는 창원이 행정동의 역할과 기능을 증대시키는 지방행정의 창의적 모델로 대동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마을도서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동 연구소 이외 다른 사회단체들도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99년에는 창원과 사회단체가 기존에 사용하던 마을도서관이라는 명칭 대신 사회교육센터라는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했고, 2006년 현재 작은도서관 32개관(마을도서관 6개관, 사회교육센터 26개관)을 민관합작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 작은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살펴 본 부천시와 순천시와는 달리 공공도서관과 직접적인 연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과 지방정부가 도서관 서비스의 공급을 시민단체에게 위탁하여 추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관합작형의 새로운 모델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료구입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민단체가 운영을 맡는 새로운 실험적 운영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창원시 작은도서관은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창원시 작은도서관은 일반 독서 프로그램 이외 문화·교양강좌, 자기개발프로그램, 방과 후 교실 등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화를 통해서 고유의 영역을 활발하게 확장시키고 있다.

창원시의 작은도서관 사례의 의의는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하나의 긍정적인 유형을 새롭게 도출한 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성공적인 사례로 학계 및 공공도서관의 주목을 받고 있다.

### 3.3 국외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국내의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은 매년 조금씩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기는 하나, 국외의 작은도서관에 비해 예산과 공간, 자원, 사회적 네트워킹,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등이 많이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질적인 향상을 위해 작은도서관의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과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운영 및 제공 서비스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3.3.1 미국

##### 1) 요크 광역시 도서관 시스템 (York County Library System : YCLS)

<http://www.yorklibraries.org/village/>

요크 광역시 도서관 시스템(York County Library System : YCLS)은 비영리 단체로서, 계획, 조정,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요크 광역시(York County)에 의해 기금을 받아 운영된다. YCLS는 13개의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관의 본부에 해당하는 곳은 광역시(County)의 지역 센터(District Center)인 마틴 도서관(Martin Library)이다.

YCLS는 1974년에 “광역시(County)의 거주자와 납세자를 위한 공공도서관”으로 생겨났다. YCLS는 위원들과 7명의 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YCLS는 지식과 정보, 사상의 추구하고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요크광역시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정보를 공급하고, 교양을 쌓고, 평생학습을 장려하며, 개인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YCLS의 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는 DB 검색, 참조 인터뷰, 대출·반납, 상호대차 등의 독서 관련 프로그램과 어린이를 위한 동화 구연, 청소년을 위한 문학 컨테스트, 어른을 위한 독서토론회 운영 이외 각종 전시회, 외국 예술 감상, 소식지 발간 등의 문화프로그램 등이 있다.



2) 매사추세츠 지역도서관 시스템 (Massachusetts Library and Information Work Regional Library Systems)<sup>15)</sup>

<http://www.mlin.lib.ma.us/mblc/regional/index.php>

매사추세츠 도서관 위원회는 이용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6개의 지역도서관은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1,800 여개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의 자원공유를 위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 지역의 작은도서관은 지역공동체 기관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작은도서관을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 이용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지역사무소 6곳(Boston, Central, Metrowest, Northeast, Southeastern, Western)에서 제공하고 있다. 지역서비스의 내용은 상호대차, 참고서비스, 도서관 사이의 자료 전달, 계속 교육 및 훈련, 기술 지원, 데이터베이스 접근, 자동차문고 서비스, 협력 구입 프로그램, 인쇄 및 비도서 자료의 보조, 보존 장서, 여름 독서 프로그램이며, 이는 회원 조건이 필요하다. 협력서비스로는 자료 전달, 참고서비스, 상호대차(MassCat 이용), 자문 및 기술지원, 추가 서비스(25,000명 이하의 작은도서관 지원 서비스 포함)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은 각 지역별 인구수에 따라 분배한다.

3) 웨스트레이크 마을도서관(Westlake Village Library)

<http://www.colapublib.org/libraries/westlake/>

처음 웨스트레이크 마을 다니엘 K. 루드윅 도서관(Westlake Village Daniel K. Ludwig Library)은 1993년 3월 27일에 생겨났다. 이 도서관은 웨스트레이크 자치 시와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의 주의 동의하에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도서관은 웨스트레이크 마을(Westlake Village)의 개발자이며, 개척자인 다니엘 K. 루드윅(Daniel K. Ludwig)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마을도서관은 2002년 2월에 좀 더 넓고 새롭게 개관하였다.

도서관은 11,500 평방피트로 웨스트 마을 시청 내에 편리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동화 방(Story Tower)과 같은 어린이 공간이 특별하게 디자인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장서는 약 60,681권 정도의 단행본과 3,507점의 비디오자료, 2,556점의 오디오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125종의 잡지와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

15)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6.

의 전화번호부와 지역의 역사정보와 팜플렛과 같은 유형의 특화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7대의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제공하고 있고, 8개 기관의 소장목록 이용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동전 투입식의 사진복사기를 비치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친구들(Friends of Library) 스폰서의 “베스트셀러 임대(Best Seller Rental Collection)”와 “오래된 장서(Book Nook)”의 판매를 진행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스터디 룸, 복사실, 이야기 방, 편안한 의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 이용자를 위한 공간과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4) 오하이오 주의 델리 메모리얼 도서관 (Dally Memorial Library : DML)<sup>16)</sup>

<http://www.dallylibrary.org>

오하이오 주 사르디스(Sardis) 시에 위치한 델리 메모리얼 도서관(Dally Memorial Library : DML)은 정부관할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민간지원 만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도서관이다. DML은 정부기관의 관할로부터 자유로우며, 리버프론트도서관협회(Riverfront Library Association)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DML이 받는 정부 지원금은 세 가지 형태를 띠며, 도서관 예산은 평균 연간 \$35,000이며, 그 중 \$8,000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이며, 도서관 전체 예산의 50%는 자금조달, 북 세일(Book Sale), 도서관 친구들(Friends of Library)과 같은 기부그룹 및 기타 공공·민간기관의 기부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 명의 풀타임 직원, 도서관 보조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며, 풀타임 직원은 오하이오 주 도서관에 소속된 도서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다.

예산 지출은 전문 직원과 보조 직원의 임금, 오하이오 주 도서관과의 멤버십 비용, 도서 구입비 등으로 구성된다. DML은 독립적 공공도서관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범죄자의 사회봉사활동을 도서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Monroe 도시 검인법원에서 \$300)과 ‘연방정부 노인직업 프로그램(Federal Older Americas Work Program)’ 등과 같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되며, 오하이오 주 도서관 소속 멤버십 도서관들과 도서자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받는다. 그 외에 청소년 범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노인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등이 있다.

---

1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전게서.

### 3.3.2 유럽

#### 1) 영국 벅슬리 마을도서관 (Bexley Village Library)

<http://www.bexley.gov.uk/service/lib-bexvillage.html>

최근 2년간 영국의 도서관 이용자 수는 증가해 왔다. 매년 2억 8,500만이 넘는 이용자가 방문하고 있으며, 열람 대출 이외 독서그룹, 연구 공간, 숙제클럽, 훈련과정, 정보활동, 사건 및 컴퓨터의 인적 네트워크, 웹 사이트 등이 전국적인 서비스로 행해지고 있다.

벅슬리 마을도서관(Bexley Village Library)은 벅슬리 마을 전문 상점(Bexley Village Shop)과 가까운 지역 커뮤니티 도서관이다. 신분과 주소만 확인이 가능하게 되면, 간단한 서류 작성을 통해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되면 누구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1919년에 처음 문을 열었고, 1982년과 2000년 두 차례 확장되었다.

벅슬리 마을도서관(Bexley Village Library)에는 네트워크, DVD, 지역사회정보, 녹음도서 등의 시설이 있다. 소장 자료는 성인용 도서 4,900책, 어린이용 도서 3,750책, 참고도서 170책, 시청각자료 690점 등이 구비되어 있다. 예약독자는 1,200명이며, 연간 방문자 수는 30,030명, 연간 도서 대출은 33,840건이다.

벅슬리 마을도서관(Bexley Village Library)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요일에 따라 다르며, 평균 하루에 4~5시간동안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벅슬리 마을도서관(Bexley Village Library)은 벅슬리 협의회(Bexley Council)에 의해 운영된다. 벅슬리 협의회(Bexley Council)는 거주자들의 삶의 질, 행복, 안전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로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 교통, 의료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2) 영국 캔싱턴 및 첼시 도서관 (Kensington and Chelsea Libraries)<sup>17)</sup>

<http://www.locallife.co.uk/kensingtonchelsea/libraries3.asp>

최근 2년간 영국의 도서관 이용자 수는 증가해 왔다. 매년 2억 8,500만이 넘는 이용자가 방문하고 있으며, 열람 대출 이외 독서그룹, 연구 공간, 숙제클럽, 훈련과정, 정보활동, 사건 및 컴퓨터의 인적 네트워크, 웹 사이트 등이 전국적인 서비스로 행해지고 있다.

캔싱턴 및 첼시 도서관은 6개 분관으로 운영되며, 각각 당관이 소장하지 않은 책

---

17)국립중앙도서관. 전게서.

은 상호대차를 통하여 약간의 비용을 받아 운영하되, 국외 자료까지 서비스하고 있다.

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는 상호대차와 동일 대출회원 카드의 사용, 수서업무 시 협동구매시스템 등이 있으며, 자료의 정리와 운영은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특화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또 광역서비스를 위한 런던도서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항상 시민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도 이동도서관, 숙제클럽(Homework Club) 프로그램,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시청각서비스,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도서관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방문서비스, 지역의 중심지나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하는 순회서비스 및 전자우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에게는 도서관의 운영과 각종 정보를 수시로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 3) 프랑스 까상 시립 도서관 (Bibliothèque de L'ENS Cachan)<sup>18)</sup>

<http://www.bibli.ens-cachan.fr>

프랑스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공적 영역인 도서관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 육성함으로써 공적 영역의 서비스를 굳이 민간에서 맡아야 할 필요성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없다. 작은도서관의 형태는 아니지만 많은 사설 도서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만족시킬 수 없는 시민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아랍문화도서관, 소장자나 기증자의 이름을 딴 개인도서관 등과 같은 특화된 주제의 도서관들로 되어 있다.

까상은 파리 남쪽 일드 프랑스에 위치한 인구 24,000명의 도시로 발 드 마르느(Val de Marne)라는 도(département)에 속해 있으며 파리 남쪽 2km에 위치해 있다. 도서관은 중앙도서관, 라 플렌느(La Plaine) 분관, 라마르틴느(Lamartine) 분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서 수는 약 10만권, 직원 수는 본관 18명, 라 플렌느 분관 3명, 라마르틴느 분관 3명 등이 있다. 2개의 분관은 본관과 비슷한 행사를 개최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2개의 분관은 본관으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회문화센터(Centre Socioculturel)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곳으로서 각종 문화활동(춤, 미술, 음악 등의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 두 도서관이 사회문화센터 내에 위치함으로써 독서 활동이 사회 문화 활동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중앙도서관은 도서실과 시청각자료실(음반,

---

18)국립중앙도서관. 전게서.

오디오 교재, 영화)로 되어 있으며, 도서관은 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나뉘어져 운영되며, 다양한 전시회 및 독서클럽 등을 운영하고 있다. 2개의 분관도서관은 사회문화센터 내에 위치함으로써 독서활동이 사회 문화 활동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단순히 책을 대여하는 차원을 넘어서 각종 행사를 기획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특히 두 분관은 대규모 HLM(정부 지원 공영주택)<sup>19)</sup>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리적 위치는 두 분관의 역할이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아프리카 이민자들 중에는 불어 문맹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문화센터에서 이들을 위한 불어 교육을 실시한다. 라 플렌느 분관의 경우는 인근의 두 개의 양로원이 위치해 있어서 이 양로원의 노인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책을 대여해 준다. 도서전시, 작품 낭송회, 독서클럽, 양로원 책대여, 인근 학교 학생들의 독서지도를 하며, 학기 중에 까상 도서관은 초등학교 저학년생 및 유치원생들을 초청해서 전시회 개최, 아동연극 상연, 동화 및 역사이야기 들려주기 등의 도서관 발견 행사를 갖는다.

### 3.3.3 일본

#### 1) 오사카 시립 중앙도서관<sup>20)</sup>

<http://www.oml.city.osaka.jp/english/index.html>

중앙도서관, 23개 지역도서관, 자동차문고 2대로 도서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23개의 분관은 중앙의 서버를 공동으로 이용한다. 도서구입은 1주일에 한 번으로 현장 수서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중앙에서 구입해서 정리하여 지역분관으로 우송한다.

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상호대차, 자료의 폐기가 지역분관과 공동으로 이루어지며, 복본으로 구입한 자료와 시대에 따라 자료적 가치가 소멸된 도서는 중앙도서관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지역분과의 자료들은 폐기시킨다. 각종 보존자료 및 홍보 자료는 공동으로 중앙에서 제작·관리하며, 지역분관에서는 학교 등에 자동차문고 운영과 자료의 대출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분관에서는 공부방과 여가 및 취미활동을 위한 문화교실 등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야기 교실 등 독서 관련 프로그램만 운영해서 지역주민의 독서와 정보 제공에만 주력하고 있다. 그 외에 외국인을 위한 안내관(4개 국어)과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자를 위한 도서코너 운영, 도서관 근처에

19) HLM에는 대부분 서아프리카 흑인 이민자들이나 알제리 등 북아프리카 이주민 등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이 살고 있다.

20) 국립중앙도서관. 전게서.

살고 있지 않은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의 각 이동문고 스테이션(지정 정차장)을 월 1회씩 순회하고 있다.

## 2) 동경어린이도서관<sup>21)</sup>

<http://www.kodomo.go.jp>

(재단법인)동경어린이도서관은 민간에 의해서 경영되며, 재원으로서 공적 지원은 전혀 없으며, 재단법인의 독립 재산체로 운영되고 있다. 재정상황을 보면 찬조회원의 기부가 30~35%를 차지하고 있고, 출판사업의 매상이 45%를 약간 넘으며, 그 밖에 강연, 강좌, 강습에 의한 수입이 있고, 특히 찬조회원은 어린이 도서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소액기부자가 많다. 직원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정직원이 12~13명,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이 2~3명 있다. 사서자격자를 가진 사람은 6명, 임원중에 자격자가 2명 있어 도서관 전체로 8명의 사서자격자가 근무하고 있다. 도서관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지만 출판업무에서 잡무나 정리 등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고 있다.

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는 국제어린이도서관<sup>22)</sup>과의 직원 교환 교류와 연수나 강습회를 개최하여 지방의 공공도서관의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서비스’는 어린이 대상으로 주 1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3) 일본점자도서관<sup>23)</sup>

일본점자도서관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며, 사회복지법인은 면세가 되는 법인격으로서 부분적으로 공적지원을 받고 있다. 재정상황을 보면 정부와 동경도의 보조금이 전체 재정의 15%를 차지하며, 개인의 기부가 15%, 40%는 맹인용구의 판매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자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수익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자책을 녹음하는 등의 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연간예산은 10억엔)하고 있다. 연간 이용자는 1만 1천 5백 명에 달하며, 정직원이 60명, 파트타이머가 75명, 그

---

21)국립중앙도서관. 상계서.

22)국제어린이도서관은 2001년 1월 국립국회도서관의 지부도서관으로서 설립된 일본 최초의 국립아동서전문도서관이다. 그 해 5월 5일 제1기 개관을 하여 2002년 5월 5일에 전면 개관하였다. 기본적인 역할로서는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의 제1선에 있는 국내외의 도서관과 연계,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그 활동을 지원하여 어린이의 책과 출판문화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센터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23)국립중앙도서관. 전계서.

중에 시각장애자는 12~13명 정도가 있다.

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자료 상호대차’가 있으며 전국의 점자도서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상호대차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접 점자책을 만들어서 공공도서관에 판매하기도 하며, 우편시스템을 통한 자료 배달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 4.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 4.1 작은도서관의 운영방안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일반 도서관과 같이 크게 인력을 비롯하여 시설,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에서 수행하는 중요 업무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주요 역할로써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하는 다음 3가지 업무영역을 기준으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열람 및 대출업무
- 정보서비스(안내서비스차원의 정보서비스, 방과 후 프로그램, 독서지도 등)
- 소규모 문화프로그램

이 때 열람 및 대출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리적 자원(인력, 예산, 인력, 조직)이 필요하며, 정보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서비스와 장서관리(장서규모, 연속간행물, 비인쇄자료 또는 멀티미디어 자료, 폐기기본방향, 관리시스템)가 필요하다.

#### 4.1.1 물리적 자원 운영방안

모든 기관이나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비롯하여 예산 및 공간, 법률적 근거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요소를 일정 수준이상 충족시킬 경우에 가능하다.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문고도 작은도서관의 범주에 속하나,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정보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작은도서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1) 인력

작은도서관의 인력구성은 개별 작은도서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소분관을 비롯하여 자료대출분관, 확장적 소분관으로 구분할 경우에<sup>24)</sup> 자료대출분관은 일종의 대본소로써 전문인력으로서 사서의 배치를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 또한 전통적인 전문서비스인 편목 업무와 정보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작은도서관도 전담인력이 필요할 뿐, 특별히 사서의 배치를 강제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인력은 고정인력과 가변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인력이라 함은 전통적인 도서관업무를 수행 및 지원하는 인력으로서 사서 혹은 사서교사와 같은 정규직을 의미한다. 가변인력이란 도서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와 같이 정기적인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 인력을 의미한다.

한편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작은도서관이 최소한의 정보서비스를 수행할 경우에는 전문인력으로서 최소 1명 이상의 정규직 사서나 사서교사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정규직 사서나 사서교사의 배치를 권장하고, 자원봉사자 가운데 1명 이상이 사서자격증이나 사서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과 같이 사서 1명이라는 최소인원을 산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업무는 크게 대출을 비롯하여 수서, 정리, 정기간행물, 정보서비스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작은도서관은 이 업무영역 가운데 대출업무와 정보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바, 5개 영역 중 2개 영역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의 최소 요구 인원을 3명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 두 사항을 고려하면, 작은도서관이 일반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하는 역할 가운데 2/5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1명의 사서가 근무할 때, 작은도서관의 명칭에 부합하는 효율적 운영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06년 12월)<sup>25)</sup>에도 공립문고의 경우 사서직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립문고로써 작은도서관에 사서 1인을 배치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적합하다<sup>26)</sup>.

단, 이상의 인력조건을 강조할 때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동의 축소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치는 이론적이며, 향후 작은도서관발전 모델에 있어 방향목표로 설정한다.

24)국립중앙도서관. 전개서.

25)문화관광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문화관광부. 2006.

26)남영준 외. 전개논문.



## 2) 예산

작은도서관의 예산은 이를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비롯하여 운영비, 장서구입비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작은도서관 예산은 2004년 로또복권기금의 지원액 5000만원<sup>27)</sup>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제외된 금액이다. 또한 부천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작은도서관(공립문고)의 경우에도 설치비와 운영비만을 지원하고, 운영비에 장서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 사업의 예산은 표준적인 예산 및 집행 모델이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정현태<sup>28)</sup>는 작은도서관 모델을 제안하며, 해당 예산에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은 2006년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로 월 117만원 이상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으로서 마을문고는 자원봉사체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비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영체제는 앞의 논의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공공도서관분관으로서 작은도서관보다 마을문고의 별칭으로써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체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예산 규모는 A형의 도서관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최소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표 13〉 예산 규모의 최소기준

구 분	최소 요건	비 고
운영비	각종 공과금 및 영선 유지비	
자료구입비	300만원 이상	인구2만, 도서관법기준의 2/5수준
인건비	지방 사서직 9급 인건비	정부과건일 경우 계산하지 않음

## 3) 조직

작은도서관의 조직은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미래지향적인 경영전략과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운영의 효

27)정부는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4호 <문화·예술 진행 및 문화유산 보존사업>에 근거하여 25억원의 예산을 확보, 2004년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28)정현태. 전개논문.

울성과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직원에 관련된 정책 및 절차는 정당한 인사관리를 따라야 하며, 채용방법은 직원의 적성과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조직의 설치 단위와 구성은 A형 작은도서관을 기본 단위로 하되, 규모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국가적인 협력체계를 통하여 각 대표 작은도서관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작은도서관망이 조직 운영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지역 편성 단위별로 도서관 간 상호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그 규정에 따라 각 지역의 거점 작은도서관을 정점으로 하는 작은도서관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단위 도서관은 전국 작은도서관망에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의 다른 도서관 및 공공 기관과 단체와 연계하여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작은도서관의 정책 계획, 운영 및 관리 전반과 자료 선정 등을 심의, 자문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연 수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인력은 작은도서관의 규모와 업무량을 감안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적정 인원의 인력을 직제로 편성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의 규모나 기능, 장서수, 이용자수, 건물구조 등을 감안하여 적정 인원을 결정하되, A형 이상은 1인 이상의 중앙에서 관리되는 전문사서, B형은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자 1인 이상으로 한다. 중앙에서 관리된다 함은 협력기관(지방자치단체 혹은 지역 인근 공공도서관 등)에서 지원(예산 혹은 인력)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작은도서관 담당 인력은 봉사대상자에게 적절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외 연수, 국내 공인교육기관의 장/단기 교육이나 학회, 협의회, 워크샵, 세미나, 컴퓨터 통신교육 등에 참여할 기회를 연간 수회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C형은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더욱 축소한 형태로써 기본적인 자료의 대출/열람 기능이외에 열람공간의 제공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련의 공간으로써 문고의 운영을 특정 공공기관에 의존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지하철 역사내에 있는 민원센터 인포메이션 센터의 공간에 일정 자료를 비치하여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과 자원봉사자로서 지역주민이 해당 기관의 개방시간동안 대출/열람, 열람공간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특히 해당 작은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검색과 함께 소장하지 않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최근거리의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으로의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 장서의 확보와 선정 등 일련의 역할은 해당 기관의 요청을 받은 지역 공공도서관이 담당한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설정하여, 작은도서관

관별 특성에 따라 3가지의 분관으로 구분하고 있다.<sup>29)</sup> 이 연구에 따르면 계층별 구조보다 다음과 같은 정상구조로 설명하고 있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설명하고 있으며, 내부 조직에 대한 제안은 유보하고 있다. 다만, 각 분관별로 업무를 제안하고 있어, 운영의 기본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분관의 경우 다음과 같이 권장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sup>3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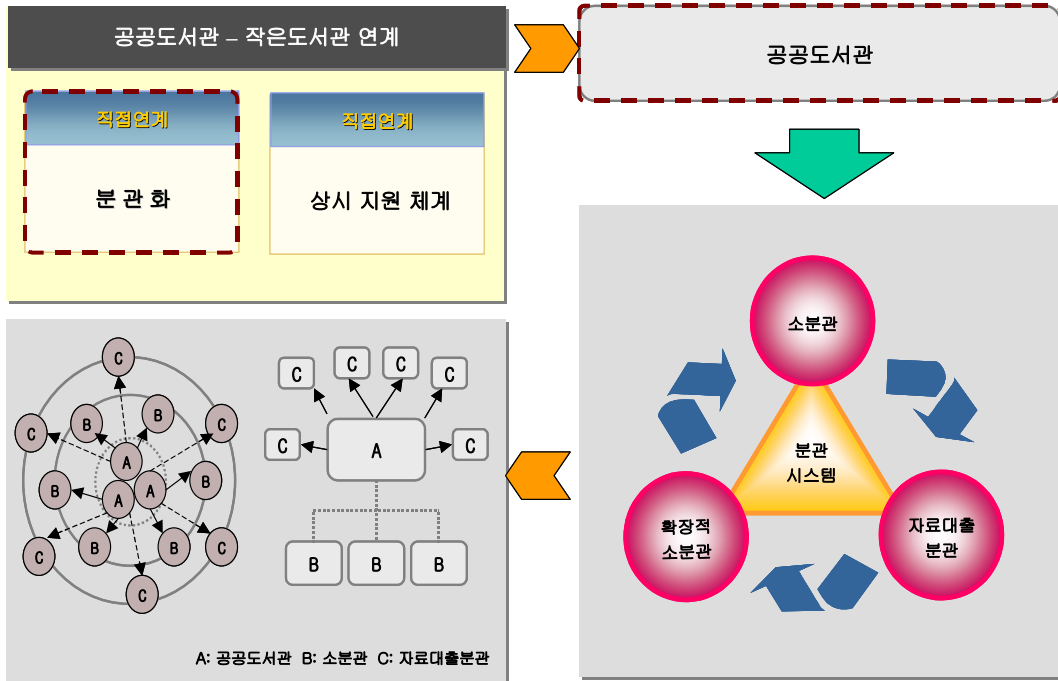
- 관리운영 : 지역사회 활동 참여
- 간접봉사 : 자료선택
- 공중봉사 : 자료열람·대출, 교육·문화프로그램, 이동도서관 대출문고 운영·관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시한 자료대출분관은 매우 작은 규모의 작은도서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C형의 작은도서관은 일련의 장서를 공공성을 지닌 기관(예를 들면, 지하철 인포메이션 센터, 보건소 민원센터 등)에 일련의 자료를 위탁하고, 이를 자원봉사자가 관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다음 (그림 1)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상한 분관으로써 작은도서관의 형태이다. 이에 비해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접점과 마을문고의 발전적 형태인 작은도서관과의 연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C형의 주체(예산, 운영지원 등)은 지역 공공도서관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자생적 형태이기 보다 해당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기관(혹은 사설기관)의 요청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 즉, A형 작은도서관과 B형 작은도서관은 공립이거나 혹은 사립과 같이 운영주체와 관계 없이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이때 A형과 B형은 계층적 관계보다 협력적 관계로써 지역적으로 지역공공도서관과의 거리가 멀 때, 해당 협력을 받을 수 있다는 역할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비해 C형태의 작은도서관은 지역공공도서관의 지원에 의해 자료관리와 선정이 상대적으로 크게 의존하는 형태로써 해당 장소를 제공한 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운영연결도를 의미한다.

29)국립중앙도서관. 전게서. pp.137-140.

30)국립중앙도서관. 상게서. p.138.

(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시스템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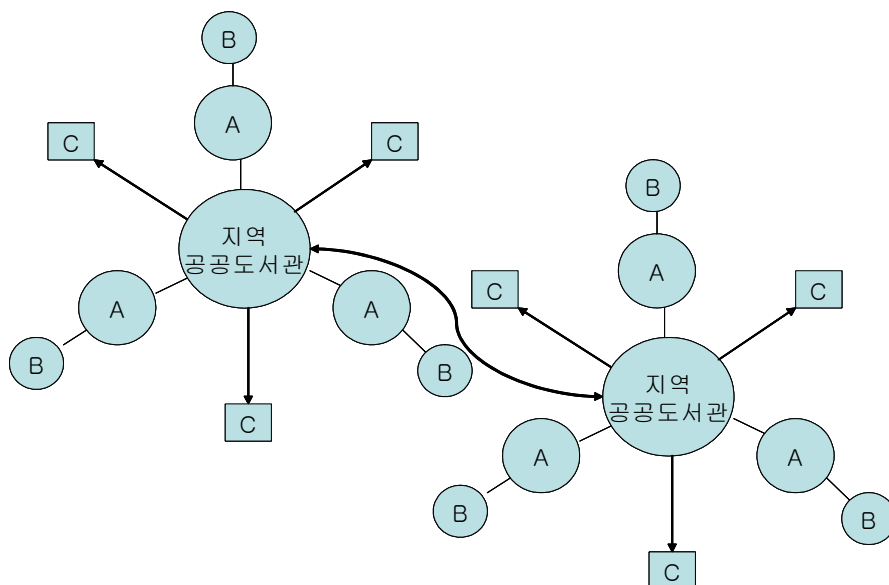


김세훈의 연구에서 제안한 작은도서관은 문고의 유형을 분관으로 설정한 후에 지역공공도서관과 분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이를 A(공공도서관)와 B(소분관)와 C(자료대출분관)을 표현하였으며, 확장적 소분관의 위치설정이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확장적 소분관은 소분관에 포함된 것인지 혹은 자료대출분관에 포함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명기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계층적구조 협력모델로써 소분관은 소분관과 연결되고 또한 공공도서관과 연결한 형태(네트워크 혹은 협력모델)를 제시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시설규모와 봉사범위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A형과 B형, C형으로 구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공공도서관은 A형과 B형의 작은도서관과 협력형태를 유지하고, A형과 B형간의 작은도서관도 협력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C형 도서관은 협력의 주체를 공공도서관에 우선적으로 연계한다. 왜냐하면, A형과 B형의 작은도서관 협력은 단순한 자료이외에 문화프로그램의 공유 등 상대적으로 여러 형태의 협력이 가능한 반면, C형 도서관은 순수 자료열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C형과 A형 및 B형의 협력은 오히려 A형과 B형의 작은도서관에 실질적인 시너지효과가 노력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한편 모든 작은도서관들은 지역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상호대차 혹은 공동목록, 인터넷에 기반한 공동OPAC 등)을 이용하여 작가는 지역공공도서관의 자원에 대한 소장정보를 비롯하여 원문정보도 입수할 수 있도록 한다. 크기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혹은 국가 주요 도서관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참고적으로 순천시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이 1개의 공공도서관과 3개의 작은도서관 연계를 하나의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컨소시엄으로 상정할 때, 지역도서관간의 협력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지역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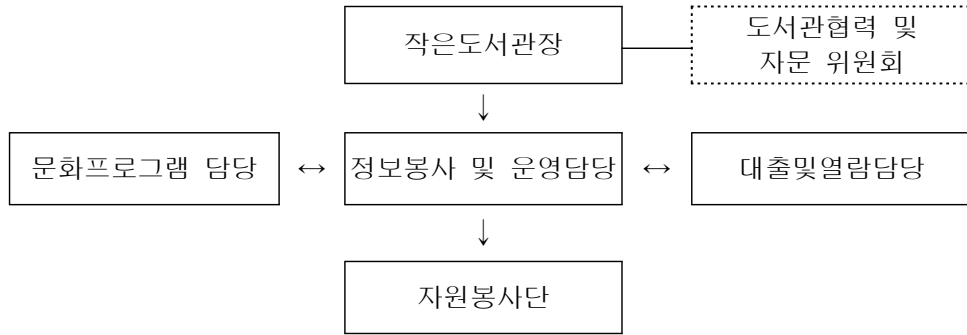
범례 A: A형 작은도서관, B: B형 작은도서관, C: C형 작은도서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협력관계로 설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조직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A형과 B형의 작은도서관에 초점이 맞추어진 조직이다. C형은 자료관리담당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1인 운영의 작은도서관(one man small-library)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이 필요 없다.

A형과 B형의 작은도서관 조직 구성은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기본기능을 가능한 모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기본적인 역할로 구별하면, 열람 및 대출,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정보안내서비스(타 기관과의 협력)로 나열할 수 있다.

이상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기본조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작은도서관 기본조직<sup>31)</sup>



이를 기준으로 필수 조직 소요인원을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 작은도서관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관장이 정보봉사 및 운영담당을 하며, 자원봉사단을 관리한다. 이를 사서직원이 수행한다. 또한 다른 담당과의 연결 고리로서 작은도서관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 문화프로그램담당은 사서직원이나 혹은 자원봉사자가운데 유급지원인력 1명을 활용하며, 문화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규모에 따라 담당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

- 대출 및 열람담당은 자원봉사자 가운데 2명 이상을 복수의 팀으로 배정한다. 이는 대출 및 열람자체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써 업무의 집중도가 타 업무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 5) 기본 시설과 고려사항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업무의 기본시설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시설로서 내부공간은 자료 공간, 이용자 공간, 직원 공간, 공유 공간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되, 모든 공간의 동선계획은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편의성 융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한다. 작은도서관의 자료 공간은 A형 형태의 거점형 작은도서관을 기본 방향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31)남영준 외. 전계논문.

〈표 14〉 작은도서관 자료 공간 권장 내용

구 분	면 적	주 요 비 품
서 고	16평	보유장서 기본 방향 : 5,000권 이상을 수용 복식 2연 7단서가(1.8*2.1*0.46) : 8개
열람실	15평	열람용 : 책상 8개, 의자 32개
관리 데스크	7평	관리용 : 책걸상 2개 이상 자동대출반납 관리기
정보검색 및 사랑방	12평	인터넷 전용 책걸상 5개 이상 TV, 휴식용 의자
총 평수	50.0평내외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공간은 열람, 학습, 연구를 위한 시설, 멀티미디어 자료의 시청을 위한 기자재 및 의자, 테이블, 컴퓨터 및 의자, 테이블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직원 공간은 작은도서관의 규모를 감안하여 설정하되, 자료의 대출, 반납을 위한 공간, 자료 정리를 위한 공간, 참고 정보서비스를 위한 공간이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 통신은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배선과 통신 설비를 갖추어져야 한다. 환경은 조명, 환기, 방습, 방화, 안전설비, 냉난방 등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기본시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대출, 반납에 필요한 시설 : 자동대출반납 관리기
- 나) 열람, 학습, 연구에 필요한 시설: 탁자와 의자를 갖춘 독서 공간
- 다) 참고, 정보봉사에 필요한 시설 : 신간 자료와 도서관 프로그램의 전시 공간
- 라) 자료 보관에 필요한 시설
- 마) 멀티미디어 자료 이용을 위한 시설: 자료의 이용을 위한 재생에 필요한 장비, 프린터, CD R/W, 복사기, 음반재생기, 테이프 녹음기, DVD 재생기, VTR 등
- 바) 교육 및 정보 검색용 컴퓨터

## 4.1.2 정보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작은도서관은 봉사의 유형과 범위, 내용과 우선순위 등을 명시한 이용자 봉사정책을 성문화하고 주기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이 이용자 봉사정책과 절차를 수립할 때는 이용자를 직, 간접적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장서관리 정책을 유지하는 것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지역주민에 대한 작은도서관 유인책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 1) 정보서비스

작은도서관의 운영여건상 도서관 담당 조직이 많은 인원으로 확보되어 이용자 봉사를 할 수 없으므로, 디지털 참고 봉사를 통한 해결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이용자 봉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지역 대내외 환경의 변화추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자료의 제공과 봉사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봉사대상자에게 도서관의 운영시스템과 봉사내용을 상세하게 홍보하여 존재가치를 인식시키고 방문과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출, 열람 봉사의 자료 이용은 전면개가를 원칙으로 한다. 작은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도서관의 규모와 실정에 맞게 조절하되,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리한 시간, 이용자의 요구가 발생하는 모든 순간에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기반할 경우에, 평일은 19:00~21:00시, 주말과 공휴일은 09:00~21:00시로 연중무휴, 종일개방이 바람직하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이용자는 지역주민이므로 지역주민의 여건에 따라 조정되어 최대한 활용 가능하게 유동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단, C형의 작은도서관은 기본적으로 해당 장소를 제공한 기관의 운영시간에 의존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장소개방시간에 맞추어야 한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대출 정책에는 대출기간, 대출제한 자료 수, 예약절차 등이 명시하며, 특히 작은도서관은 지역공공도서관과의 상호대차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반납에 있어 대출기간 계산을 비롯한, 원격지 반납 등 반납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온라인 정보접근 및 이용시설을 갖추어 다양한 정보요구에 대처해야 한다. 또한 개관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방식을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이용자의 참고질문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여 보다 나은 봉사개선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야 한다. 작은도서관이 새롭게 제공하는 봉사활동은 인터넷 게시판, 홍보게시판, 지역 신문,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표 15〉 A형, B형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양적 기준

	A형	B형	C형
조직	-작은도서관 거점 도서관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	-작은도서관 기본 설치단위 -작은도서관 협력 시스템 단위	-작은도서관 기본 지원단위 -작은도서관 협력 모델
인력	-담당직원 : 중앙에서 관리 되는 전문 사서 1인 이상 배치 -연간 수회 이상 교육 참가 의무화	-담당직원 : 지역주민 및 자원 봉사자 1인 이상 배치 -연간 수회 이상 재교육 참가 권장	-담당직원 : 지역주민 및 자원 봉사자, 해당기관 구성원
자료	-기본 장서 5,000권에 매년 적정 규모 이상의 장서를 수집 -연속간행물 기본 10종 -최소한의 참고자료 -멀티미디어자료	-기본 장서3,000권에 매년 적정 규모 이상의 장서를 수집 -연속간행물 기본 5종 -멀티미디어자료	-기본 장서1,000권 유지 -연속간행물 기본 5종
시설	-위치 : 접근이 용이한 적절 하고 독립적인 장소 -면적 : 50평 이상 -적절한 조명, 환기, 방습, 방음, 방화, 방진, 안전설비, 냉/난방 등의 장치 -대출/반납, 열람/학습/연구, 참고/정보봉사, 자료보관, 멀티미디어자료 이용 공간 -장비 : 개인용 컴퓨터, CD R/W, 스캐너, DVD 재생기, VTR, 자동대출반납기 등	-위치 : 접근이 용이한 적절 하고 독립적인 장소 -면적 : 30평 이상 -적절한 조명, 환기, 방습, 방음, 방화, 방진, 안전설비, 냉/난방 등의 장치 -대출/반납, 열람/학습/연구, 참고/정보봉사, 자료보관, 멀티미디어자료 이용 공간 -장비 : 개인용 컴퓨터, CD R/W, 스캐너, DVD 재생기, VTR, 자동대출반납기 등	-위치 : 공공 및 사설공간으로 쪼개 주민개방 공간 -면적 : 제한없음 -대출/반납, 최소 열람 공간 -장비 : 개인용 컴퓨터 등
예산	-인건비(훈련비), 자료비, 기타 운영비로 구분하여 배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인건비(훈련비), 자료비, 기타 운영비로 나누어 배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	-인건비(자원봉사자 차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
이용자 봉사	-개관시간 평일 19:00~21:00 주말 및 공휴일09:00~21:00 -대출, 참고/정보봉사	-개관시간 평일 19:00~21:00 주말 및 공휴일 09:00~21:00 -대출, 참고/정보봉사	-개관시간 평일 해당기관 개방시간 주말 및 공휴일: 폐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료는 봉사대상자의 인지와 대다수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도서관 공간은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능성, 확장성, 유연성, 심미성, 융통성, 효율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장비와 설비, 비품은 유효 수명과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하여야 하고, 내구성, 유용성, 심미성 등을 고려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내부공간은 자료 공간, 이용자 공간, 직원 공간, 공유 공간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되, 모든 공간의 동선계획은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자료접근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 검색을 위한 컴퓨터 공간은 점유면적의 적절성, 테이블 및 의자의 적당한 규격, 의자 높낮이의 조절 가능성, 조명의 적절성, 새로운 장비의 수용가능성, 미래의 확장성, 프라이버시의 보장, 접근 및 이동의 편의성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가구는 인간공학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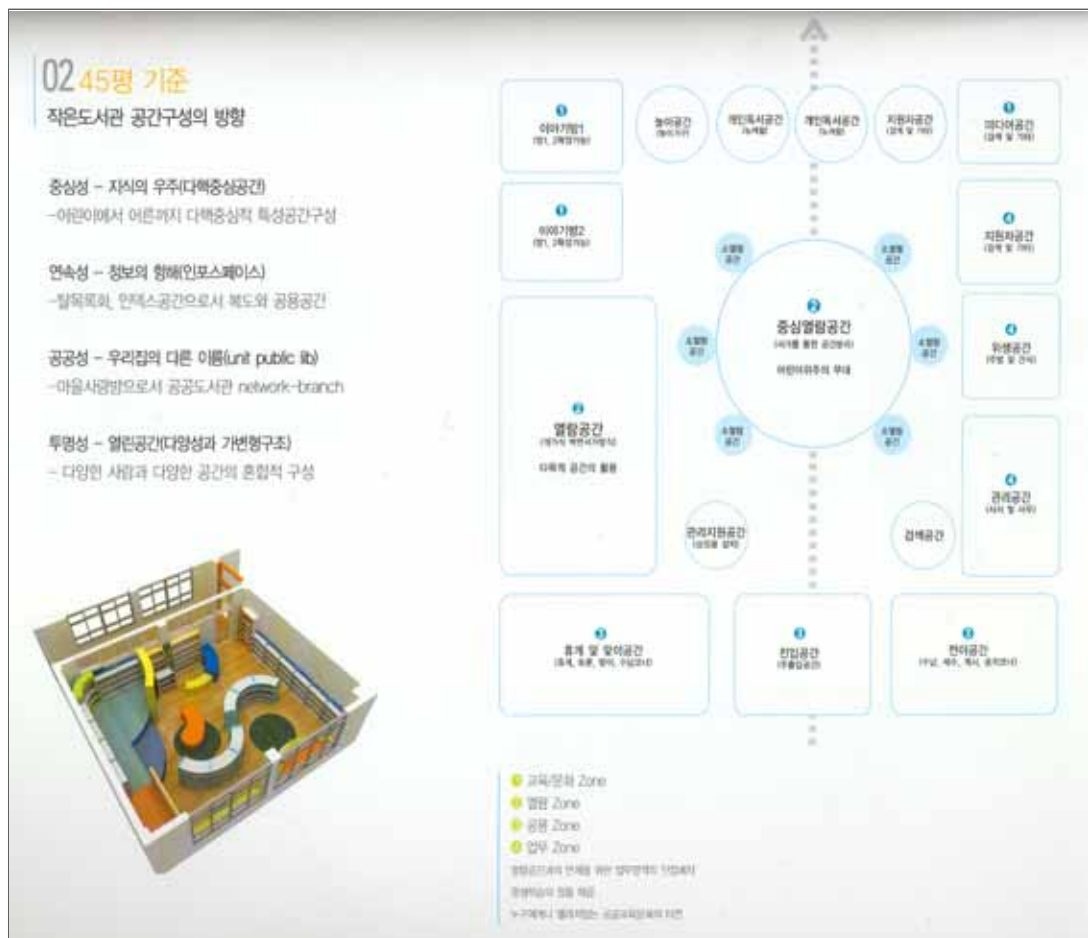
이용자는 연령, 생활수준 등을 불문하고 공평하게 이용되어야 하며, 대내외 환경의 변화추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자료의 제공과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한다. 전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온라인 정보접근 및 이용시설을 갖추어 다양한 정보요구에 대처해야 한다.

다음은 거점도서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의 모델을 제안한 것으로 아래(그림 4)는 50평 내외의 기본 방향 설계안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작은도서관도 일반적인 도서관 건립의 기본 설계 원리와 공간 구성 원칙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작은도서관의 내부 설계의 기본 요소만을 논의했다.

A형 거점 작은도서관으로서 전체 공간 50평 규모로 설계된 이 작은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및 독립 건물로 건립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기본 방향 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전체가 개가식으로 개방된 공간으로 구성된다. 별도의 칸막이는 설치하지 않지만 각 배치를 통해 서고(16평)와 이용자 공간(15평), 그리고 관리자 공간(7평)이 구분되어 있으며, 자료 검색과 인터넷 이용을 위한 전자서비스 공간 및 사랑방(12평)이 마련되어 있다. 기타 신문이나 잡지서가, 별도의 브라우징 코너를 벽면에 마련할 수 있다. 기본 서가는 복식 2연 7단서가(1.8×2.1×0.46)를 8개 배치하며, 열람용 책상은 4개이며 이 책상에 포함된 의자는 32개를 기본으로 했다. 전자공간은 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으로 구분 했는데, 인터넷 전용 책상 5개와 의자 5개로 설계되었다. 기타 관리자 공간은 이용자 봉사를 위한 안내 데스크 및 작업 공간을 포함한 것으로 관리용 책상 2개와 의자 2개를 포함 했다. 이 밖에 배색 등

인테리어 부분과, 조명 및 냉난방 등 시설 기본 방향 등은 일반적인 도서관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열거하지 않았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참고자료에 따르면, A형의 작은 도서관의 공간구성에 위생공간으로써 주방과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다음과 같이 배려하고 있었다. 이는 도서관의 역할이외에 것으로써 작은도서관을 지역주민의 사랑방역할까지도 확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다음 그림과 같이 45평의 기능에 10개의 주 공간을 배정함으로써, 평균 4.5평의 공간이 각 기능에 배정되며, 장서수를 5000권이상으로 할 경우에 해당 장서에 대한 관리 및 열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4)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45평형 도면 예시



B형 작은도서관은 전체 공간 30평내외의 규모로, 이 또한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공간에서 근접한 독립 건물로 건립되는 것을 권장하지만, 부득이 독립건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가옥의 리모델링을 통해 확보된 공간에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B형 작은도서관 또한 기본 방향 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전체가 개가식으로 개방된 공간으로 구성된다. 별도의 칸막이는 설치하지 않지만 각 배치를 통해 서고(10평)와 이용자 공간(9평), 또한 관리자 공간(4평)이 구분되어야 하며, 자료 검색과 인터넷 이용을 위한 전자서비스 공간(7평)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자료 검색공간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단순히 작은도서관을 열람의 공간을 강조하여 작은도서관이 수행하는 문화공간과 전자자원공간에 대한 작은도서관 기능이 생략된 형태로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있다.<sup>32)</sup> 기타 신문이나 잡지서가, 별도의 브라우징 코너를 벽면에 마련할 수 있다. 기본 서가는 복식 2연 7단서가(1.8×2.1×0.46)를 배치하되, 벽면 이용 시에는 단식 서가를 추가할 수 있게 한다. 열람용 책상은 4개를 기본으로 하되 이 책상에 포함된 의자는 20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전자공간은 인터넷 전용 책상 5개와 의자 5개로 한다. 기타 관리자 공간은 이용자 봉사를 위한 안내 데스크 및 작업 공간을 포함한 것으로 관리용 책상 2개와 의자 2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

32)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참고자료-건축도면.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총서1. 2006.

(그림 5)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30평형 도면 예시



## 2) 장서관리

작은도서관은 봉사대상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와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정보 자료를 광범위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협력망 및 자원이 공유를 통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제공하는 정보 자원은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성자료의 범위에는 임무 수행, 취미와 여가 선용, 교육과 자아개발, 지식함양 등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주체의 정보 자료들이 포함되도록 한다.

작은도서관은 지역 사회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기타 자료는 협력 또는 분담수서와 자료공유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처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제 영역을 선정하여 종합적인 관리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작은도서관은 인쇄

자료를 비롯하여 시청각자료, 마이크로자료, 디지털 자료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인터넷 정보기술을 활용한 접근전략도 다양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종합적인 장서관리(관리)정책을 수립하여 자료수집에서 보존까지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최근의 출판동향, 정보요구와 이용행태, 소장자료의 형태 서지적 및 내용적 가치, 장서관리 계획과의 적합성 등을 근거로 전체 장서 또는 주제별 장서를 평가하되, 정해진 연간 주기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자료의 내용가치와 이용통계를 조사, 분석하여 자료수집과 폐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활용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장서관리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가) 장서규모

작은도서관의 장서규모는 봉사대상자의 규모에 따라 증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이미 설립된 작은도서관 중 기본 장서의 소장 기본 방향에 미달한 도서관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장서를 조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되는 작은도서관은 유효봉사반경 내 기본 도서 권수를 선정하고 매년 지역주민 1인당 몇 권 이상의 장서를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세운다. 특히 폐기정책은 작은도서관 정책상 매년 증가하는 자료의 누적분을 제한된 서고에 보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나) 연속간행물

작은도서관은 최신 지식정보를 습득하는데 필요한 각종 연속간행물의 수집을 기본 몇 종 이상으로 하여 비중을 높이는 방안으로 하며, 디지털자원을 확보하여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다) 참고자료

작은도서관의 참고자료는 지역주민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수집하여 자료수의 10%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라) 비인쇄자료 또는 멀티미디어자료

작은도서관은 CD-ROM, Video, 음악자료, DVD, 온라인 자료, 인터넷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유형의 자료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유인력이 높은 자료이기 때문에 홍보적 효과도 갖고 있다.

#### 마) 폐기 기본 방향

작은도서관은 3,000권과 5,000권을 기준으로 이 종수를 고집할 경우에, 신규서적이나 자료의 입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몇 권의 자료를 수집하기보다 매년 신규자료 구입을 위해 일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폐기와 작은도서관의 장서 수 규모로 구분하는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3,000권이라는 수치는 최근 5년 내에 발행된 자료이거나 혹은 5년 동안 입수한 자료의 종수라는 개념으로 폐기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 바) 관리시스템

작은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혹은 작은도서관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대차에 필요한 도서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은 반드시 국가 표준인 KORMARC의 기술규칙을 지원해야 하며, 특히 반납 창구의 다양화를 위해 실물 배달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4.2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협력 방안

최근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 3개년 동안 공적재원(로또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총 190여개의 작은도서관을 집중 시범 조성을 목표로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인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경향신문사, 삼성사회봉사단, 한겨레신문사와 함께 민간차원의 - 희망의 작은도서관- 설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과 관이 앞장서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공간리모델링
- ②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 장비, 물품, 가구 등 비품설치
- ③ 도서 / 비도서 등 자료콘텐츠 구입
- ④ 전산기기 및 시스템 설치 등 인테리어나 비품설치 등 외적인 지원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2년 8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수립에 따른 5개년 계획(2003~2007)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도서관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까지 모든 학교에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를 목표로 지금까지 3,784여 학교(2003년, 1,259개교, 2004년 1,260개교, 2005년 1,265개교)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있다.<sup>33)</sup>

그러나 교수-학습센터 기능을 수행하면서 독서, 정보, 문화, 레크레이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특화된 목표였지만, 기존의 학교도서관은 운영 체계나 조직, 시설, 자원 등이 열악한 상태였다.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초기에는 리모델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장서를 확충하는 등의 도서관 물적 기반요소를 갖추는 데에만 전력할 수밖에 없었으며, 운영 또한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도기적 기간이 지난 최근에 들어서는 투자된 시설과 자료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고자 사서교사를 확충한다거나 다양한 도서관 활용수업 모델을 개발한다는 등의 여러 방안이 제안,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공공도서관의 사서와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또는 학교도서관 담당 교과교사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협력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의 추진사업에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미비했으나, 이제부터는 공공도서관의 지원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시켜 주는 데 있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살펴보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간의 협력경험을 살려 작은도서관의 활성화가 공공도서관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3)교육인적자원부. 2005 학교도서관 대회. p.46.



#### 4.2.1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추진목적은 작은도서관의 지식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서를 통한 창의성, 전문성 함양 등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문화발전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작은도서관을 민·관 합동으로 활성화하는 사회문화운동으로 전개함에 있다.<sup>34)</sup>

〈표 16〉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내 용	활 성 화 방 안
1.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권기금을 활용한 집중적 시범사업 추진, 전국에 전파확산</li> <li>- 국립중앙도서관 구축 운영S/W, 원문 DB지원</li> <li>- 지자체와 작은도서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추진</li> <li>-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프로그램, 표준모델 및 운영매뉴얼 개발·보급</li> </ul>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체제 구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분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li> <li>-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한 공공도서관 대한 포상, 후원 등</li> <li>- 분관화 달성 시까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1:1 결연을 통한 운영 자문</li> <li>-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지원</li> </ul>
3. 작은도서관 운동에 민간 참여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및 인근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참여 유도</li> <li>- 도서관 및 독서관련 단체의 건립 참여 유도 예) ‘책읽는사회만들기운동본부’ 단체 등과 연계하여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와 같이 사회적 문화운동으로 추진</li> <li>- 기업 및 민간단체 등의 작은도서관 지원 사례 홍보 확산</li> </ul>
4. 작은도서관 운영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li> </ul>
5. 흥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랑의 작은도서관 만들기” 캠페인 전개</li> <li>- 지자체 등의 인식제고를 위한 정기적 세미나·워크숍 개최</li> <li>- 전문가 중심의 「작은도서관」 자문단 구성 운영</li> <li>- ‘작은도서관의 친구들’ 후원회 조직 및 활동으로 지자체·기업·독지가·일반시민의 후원 기회 제공</li> <li>- 인터넷 포털서비스(NAVER)를 통한 ‘작은도서관 운동’ 전개</li> </ul>

34)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활성화 추진계획. 도서관계, 제140호, 2006. pp.38-43.

위의 <표 16>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방안을 살펴보면 두 가지 핵심으로 구분된다.

첫째,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기존이든 새로 설립하는 작은도서관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도서관을 국·공립화 하겠다는 무모한 정책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의 전통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도서관문화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업 및 민간단체 등을 적극적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의 한 축으로 참여시켜 사회적 문화운동으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체제 구축에 있다.

(그림 6)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체제 구축·지원



작은도서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든 도서관이 서로 긴밀한 연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즉, 도서관은 규모(크기)와 상관없이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봉사거점으로 활용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의 큰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간과되고 있는 점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유기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체제 구축에만 집중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공공도서관이 소외된다면 지원과 협조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정책수립 시 공공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공공도서관이 방관자가 아닌 주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4.2.2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협력방안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도서관을 크기는 작더라도 일상 생활권 가까운 곳에 둬으로써 누구나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 가장 확보하기 어려운 많은 자료와 전문사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지원가능성 또는 지원여건은 부정적이다. 주어진 여건에서 작은도서관 발전이 곧 공공도서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서관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1) 지역별 작은도서관 현황 및 특성 파악

가장 먼저 지역 내의 작은도서관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해야한다. 정확히 파악된 현황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과 네트워크형성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공공도서관은 각각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도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이 작은도서관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존중하면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2)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공동협의회 구성 : 공감대 형성이 필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주어진 역할이 다름을 인지해야 한다. 그동안 세미나나 공청회에서 보여줬던 서로의 반목된 모습은 도서관발전의 걸림돌임에 틀림없다.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존재하는 도서관들이므로 서로간의 인식을 전환하고 공감대를 형

성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간의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교환 통로를 공식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해 나가야한다.

즉, 민·관 모두가 작은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공도서관의 전문적인 도서관 경영과 그동안 축적해 온 노하우와 작은도서관의 창조적 프로그램을 결합한다면 지역주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3) 상호대차, 자원공유시스템 구축

현재 공공도서관들의 작은도서관 대표적인 지원내용이 도서 및 자료지원이다. 이는 예산이나 인력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호협력이 가능한 분야이다. 즉, 현재 공공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상호대차와, 홈페이지 & 검색DB 등 전산화 시스템 공동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작은도서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DLS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나 공공도서관과의 호환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공도서관이 사용하고 있는 KOLAS의 간략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하여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홈페이지를 각각의 작은도서관과 함께 사용하여 유지보수나 관리의 비용과 수고를 덜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원격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한다.

### 4) 예산·인력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작은도서관이 가장 지원받고 싶은 분야는 운영비지원이다. 그렇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능한 지원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공공도서관은, 특히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도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평생교육의 업무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또한 2002년에 발표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2003~2007년)에 의해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작은도서관의 지원사업이 가중된다면 공공도서관의 인력조직, 예산으로는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각 시도별로 하나의 도서관을 선정하여(반드시 지역대표도서관일 필요는 없다) 그 도서관의 특성화 사업으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지원팀”을 구성하여 전력한다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모두 발전도모를 기대할 수 있다.

## 5) 작은도서관 특성에 맞는 자료제공

작은도서관의 가장 큰 성과는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설립되어 규모는 작지만 그 서비스의 질과 내용,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공공도서관의 영역에서 미처 다 채워주지 못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이 가지는 큰 장점인 것이다.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작은도서관들은 어린이들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책읽기나 자녀독서지도 방법, 학습지도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이 진정한 지역밀착형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계층과 주제의 다양화 및 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해결할 수 없는 지역주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① 건강정보도서관 : 건강에 대한 자료부터 데이터베이스 등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부나 지자체, 각종 단체가 발행하는 팸플릿이나 건강관련 강좌를 안내하고, 의료기관에서 발간하는 건강관련 자료집을 수집하여 정보를 제공

② 비즈니스도서관 : 취직이나 전직을 위한 이력서 작성법에서부터 면접전략 또는 창업을 위한 자료 및 정보제공하고,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를 수집, 제공

③ 예술도서관 : 음악회, 작품전시회 등 기타의 포스터, 팸플릿 등

④ 이주노동자,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 및 혼혈 2세를 위한 도서관

⑤ 노인도서관

⑥ 과학도서관 등으로 작은도서관의 주제영역이 넓어지고, 독창성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나라 도서관은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자료를 수집,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 6) 직원,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공유

작은도서관 담당자, 자원봉사자 또는 이용자교육을 공공도서관에서 지원해야 한다. 열정과 의지로 일군 작은도서관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 담당자를 위한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연수,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직원개발뿐 아니라 실무자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업무협력을 통해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 7) 공공도서관 평가항목에 작은도서관 지원실적을 반영

공공도서관 평가에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원 실적을 반영한다면 관의 특성상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예산을 지급한다거나, 포상을 준다면 더욱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 8) 공공도서관의 분관화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점진적으로 공공도서관의 분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은 일정수준이상의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지역분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지정제도<sup>35)</sup>를 시행하여 지역분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상호대차나 분담수집, 순회강좌, 지역행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분관건립에 따른 시설투자 등의 과도한 초기부담을 덜고 단기에 직영분관 수준의 지역 거점망을 확보하여 소규모 분관중심의 주민밀착형 공공도서관서비스체제로 전환하는 과도기 협력모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운영주체와 규모문제, 도서관 기능수행의 시설과 운영조건 등의 역량부족과 결정적으로 공공도서관내 지원체계가 미확립되어 있는 문제 등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분관화된 작은도서관 관계자(혹은 운영자)에 대한 신분보장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공공도서관 분관화는 오히려 도서관 발전에 저해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또한 보다 크고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분관은 감소되고, 작은도서관은 폐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sup>36)</sup>를 참조하여 자생적으로 발전을 이룩한 작은도서관의 성과가 열악한 공공도서관의 대안이 아님이 정책수행 시 전제되어야 한다.

### 4.3 작은도서관의 특성화 방안

작은도서관의 특성화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위치하는 지역에서 주민이 바라는 서비스와 시설, 자원을 바탕으로 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특화전략을 의미한다.

35)정현대. 전계논문. p.243.

36)엘스 토어하우게.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세미나 : 덴마크 도서관 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 2006. p.51.

### 4.3.1 특성화 전략

작은도서관의 특성화는 일반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전략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일치하나, 실제 특화결과는 해당 작은도서관이 비치한 장서에 대한 주제 및 형태적 특화를 의미한다. 작은도서관 장서구성에 있어 전문적인 수집이라 함은 작은도서관의 대상에 따라 소장 장서와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프로그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작은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특징적인 서비스의 유형과 시행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특성화를 위한 전략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은 구분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지역별 특성
- 주제별 특성
- 계층별 특성
- 혼합형 특성

즉, 작은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주제에 따라 차별화할 수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다. 끝으로 각 특성이 혼합된 형태로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특정 계층주민을 만족시키기 위한 작은도서관 특성화 전략으로써 혼합된 형태의 작은도서관 특성화 전략이 이루어질 수 있다.

#### 1) 지역별 특성화 전략

작은도서관은 80년대 말 관(官)주도의 ‘문고’활동이 부진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인 참여운동으로 문고를 설립하면서 문고라는 명칭 대신 ‘작은도서관’ 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후 1992년 종로도서관을 시초로 관에서도 ‘작은도서관’ 명칭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작은도서관은 자연발생적으로 지역에 기반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도서관계에서 문고에 발전의 뿌리를 두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계층의 주민을 고려하여 설립된 매크로 서비스(macro-service)기관이라면, 작은도서관은 동네 혹은 부락단위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대

상으로 설립된 마이크로 서비스(micro-service)모임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작은도서관은 행정단위로 읍면동 혹은 그 이하의 규모에서 운영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농촌과 도시 혹은 어촌과 산악지대로 프로그램 특화서비스를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동일 농촌지역 내에서도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에 접근이 용이한 곳과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으로 구분하는 등과 같이 세분화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다.

## 2) 주제별 특성화 전략

작은도서관에서 주제별 특성화 전략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도서관의 특성화 전략을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주제별 특성화 전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정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특정 기부자가 자신의 소장품과 소장자료를 기증함으로써 가능하다. 현재 일반 공공도서관에서 이러한 기증 없이 특정 주제에 대한 특화전략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주제별 특성화 전략은 해당 기관에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장서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이 분야에 대한 주제전문사서를 비치하고, 이용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일련의 운영적 절차를 의미한다.

## 3) 계층별 특성화 전략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정부기관에서 도서관은 정보복지적 혜택을 제공하는 창구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확대 정책은 문화소외지역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지식정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정보문화복지 전략이다. 작은도서관을 전국적으로 설립함으로써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를 달성하고, 특히 저소득층 및 문화소외지역에 마을 단위 작은도서관의 조성·제공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내 지역주민의 문화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계층의 개념은 어린이와 노인과 같은 연령별 계층을 비롯하여, 경제적 중산층과 빈곤층과 같은 사회적 계층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립을 비롯한 운영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 4) 혼합형 특성화 모델

작은도서관 이용자를 설정하는 것은 서비스를 비롯한 운영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그에 수반되는 정책과 실천적 방안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국



내 작은도서관은 위의 세 가지 방법으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작은도서관은 여러 관점이 포함된 복합적인 서비스대상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면, 서울지역(지역별)의 노인(계층별)을 주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혼합형 특성화 모델이 실제로 필요하다.

#### 4.3.2 특성화 모델

작은도서관 지원의 출발점은 수적으로 현저히 부족한 도서관의 역할을 보완,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작은 규모의 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문고를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 놓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작은도서관 설립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정식은 작은도서관 설립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자치단체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자세 미흡, 담당공무원들의 의지결여, 공공도서관에서의 지도, 지원하고자 하는 자세 미흡, 도서관이원화에서 오는 문제 등과 총체적인 제약에 따라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다<sup>37)</sup>. 또한 우리나라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하고, 작은도서관 설립에 대한 사업전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sup>38)</sup>

한편, 작은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이전에 2004년 이전부터 공공도서관을 비롯하여 단위 개별문고, 도서관인, 시민사회운동가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표준화된 운영과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해당 작은도서관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 맞추어진 정책을 수향하고 있었다. 이는 작은도서관이 갖는 장점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원·개발되어야 하는 특성화 정책이다. 이에 비해 일부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지와 자원을 가졌으나,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서비스 덕목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명시된 일련의 표준화된 절차와 방향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혹은 지역 대표 공공도서관의 지원과 지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에서 수행하는 최소한의 업무와 기능이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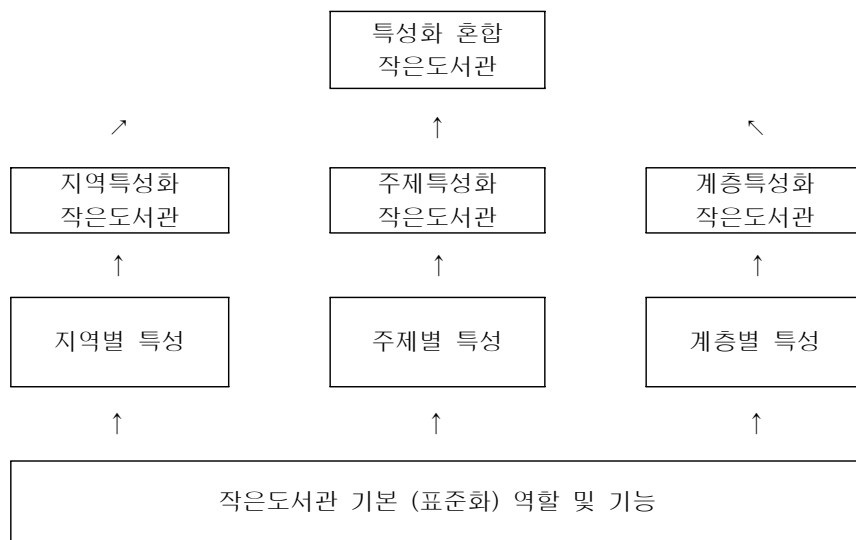
37)정정식.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서울시도서관연구회 연구회지. 제12집. p.184.

38)봉사분과위원회.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작은도서관 갖기 운동. 서울시도서관연구회 연구회지. p.26.

면으로는 작은도서관 형태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 장비나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작은도서관마다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고, 지역적 혹은 기능적 역할분담에 따라 정보화 지원내용이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지위와 기능적 역할에 따라 네트워크에서 수행해야 할 디지털서비스의 내용은 구분되어 설정되어야 한다. 자칫 획일화된 시설 및 장비지원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서비스의 형식과 제공자원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정보화의 의미는 반감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주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본적 기능과 역할을 완수하고, 지역적 혹은 계층적 외부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7) 지역적 혹은 계층적 외부 특성에 따른 특성화 전략



즉, 작은도서관의 경우, 사안별 특성화를 추진하여도 기본적인 작은도서관 기능을 반드시 수행할 경우에 역할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서비스 추진 방향은 최소 문화적 시설 및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1) 작은도서관 특성화 표준전략

작은도서관의 특성화를 위한 기본 전략은 특성화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 및 인력을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심도 있는 특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sup>39)</sup>

### 가) 시설

작은도서관의 시설을 파악 혹은 제안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앞의 장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독서진흥과 지역공동체 문화 운동의 수행, 문화 복지의 실현이라는 문화적 명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 시설로써 30평~50평내외의 공간에 서가를 비롯하여 열람석, 인터넷과 연결된 PC, 모임방 등이 필요하다. 특징적인 것인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무실과 서가, 모임방이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또한 시설에 대한 투자로써 리모델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작은도서관에 이의 집행과 설치를 일임하고 있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원래 목적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써, 우리나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내용과 그 실적을 분석결과에 바탕으로 시설을 운용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에 대해 지역주민은 기본적으로 크게 독서교육과 방과 후 학습, 주민 모임, 문화강좌를 수행하는 장소로써 인지하고 있다. 이를 기능별로 구분하면, 아동을 위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과 성인을 위한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은 가변형 벽체를 이용하여 공간을 구획하여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과 최소한의 열린 공간에서 서구나 책상 등과 같은 시설물을 이용하여 그 공간을 기능 구역(function zone)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공간을 구분하더라도,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① 공간: 최소한 두개 이상의 공간으로 구분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을 추천한다. 하나는 독서열람을 비롯한 전통적인 도서관 열람기능이 수행되는 공간이며, 하나는 독서 교육을 비롯한 일련의 문화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이다. 열람기능이 수행되는 공간에는 정기간행물이 함께 비치되는 형태가 이용자에게 바람직하며, 독서교육을 위한 자료와 일반 자료로 구별하여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독서교육을 위한

39)남영준 외. 전계논문.

자료는 학령전후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교육과 운영은 부모의 문화적 동선에 가까운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어린이 도서를 열람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부모 혹은 보호자도 함께 참여하던지 혹은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소모임에 참여하여 수시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동선이 확보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수시설은 다음과 같다.

② 자료실(필수공간) : 주민 친화형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서가 배열형 공간으로써, 정기간행물 자료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서가와 함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상과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 이 공간에는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사무공간도 함께 비치하여 자료 이용자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서비스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독서열람공간(필수공간) : 일련의 어린이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독서토론을 비롯하여 자유롭게 자료를 열람하고, 소리 내어 읽는 공간으로써 모자 혹은 부모-자녀 간 독서공간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능한 자료실과 인접하거나 열린 공간의 형태로 구조화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인터넷이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없을 경우에 이 공간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문화강좌공간(필수공간) : 작은도서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써, 최소 20명이상이 강의식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공간에는 컴퓨터 관련 교과목이 강의될 수 있다면, 최소한 10대 이상의 개인용 컴퓨터를 비치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동시에 2개 이상의 문화강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화강좌공간은 가변형 벽체로써 수강생 규모에 따라 파티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인터넷방(선택공간) : 이 공간은 작은도서관의 규모가 허락할 경우에 설치할 경우 매우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공간은 문화강좌 프로그램가운데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이론 및 실습 위주의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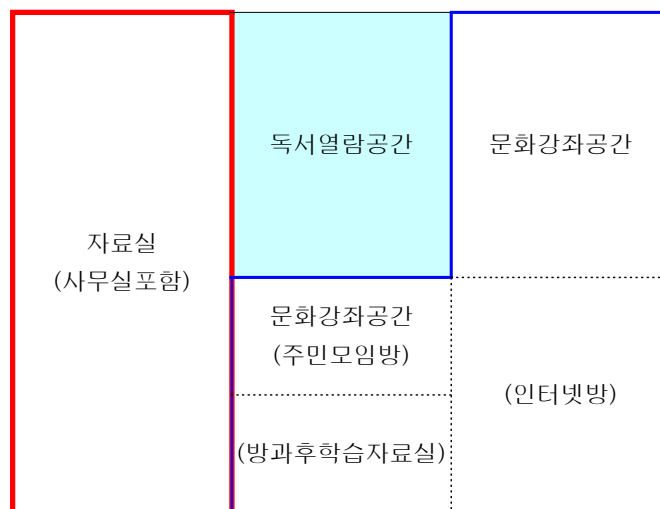
⑥ 방과 후 학습자료실(선택공간) : 이 공간은 방과 후 학생들에게 학교 교과목 관련 숙제나 특별 수업을 위한 공간으로써 일반 사설 독서실과 같이 학생 스스로 학

습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원봉사자 혹은 시설운영자에게 학습지도를 받는 교실 수업과 관련한 연장된 학습공간이다.

⑦ 주민모임방(선택공간) : 이 공간은 작은도서관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하여, 작은도서관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이 모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등과 같은 일련의 브레인스토밍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이는 일반 공공도서관이 관주도의 공간이라면,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공간으로써 최소한의 토의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일련의 지역커뮤니티를 주관하는 사무실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다음 (그림 8)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도식화한 예이다. 이 공간은 B형 작은도서관과 같이 30평 내외의 공간일 경우에도 자료실과 독서열람공간, 다른 모든 공간 3개 영역으로 물리적 구분보다 기능적 구분도 가능하다.

(그림 8)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 나) 문화 프로그램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는 문화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교육과 관련된 것이며, 교양을 비롯한 스포츠, 건강만이 실질적인 문화강좌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이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일련의 교육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7〉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주민 관심 문화프로그램

유 형	백 분 율	비 고
미 술	20.5	
외 국 어	18.8	
교 양	16.4	
스 포 츠	12.2	
음 악	7.0	
독서강좌	6.8	독서프로그램
어 린 이	6.4	
한 글	5.9	
컴 퓨 터	2.5	
건 강	2.3	
기 타	1.3	
계	100%	

이 조사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의 규모에서 이와 같이 모든 유형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문화프로그램 중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 참고로 미술가운데 서예에 대한 주민요구는 서울시 전역의 주민들이 요구하였으나 양천구와 용산구에서는 이에 대한 요구와 주민참여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화는 다른 모든 구에서는 요구와 주민참여도가 없었으나, 송파구와 양천구에서는 상당히 높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에 따라 특화된 문화프로그램이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라 할 수 있다. 또한 마포구에서는 전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지역주민 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대로 노원의 경우에는 오직 영화감상 프로그램만이 개설되어 주민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서울시라는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공공도서관이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강좌의 개설과목수와 참여도가 크게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별로 주민 참여도가 높은 문화프로그램 유형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이 군집화할 수 있다. 미술관련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외국어, 독서강좌에 대한 주민 요구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교양과 스포츠, 음악 관련 주민 참여도는 특정 지역 내에서 집중되어 백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미술은 서예와 한국화 등 전통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

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기본 프로그램은 독서교육과 서예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어의 경우, 강사의 초빙을 비롯하여 운영에 따른 예산 확보, 자원봉사자의 확보 등이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프로그램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실제 작은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문화프로그램 가운데 어린이를 위한 독서교육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주도하는 국가기관과 실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말 작은도서관에도 주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반드시 개설·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소외 계층의 문화복지 측면에서 노인층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써 최소한의 프로그램이 개설·운영되어야 한다.

## 다) 인력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인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도서관운영과 독서교육이라는 측면에서의 전문사서와 주민자치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자원봉사자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비상근 봉사인력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수 인력이나 이에 대한 강제규정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다. 전문사서의 경우, 이를 고용함에 따른 최소한의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자생적인 작은도서관의 경우에 사서채용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전문사서 없이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 의지와 지원에 비해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있으며, 단순한 문화프로그램운영이외에도 독서교육이라는 작은도서관의 핵심 기능은 전문사서의 계획에 따른 전문적인 지도와 안내가 절대적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시설 및 자료 구입 보조이외에 작은도서관에서 채용하는 사서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로는 아래와 같이 부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지원사업집행에 따른 필수조건과 그에 따른 예산 구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사서는 계약직 10호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며, 유급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월 50만원(2-3명)을 보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대략 33,000명 규모의 부천시 상동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시하는 25,000명이하의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자 대상을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도 작은도서관에서 요구하는 표준화된 기능과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사서1인과 유급지원인력 2명이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12월에 입법 예고된 “도서관에의 사서직원의 배치기준 (제4조제1항 관련)”에 따르면, ‘공립문고의 경우에는 사서직원 1인 이

상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사서 1명은 필수적인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단,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대민채널로 정의하여, 일부 공공도서관 분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최소한의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순회사서를 일정기간 혹은 매일 일정시간에 파견하여 인력을 배증 혹은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결방법은 우리나라 440여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서비스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완성되는 인력과 기초시설지원이 갖추어지면 작은도서관의 지도와 조정을 거쳐 분관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LSTA(Library Services & Technology Act)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국립중앙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대표도서관)는 기본사업지침에 근거해 주정부(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에 자원을 배분할 뿐이고, 도서관사업의 투자와 집행은 지역자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정부(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에서 주도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공공도서관은 해당 지역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독자적인 정보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지위와 예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작은도서관 지원국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순천시는 “도서관이 있어 행복한 삶, 배움이 있어 넉넉한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걸어서 10분 이내에 시민 누구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0년을 목표로 인구 3만 명당 1도서관, 인구 1만 명당 한 개의 작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역으로 환산하면, 하나의 지역공공도서관과 3개의 작은도서관이 지역문화사업을 위한 하나의 컨소시엄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증가는 단순히 운동적인 측면에서 수적인 증가 외에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이며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도 이와 같은 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은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발적인 자원봉사자에 의존적일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사서를 통한 관리가 힘들 수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작은도서관은 중앙의 거점도서관의 담당 사서를 통한 통합 관리를 통하여 관리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사서는 작은도서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업무가 추가되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도서관 관리 뿐 만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에 대한 홍보 및 동기유발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지역 작은도서관 및 문고의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홍보용 보도자료 작성법과 지방언론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협력의 주도적 위치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



관에서는 작은도서관 담당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4.3.3 개발전략<sup>40)</sup>

#### 1) 지역별 특성화 작은도서관 개발 전략

농어촌 지역일수록 정보화시설투자가 낮고 주민의 정보수요 또한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균등한 정보권리를 보장하고 심화된 지역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낙후 지역에 대한 정보화 투자에 특별한 대책이 요망된다. 이들 낙후지역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서비스는 대도시 지역에 비교하여 다양한 디지털자원을 동원할 수는 없더라도, 해당지역의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인 주제자원 구축을 집중화함으로써, 한정된 예산과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화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공공도서관에 의해 제공되는 디지털서비스의 혜택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 정보화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문고 및 독서활동의 중심공간으로서 해당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 하위조직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을 지원하는 웹 호스팅 서비스의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수요에 부응하여, 서비스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내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2~3년 이내에 새로운 방식과 기술을 응용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지속적 확장이 요망된다. 지역별 특화 전략은 대도시 지역의 인구밀집지역을 비롯하여, 저소득층 거주지역, 농어촌 지역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전략이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추진단계에 따르면, 2006년을 시범 및 기반구축단계로써 문화혜택이 시급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지역특화보다 배려의 성격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문화시설을 포함하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지역별 특성화를 고려한 작은도서관의 모형이다.

#### 가) 농어촌형 작은도서관

기본적인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며, 농업진흥청 등과 같이 농촌관련 국가전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이트와의 온라인 연결이외에 해당 기관에서 생산되는 물리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이와 같은 연계는 농촌관련전문도서관의 분관적 역할

---

40)남영준 외. 전개논문.

을 수행한다. 한편, 농촌지역의 노동력 연령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큰활자본 도서, 혹은 노년층 위주의 정보를 비치하도록 한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학교도서관과 연계하여 분교도서관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전략을 수립한다.

## 나) 도킹형 작은도서관

이는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형태로써 지역 특화 작은도서관 가운데 하나이다. 기본적인 작은도서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 공공도서관의 이동도서관이 정기적으로 해당 작은도서관에 일정기간 정차하는 동안 작은도서관의 부족한 자료와 인력을 이동도서관의 자료와 인력을 연계(도킹)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공공도서관 분관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연계에는 단순히 소장자료의 확대이외에 서비스 확대의 개념이며 문화프로그램의 확대, 정보서비스 인력의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2) 주제별 특성화 작은도서관 개발 전략

뉴욕 공공도서관은 본관과 지역별 5개의 대표도서관을 선정하고, 이 대표도서관 밑에 81개의 분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때 5개의 대표도서관은 주제별 도서관으로 운영되며, 미술 및 음악관련 전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에서 제안하는 주제별 특성화 전략은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에서 집중수서와 관련 서비스 제공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집중 수서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제별 특성화가 이루어진 작은도서관은 크게 기증자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특정 주제에 대한 무료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가) 특정주제 기증자료에 의한 특성화

작은도서관의 규모에서 주제별 특성화 자료를 확보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나, 특정자료를 외부기증자에 의해 기증받을 경우에 이를 주제별로 특화된 작은도서관으로 운용할 수 있다. 특정자원에 대한 주제특성화 작은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주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수집 혹은 발굴하는 것은 수집가의 개인적 의지와 역량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제별로 특성화된 작은도서관 설립에 대해 이를 관장하는 기관(예를 들면,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지원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정책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산적인 것보다 행정 혹은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소장 자료에 대한 보존이나 활용에 관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옛돌(古石)관련 작은도서관이 설립될 경우에 해당 자원에 대한 특화는 일차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지만, 이차적으로는 해당 자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증자가 원하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자료의 손상과 망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체계적인 보존(처리)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자료의 특성상 활용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하고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자료의 디지털화나 사진자료의 확보 등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표준화된 메타데이터의 부착과 해당 자료의 확보 등을 위해 행정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특정주제 무료자료의 확보에 따른 특성화

작은도서관은 예산 및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일반 공공도서관에 비해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고 특정주제로 특화된 작은도서관이 되기 위한 방법은 무료로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망라적 수집을 통해 특화된 주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써, 영화관련 포스터 주제 전문 작은도서관 개발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 개봉되는 대부분의 영화는 포스터나 혹은 유인물형태의 작은 소책자(팜플렛)를 발행하여 무료로 배포한다. 이러한 무료 자원을 체계적이며, 망라적으로 수집하면 특화된 전문 작은도서관을 개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망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서(혹은 자원봉사자)가 수작업으로 영화관련 상영정보를 입수하여, 해당 영화제작사나 배포사에 연락을 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자료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의 활용을 위해서는 해당 자료에 대한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작은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에 의존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이 특수자료를 대상으로 메타데이터를 부착하는 것은 일반 책자형 자료를 대상으로 편목하는 것에 비해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단위에서 편목작업을 수행하기보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본관으로써 지역 공공도서관 혹은 대표도서관이 해당 자료에 대해 편목작업을 지원해야 한다.

특정주제로 특화된 전문도서관이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나 인력지원이라는 실제적인 지원보다는 수집·확보된 자원에 대한 보존을 비롯하여 메타데이터의 부착과 같은 2차 가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은 주제 특성화 전략이 수립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유형을 예시한 것이다.

- 건강정보도서관 : 건강에 대한 자료부터 데이터베이스 등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부나 지자체, 각종 단체가 발행하는 팜플렛이나 건강관련 강좌를 안내하고, 의료 기관에서 발간하는 건강관련 자료집을 수집하여 정보를 제공
- 비즈니스도서관 : 취직이나 전직을 위한 이력서 작성법에서부터 면접전략 또는 창업을 위한 자료 및 정보제공하고,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를 수집, 제공
- 예술도서관 : 음악회, 작품전시회 등등 기타의 포스터, 팜플렛 등과 같이 특정문화 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해 발행된 무료 자료를 전략적으로 수집하여 특화한다.

## 5. 결론 및 제언

작은도서관은 명시적으로 어떤 수준이며, 어떤 법이나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라 사회운동 일환의 결과로 만들어진 문고의 다른 이름이다. 단 문고라는 개념의 변화보다 발전된 형태로써 법으로 규정된 공공도서관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문고보다 진화된 형태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시작한 작은도서관 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에서 지원하게 된 이유는 수적으로 현저히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보완,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작은도서관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문고이상의 문화·정보 서비스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공공도서관의 절대 부족에 따른 문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에 작은도서관 유형과 기능에 대해 조사하고, 국내법상 제시된 규정을 재해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가 공공도서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기본방향은 공공도서관으로 하여금 작은도서관과 협력하여 공공도서관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사와 목표를 기반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은 현재까지 명확한 개념정립이 되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현행법으로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나 기존의 문고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보다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확대

된 문고로 운영주체는 상관없지만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서, 인원 및 시설과 규모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독서 및 교육문화공간으로 지역 공공도서관과 긴밀한 지원 및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공공성을 갖는 소규모 도서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문고라는 명칭대신 작은도서관이라고 명명한 것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고라기보다는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2) 우리나라 문고는 평균면적이 약 24평이었으며, 한 문고당 평균 열람석수는 24석이었다. 또한 평균 보유 장서수는 3,287권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작은도서관을 문고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도서관의 분관역할을 기대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외형적 기준으로 A형은 공공도서관의 분관의 기대 수준으로 50평 이상 규모와 5000권이상의 기본장서를 비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B형은 기존의 마을문고의 발전모형으로 30평 이상의 규모와 평균 3,000권이상의 기본장서를 갖추는 것을 권고한다. 해당 공간에는 필수공간으로 자료실(서고)과 독서열람공간, 문화강좌공간을 가져야 하며, 선택공간으로 인터넷방과 방과 후 학습자료실, 주민모임방을 추천한다. C형의 작은도서관은 지역공공도서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형태로써 특정 기관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일련의 도서를 희망할 때 이의 관리는 자원봉사자와 해당 기관의 최소한의 관리로 이루어지며, 지역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료대출전문 작은도서관으로서 제공서비스를 대출/열람에 집중한다.

3)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어린이와 주부들을 대상으로 책읽기나 독서지도, 학습지도 등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이 진정한 지역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계층과 주제의 다양화 및 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특성화는 지역별 특성을 비롯하여 주제별 특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할 수 있다.

4) 공공도서관은 시설 및 인력, 자원, 공간 등 작은도서관이 확보하기 어려운 많은 자료와 전문사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작은도서관은 크기는 작더라도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협력방안으로 ① 지역별 작은도서관 현황 및 특성 파악 ② 공공도서관-작은도

서관 공동협의회 구성 ③ 상호대차, 자원공유시스템 구축 ④ 예산, 인력 지원 ⑤ 작은도서관 특성에 맞는 자료제공 ⑥ 직원, 이용자,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 공유 ⑦ 공공도서관 평가항목에 작은도서관 지원실적 반영 ⑧ 공공도서관 분관화 등이 있다.

5) 현재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는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장서확보 등 물적기반 시설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역량을 쏟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작은도서관 추진사업에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협력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지원가능성 또는 지원여건은 부정적이다. 특히, 작은도서관 활성화 중심의 도서관 정책진행이 한편으론 공공도서관을 위축시킬 것 같은 우려도 부정적인 여건에 한몫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공공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6)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점진적으로 공공도서관의 분관화를 추진하는 계획은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운영주체와 규모문제, 도서관 기능수행의 시설과 운영여건 등의 역량부족과 결정적으로 공공도서관내 지원체계가 미확립되어 있는 문제 등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분관화된 민간주체의 작은도서관 관계자(혹은 운영자)에 대한 신분보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공공도서관 분관화는 오히려 도서관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도서관의 양적인 성장을 위해 작은도서관 활성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보다 크고 광범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분관이 감소되고, 작은도서관은 폐쇄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조하여 자생적으로 발전을 이룩한 작은도서관의 성과가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해결을 위한 대안이 아님을 주지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은 작은도서관이 명실상부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 역할을 수행하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지역주민 등 모든 지역구성원들이 정보문화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와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win-win-win 전략의 핵심체가 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를 기초로 구체적인 공공도서관과 연계된 작은도서관 협력사례와 특성화 전략에 따른 실제적인 정책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내>

-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참고자료-건축도면.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총서 1. 2006.
- 김세훈 외.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6.
-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활성화 추진계획. 도서관계, 제140호, 2006.
- 김준. 작은도서관 개념에 대한 이해. 도서관계, 제140호. 2006.
- 김현. 분관(문고)운영 설치에 대한 소고. 서울시도서관연구회 연구회지. 제4집. 2005.
- 남영준 외. 작은도서관(문고포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연구보고서. 2006.
- 문화관광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문화관광부. 2006.
- 봉사분과위원회.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작은도서관 갖기 운동. 서울시도서관연구회 연구회지.
- 정정식.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서울시도서관연구회 연구회지. 제12집.
- 정현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1집, 2003.
- 토어하우게, 엘스.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세미나 : 덴마크 도서관 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 2006.
- 홍미선. 김해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web site>

- <http://www.yorklibraries.org/village/>
- <http://www.mlin.lib.ma.us/mbcl/regional/index.php>
- <http://www.colapublib.org/libs/westlake/>
- <http://www.dallylibrary.org>
- <http://www.bexley.gov.uk/service/lib-bexvillage.html>
- <http://www.localife.co.uk/kensingtonchelsea/libraries3.asp>
- <http://www.bibli.ens-cachan.fr>
- <http://www.oml.city.osaka.jp/english/index.html>
- <http://www.kodomo.go.jp>

여 백



#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서 작은도서관 활용 방안

❖ 제 출 자	청주기적의도서관	서 일 민
	인천화도진도서관	박 현 주
	부평기적의도서관	최 지 혜
	용인느티나무도서관	박 영 속
	부천문화재단	이 진 우

1. 서 론 .....	138
2.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사업의 분석 .....	141
3.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 확대에 대한 조망 .....	164
4. 결론 및 제안 .....	197
참 고 문 헌 .....	203

여 백

#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서 작은도서관 활용방안

제 출 자	청주기적의도서관	서 일 민
	인천화도진도서관	박 현 주
	부평기적의도서관	최 지 혜
	용인느티나무도서관	박 영 숙
	부천문화재단	이 진 우

## 목 차

### 1.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 2.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사업의 분석

- 2.1. 정부 주도의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 2.2. 지자체 주도의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사업 현황

### 3.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 확대에 대한 조망

- 3.1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개념
- 3.2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의 양태
- 3.3 도서관망과 협력시스템
- 3.4 분관시스템
- 3.5 해외 공공도서관 사례

### 4. 결론 및 제안

### 참 고 문 헌

# 1.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디서나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도서관을’, ‘전국 읍·면·동에 도서관 하나씩’, 지난 한 해 수많은 언론매체에 이런 제목을 단 기사가 실렸다. 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정부와 여러 지자체에서 잇달아 작은도서관 설립정책을 내놓고 기업과 민간단체에서도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에 나서고 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말은 관련 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체가 모호한 명칭이다. 그럼에도 굳이 도서관에 ‘작은’이라는 수식어를 다는 것이 이처럼 큰 반향을 얻게 된 데에는 기존 공공도서관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에서 비롯된 면이 없지 않다. 열악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제대로 체험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집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늘어나고 서비스가 달라지길 바라는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결과다.

2003년부터 시작된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는 사회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면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게 만들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수험생들이 시험공부를 하는 공간쯤으로 여겨져 온 우리 현실에서 도서관이 생활권에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의 커뮤니티를 이루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런 기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도 생겼다. 2002년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의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으로 시작된 부천시의 공립문고 사업은 도서관이 기존의 시설과 규모를 갖지 않고도 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이런 흐름은 작은도서관 열풍이라고 할 만큼 짧은 시간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 초 국립중앙도서관에 작은도서관진흥팀을 설치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작은도서관 190개관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전국 읍, 면, 동마다 1개관씩 3,500여 개관을 조성하여 인구 2만5천 명당 도서관 하나로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목표다. 2007년 4월 5일부터 발효 예정인 개정된 도서관법에서도 ‘문고’와 ‘어린이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넣음으로써 도서관의 규모를 떠나 하나의 틀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순천시에서는

‘도서관의 도시’를 슬로건으로 2010년까지 인구 1만 명당 1개의 작은도서관을 만든다는 목표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만에 작은도서관 25개소를 열었다.

지난 9월 국립중앙도서관이 실시한 독서 실태조사에서도 우리나라 1인당 연평균 독서량은 11.9권에 그치고 국민의 24%가 1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전자 미디어가 지식 정보의 전달매체로 비중이 커지는 이유도 있지만 아직까지 누구나 어디서나 책을 만날 수 있는 독서 인프라가 부족한 탓도 부정할 수 없다.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보격차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불능력을 따지지 않고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주 40시간 근무제, 주5일제 수업제 실시와 같은 사회적인 변화도 생활권에서 누릴 수 있는 도서관에 대한 수요를 크게 늘어나게 했다.

2005년 말 기준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이 514개관에 그치는 현실에서 기존의 공공도서관을 늘여가는 것만으로 그 수요를 채우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작은도서관은 정보 접근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도서관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30평에서 50평쯤 되는 공공시설을 사용하여 1만권 안팎의 장서로 작은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공공도서관 1개관을 짓는데 평균 75억의 예산이 드는 것에 견주면 매력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을 둘러싼 움직임이 일회적인 캠페인이나 도서관 숫자 늘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긴 안목으로 규모의 한계를 넘어서 통합된 도서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단계씩 정책을 세우고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작은도서관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60~70년대에 임대점을 중심으로 펼쳐진 마을문고운동은 한때 전국에 3만 여개에 달하는 마을문고가 설치되는 성과를 올리기까지 했다. 80년대 후반 노동도서관과 주민도서관 운동에 이어 90년대 중반부터는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의 사립문고들이 만들어졌고, 창원시에서는 1995년부터 지역운동 차원으로 마을도서관운동을 펼쳐 30개가 넘는 마을도서관을 만들고 지금까지 사회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독서시설의 몫을 나누어 맡고 있다.

그런데도 새삼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그동안의 성과가 전체 도서관계의 틀과 내용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정책이 제대로 뿌리내려 도서관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 경험을 진지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면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정을 비춰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현재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을 다시 점검해보고, 우리 현실에서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한지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현실의 장애요인들도 살펴봄으로써 그 우선과제와 단계적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 1.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본 연구는 현재 작은도서관 사업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을 둘러싸고 정부, 지자체, 민간 등 각 주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의 개요를 검토하면서 몇몇 사례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다음 외국의 선진 사례들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 확대의 가능성을 찾아볼 것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독서환경으로서 작은도서관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정보접근점의 확대에 구현될 수 있는 수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2006년 3월 국립중앙도서관에 작은도서관진흥팀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부 주도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살펴보았다. 2006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의 진행과정과 앞으로 정부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내세우고 있는 정책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지자체가 주도한 작은도서관 조성사례를 살펴보았다. 2002년부터 공립문고를 설치해 온 부천시의 작은도서관협의회, 1995년 무렵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온 창원 마을도서관, 2005년부터 작은도서관 설립 정책을 펼치고 있는 순천시, 그리고 아파트 문고를 시립도서관의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성시 등 몇 군데 사례를 직접 찾아가보았다.

부천시, 순천시, 안성시 등 각 지자체 시립도서관의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자료를 지원해주어 짧은 시간에 지역별 정책 방향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작은도서관 실무자들도 개관 과정이나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 등을 생생하게 들려주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다.

셋째,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례를 찾고자 국·내외 문헌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특히 서로 다른 규모의 도서관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몇몇 선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첫 걸음을 내딛는 단계에 짧은 기간 그 현황만을 살펴봄으로써 깊이 있는 연구가 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부산, 대전, 용인, 서울시 등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천, 창원, 순천, 안성 시 등 몇 군데 사례만 방문하여 다양한 사례를 담아내지는 못하였다. 특히 (재)책읽는사회, 삼성사회봉사단, 한겨레신문사가 함께 펼치고 있는 ‘희망의작은도서관’ 만들기 캠페인 등 민간 영역의 추진사례를 제외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례 및 분석에 한계를 지닌다.

또한 각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여건이라 충분한 사례와 자료를 검토하지 못한 아쉬움도 크다. 현재 작은도서관 정책과 관련해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사업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 사업 집행 초기단계라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를 담아 분석한 논문도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일부 관련 저널에 실린 글과 사업주체들이 내놓은 공문, 홍보물 등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 사례도 직접 현장을 찾아가거나 인터뷰를 하지 못하고 각국의 도서관 통계 및 연감, 논문, 저널 등 자료를 통해 현황을 가늠해보는 데 그쳤다.

이렇게 많은 한계를 가진 연구이지만 도서관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작은도서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상을 살펴보고 관련 기관 및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공론화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뜻을 갖기를 바란다. 앞으로 전문 연구자들의 체계적인 연구가 이어지고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2.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사업의 분석

### 2.1. 정부 주도의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몇 해 전부터 정부에서도 작은도서관 운동을 정책의제로 삼기 시작했다. 2002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2004년 ‘문화비전21: 창의한국’을 통해 1만개 작은도서관을 만

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sup>1)</sup> 실제로 2004년에는 복권기금 25억원을 활용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에 25개 작은도서관을 시범적으로 조성하였다.

정부가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에 나서게 된 배경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나는데 반해 공공도서관 증가율이 1인당 도서관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인식, 지식과 창의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열악한 독서환경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2006년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나선 해라고 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문화관광부 주요정책과제로 선정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작은도서관진흥팀을 신설하고 전국에 작은도서관 190개관을 집중 시범 조성한다는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작은도서관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부의 정책은 커다란 과급효과를 보이고 있다.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유희시설을 활용해 작은도서관 조성에 나서고 올 하반기에는 기업과 시민단체 언론이 함께 추진하는 <희망의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sup>2)</sup>이 펼쳐지는 등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 붐’이라고 할 만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해야 할 각 지역 공공도서관들은 아직까지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도서관들이 서비스 포인트를 늘여가기 위한 준비가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작은도서관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기초를 닦고 지역별 공공도서관 망을 발전시켜 전체 도서관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지, 단계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자 한다.

## 2.1.1 정부의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개요

2004년 문광부에서 추진한 작은도서관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국립중앙도서관에 작은도서관진흥팀이 설치되면서 적극적으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1)문화관광부. 2002.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3-2011), 2004.문화비전21 :창의한국

2)삼성문화재단, 책읽는사회모임. 한겨레신문사.2006.76쪽 선정 콘텐츠지원



확대하고 있다. 그 가운데 복권기금을 활용해 전국 각지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로 한 사업과 작은도서관 콘텐츠 지원을 위해 운영사례집을 발간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1.1.1 한 해 동안 전국 53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3개년 계획의 첫 해인 2006년 한 해 동안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이다. 추진방식은 지자체협력 사업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리모델링, 자료구입,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공간 및 조성비용의 30%를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는 총 50억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여 50개소 안팎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업을 집행하면서 기획예산처에서 일부 조정안을 내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형태로 조성비용의 70%만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지자체의 도비 또는 시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표 1〉 2006년 작은도서관 지원대상 사업 (2006. 8)

(단위 : 개소수/천원)

시도명	관수	지원액	시군구명	사업명	금 액
서울	1	96,110	구로구	구로구상호대차시스템사업	96,110
부산	2	113,400	사상구	주례3동 주민자치센터	43,400
			서구	서구 문화의집	70,000
대구	1	14,840	동구	방촌동 마을문고	14,840
인천	3	120,848	부평구	산곡4동 주민자치센터	49,000
			서구	가좌4동 주민자치센터가재울	22,848
			서구	물푸레도서관	49,000
광주	1	70,000	북구	동림동 작은도서관	70,000
대전	2	73,000	유성구	유성도서관 진잠분관	70,000
			중구	알짚마을 작은도서관	3,000
경기	9	670,000	용인시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	70,000
			광주시	오포 작은도서관	70,000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 건립	150,000
			동두천시	도심 지혜의 등대	70,000
			안성시	일죽 작은도서관	70,000
			양주시	봉암 작은도서관	70,000
			김포시	누리봄 문고	30,000

시도명	관수	지원액	시군구명	사업명	금 액
			부천시	상3동 작은도서관	70,000
			부천시	다원 작은도서관	70,000
강 원	4	203,000	강릉시	솔을가족	70,000
			고성군	거진복지도서관	14,000
			화천군	사내 작은도서관	35,000
			화천군	하남옹달샘 건립	84,000
충 북	1	70,000	청주시	봉명미니도서관	70,000
충 남	5	350,000	당진군	삼봉작은도서관	70,000
			당진군	송산작은도서관	70,000
			당진군	고대작은도서관	70,000
			당진군	중흥작은도서관	70,000
			천안시	중앙동 작은도서관	70,000
전 북	3	210,000	김제시	남포문고	70,000
			군산시	구암 작은도서관	70,000
			진안군	마이 작은도서관	70,000
전 남	11	786,000	목포시	산정동 작은도서관	70,000
			목포시	행복동 작은도서관	70,000
			목포시	주택공사 작은도서관	70,000
			목포시	동명동 작은도서관	70,000
			나주시	나주농어민문화체육센터	70,000
			광양시	금호동사무소	40,000
			강진군	대구면 자치센터	21,000
			순천시	순천시 상호대차시스템 사업	165,000
			순천시	벽산작은도서관	70,000
			순천시	승주 작은도서관	70,000
순천시	연동마을 작은도서관	70,000			
경 북	1	70,000	청도군	청도도서관	70,000
경 남	9	302,802	창원시	동읍자여마을도서관	25,725
			창원시	의창주민자치마을도서관	23,450
			창원시	안민마을도서관	32,725
			창원시	청솔마을도서관	34,125
			창원시	사파동성마을도서관	33,075
			창원시	반림마을도서관	30,625
			창원시	대방디지털마을도서관	33,425
			산청군	남부청소년도서관	70,000
거제시	대동다숲아파트 작은도서관	19,652			
계	53	3,150,000			3,150,000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은 5월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각 지자체를 통해 A형 리모델링 사업, B형 단독 건물 건립 사업, C형 부분지원(시설 및 장비 일부 지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총 179건의 신청을 받아 그 가운데 <표1>과 같이 53개 대상이 선정되었다. 부분지원을 선택하여 신청한 곳도 있었으나 선정 결과 발표 명단에는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2곳을 빼 나머지 51곳은 모두 리모델링 사업으로 명시되어 지원유형의 구분이 어떤 뜻을 가졌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즉, 선정에 앞서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2.1.1.2 작은도서관 콘텐츠 지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또한 작은도서관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참고자료와 4개 작은도서관의 사례를 담은 운영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이는 추진과정에서 참가 도서관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일정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발간 예정일을 두 달쯤 넘긴 연말에야 발간, 배포되었다. 총 6회에 걸쳐 작은도서관진흥팀에서 회의를 주관하였지만 편집의 틀 등 형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낼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민관협력의 훌륭한 사례로 꼽히는 부천시 작은도서관 사례가 지원금 교부 절차의 문제로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도 큰 아쉬움을 남겼다. 다양한 사례가 담긴 자료가 만들어지려면 지원금의 성격과 지원 절차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연구와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또한 작은도서관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참고자료와 4개 작은도서관의 사례를 담은 운영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운영사례집에 포함된 4개 주체는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사)어린이와 도서관, 순천기적의도서관, 순천시작은도서관으로 각각 민간에서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립문고, 민간 어린이문고들의 협의체인 사단법인, 기적의도서관,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순천시 사례 등 운영주체와 규모, 운영내용이 모두 달라 다양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한다는 취지에 딱 들어맞는 결과는 아니었다. 공간구성이나 문화활동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서비스를 기획하는 과정에 지침이 될 자료라고는 보기 어렵다. 리모델링 참고자료도 대부분을 민간 문고들의 시설현황과 도면을 수록하는 데 그쳐 리모델링 사업에 치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과 자원을 동원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내

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려면 전문 연구진들이 참여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자료관리 프로그램의 간략 포맷과 운용 매뉴얼의 배포 등의 기초자료 등도 중요한 콘텐츠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1.2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시한 사업 추진방향

작은도서관진흥팀에서 밝힌 사업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을 최우선하는 생활밀착형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3개년 동안 문화소외지역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190관을 집중 시범 조성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조성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둘째,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공도서관 보유 자원 등 공공재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폐 파출소 등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상호대차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운영사례집과 운영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연수 교육 등 콘텐츠를 지원한다. 넷째, 국내외 작은도서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현장성 높은 정책을 추진한다.<sup>3)</sup>

이는 전국 3천5백여 읍, 면, 동마다 지식정보서비스의 접점을 조성한다는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담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궁극적인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할 공공도서관의 참여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업추진 첫 해부터 53개관을 선정, 직접 지원하는 데 이어 2007년에는 70개관으로 조성 대상을 늘여갈 계획이다. 한 해에 몇 개관 조성이라는 장기적·체계적인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선정과 지원을 위한 작은도서관 현황과 약 항목에서 근거리 도서관을 전국에 제공하자는 취지라면 위치문제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 문화관광부에서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한 25개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도 이듬해에는 소요재정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어지지 못했다. 그 사례를 보아도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정책과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 2.1.3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입장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일이 지역마다 도서관 망을 만드는 과정이 되

3)성정희.2006.“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및 범국민운동 확산”

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공공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 사업의 뜻과 필요성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에게 다가가기 힘든 물리적 거리와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서서 서비스를 확대할 기회가 열린다고 여기는 사서들은 거의 없는 듯하다. 오히려 자체 도서관 운영만으로도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은 줄고 일거리는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이것을 사서 개개인의 인식의 부족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공공도서관 스스로 서비스 포인트를 넓혀가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이 얼마나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공공도서관들과 함께 취지를 나누고 수요를 파악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를 늘여가는 것이 결국은 좀 더 나은 서비스와 합리적인 업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는 이해와 신뢰가 없이는 작은도서관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먼저 풀어가야 할 과제는 공공도서관이 서비스 포인트를 늘여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일이다.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자원과 역량,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도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급하고도 어려운 과제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작은도서관 조성 정책을 공간을 만드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작은도서관 수만 늘어난다고 어디서나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고 제공하면서 도서관으로 제자리를 잡으려면 서비스를 담당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 뿌리내리게 만드는 것도 전문성이 필요한 몫이다.

사람을 키우고 배치하는 일에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든다. 짧은 시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기 쉽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와 합리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인력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도서관 발전에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이중적인 행정체계를 해소할 방안과 각 부처간 협력과 역할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동네마다 도서관을 만들자는 데에는 누구도 다른 뜻을 갖지 않지만, 그 많은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나면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 인력배치문제의 대안을 찾는 것이야 말로 도서관정책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위탁경영, 업무 아웃소싱 등의 도서관 업무환경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 등 법적·제도적 장애안에서도 균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대안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지금 다른 도서관 선진국에서는 자원봉사자에 의해서만 도서관을 운영하려는 추세는 사라지고 있다<sup>4)</sup>. 또한 영국이나 독일 등의 예에서도 도서관 서비스의 온라인 영역이 확대되고,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것과 함께 전문직의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지역 작은도서관을 문화사랑방만의 작은 공간이 아닌 규모의 한계를 넘은 큰 도서관으로 모든 지역민에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작은’ 도서관을 ‘큰’ 도서관으로 만드는 방안은 지역단위 도서관 서비스망 구축이라는 수단으로 충분하다<sup>5)</sup>.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이라도 큰 정보자료에 접근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 2.1.4 민간 작은도서관의 입장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에서 제작, 배포한 작은도서관 홍보 동영상에서도 작은도서관은 지역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면서 문화강좌, 자원활동 등으로 공동체 문화,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도서관에 붙여진 또 한 가지 수식어는 ‘책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다. 도서관이 책만 빌리고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문화공동체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사회적으로 도서관 발전에 많은 자원이 모아지도록 뒷받침하는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서관문화가 발전되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 자칫 도서관으로서 정체성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실 예로 10년쯤 앞서 작은도서관 운동을 펼쳐온 창원시의 여러 마을도서관들이 사회교육센터로 명칭부터 주요 기능까지 도서관 본래의 몫에서 벗어나게 된 사례가 있다.

또한 지난 몇 해 동안 풍부한 자원봉사 인력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민간의 작은도서관운동 사례들은 실제로 전문 사서가 없이도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다는 생

4) Jens Thorhauge, 2006. "The Library System in Denma"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구축방안 국제세미나.2006.8.25.서울 :국립중앙도서관

5)이용훈, 2006.,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행복한 만남". 도서관계, 2006(5)

각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이어진 민간의 도서관운동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전체 도서관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 한계를 되풀이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시대에 도서관을 토론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것 역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서관으로서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면서도 변화하는 도서관에 대한 기대를 담아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작은도서관에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 2.1.5 검토결과 및 과제

지금 작은도서관진흥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현재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은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로 자리 잡기 위한 방향을 담아내고 있는가. 그 추진방향과 과정을 다시 살펴본 결과 몇 가지 과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 2.1.5.1 추진방향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정책의 기본방향에는 작은도서관의 주요 기능을 ‘생활 근거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서비스 포인트로서 자료이용, 독서지도,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동화구연, 독서토론회 등 동아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동네 문화사랑방’이라고 규정하였다. 작은도서관을 둘러싼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려는 뜻이 보이지만, 현재 도서관 관련법과 제도에서 어떤 틀을 갖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다. ‘지역공공도서관의 분관, 서비스 포인트’라고 자리매김하였지만, 사업 추진내용에서 지역의 분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2006년 한 해 동안 지원할 대상의 선정기준으로 조성장소 제공 및 조성비용의 일부(30%)를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조건만 내세웠을 뿐이다. 향후 운영비도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당장 올해 안에 30%의 비용을 부담할 예산을 서둘러 확보하는 데 그쳤을 뿐, 앞으로 꾸준히 운영비를 지원할 예산까지 확보한 곳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2.1.5.2 추진과정

정부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정하고, 전국 지자체와 공공도서관을 통해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치고 지원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자를 비롯해 공공도서관 측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준비할 시간을 갖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 한정된 예산이 줄어들고 일거리는 늘어날 거라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6)</sup>

이런 현상은 그동안 민간이 주도해 온 작은도서관을 앞으로도 공공도서관과 다른 영역으로 구분지어 지역 내 도서관들 사이에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실제로 올해 지원 대상을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작은도서관 조성 후 ‘000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조건을 명시하였다. 그에 맞춰 작은도서관들이 따로 사용할 로고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자칫 작은도서관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민간과 공공 사이의 신뢰를 다지고 지역별 도서관 망을 만들어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디서나 누구나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공도서관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끼리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지역별 공공도서관 망이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기대와 요구가 크다고 해서 서두르다 보면 끝내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해마다 작은도서관의 수를 늘리고 사업 자체의 성과를 높이는 데 앞서, 긴 안목으로 작은도서관이 결국은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는 틀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뚜렷한 방향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1.5.3 추진내용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사업의 내용은 공공재원을 활용한 시범 사례를 만들어 지자체 및 민간에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진흥거점으로 활용하고 향후 지자체 및 메세나 기업,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목적<sup>7)</sup>으로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한 직접 조성과 이를 위한 홍보 및 콘텐츠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추진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선택과 집중’에 의한 모델이 조성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그 모델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

6)2006. 10. 30. 서울지역 작은도서관 활성화 연찬회에 참가한 공공도서관 사서 5인 면담

7)<06년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지자체 지원계획> 2006. 국립중앙도서관. 전국 지자체 배포 공문



는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행정체계의 이원화나 공무원정원제로 인한 현실적인 인력충원의 어려움은 개별 도서관이나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책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현실적인 벽을 넘어서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관계 부처나 기관들과 꾸준한 논의를 통해 법적,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가는 일일 것이다.

## 2.2. 지자체 주도의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사업 현황

작은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을 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이나 조성 사업의 대상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멀게만 느껴졌던 도서관을 생활권역에 조성함으로써 누구나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하게 한다는 매력적인 접근은 시민단체와 언론 등의 호응을 불러일으키며 2003년의 “기적의 도서관”에 이은 또 하나의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 2.2.1 부천시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사례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립문고에서 지자체 주도의 공립문고 영역까지 확산시킨 대표적 사례인 부천시는 200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2년부터 공립문고의 형식으로 작은도서관을 복지관 및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건물에 설립하였다. 특히 부천시는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에서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사업을 제안하고, 부천시립도서관이 함께 참여하면서 민·관협력으로 작은도서관을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표 2〉 부천시 작은도서관 설립 현황

(2006. 9월 현재)

설립시기	작은도서관수 <sup>8)</sup>	운영방식	설립 장소	시설 규모
2002년	11개소	비영리 법인 위탁	공공시설로 한정 (복지관 6개소, 주민자치센터 4개소, 체육문화센터 1개소)	대부분 30~40평

그러나 부천시 사례는 작은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의 분관으로 설립된 것은 아니며, 분관의 역할을 하는 별개의 거점들을 시립도서관과 연계하여 서비스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즉,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선진사례에서는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의 하나로 설립되어, 중앙관을 중심으로 자료의 순환<sup>9)</sup> 등 통합적인 서비스 운영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부천시는 시립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나 실제적인 운영은 위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즉, 자료의 구입에서부터 등록, 정리 등을 작은도서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할 뿐 아니라,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서비스도 시립도서관의 관외대출회원에 한해 작은도서관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대출받고 반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부분적인 운영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표 3> 부천시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2006. 9월 현재)

인력현황	자료현황	예산현황	네트워크
사서1인+ 보조인력	1개소당 4,000~8,000여권	운영비 전액 부천시에서 보조, 1개소당 약 3,900만원	시립도서관에서 상호대차서비스 시행, 부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 결성

또한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부천시는 작은도서관마다 사서를 필수적으로 채용하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부천시에서 보조하는 등 작은도서관이 규모는 작아도 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단, 사서의 신분 이 계약직이어서 안정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으나, 그래도 위탁기관에서 사서를 채용함에 따라 사서의 계속 근무가 보장되고, 시립도서관에서 장기 근무에 따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을 근무하는 사서도 상당수 있다.

부천시에서 작은도서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동안 부천시에서 활동해

8)부천시는 2006년 12월에 작은도서관 1개소가 추가로 개관하였으며, 07년 2월 1개소가 더 개관할 예정이다. 즉, 2007년 2월이 되면, 작은도서관이 13개소가 된다.

9)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운영되며, 중앙관에서의 자료의 통합 관리를 통해 이용이 되지 않는 도서는 중앙관에 소장하고 최신의 자료만을 작은도서관에 소장하도록 한다. 이러한 통합서비스 운영은 작은도서관이 시설·인력·장서의 한계 없이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설립 정책으로 세워지는 기반이 되고 있다.

10)이진우, “작은도서관의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2006. 12.

왔던 사립문고 운영자 등 민간의 역량을 도서관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높여내는 등 도서관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작은도서관이 늘어나면서 위탁기관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차이가 나타나는 등 민간위탁의 확대에 따른 문제도 한편에서 생겨나고 있다.

즉, 부천시의 사례는 민·관 협력에 바탕을 두고 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이 이루어짐으로 도서관으로서의 기본 조건 충족 및 시립도서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모범 사례이지만, 아직 공공도서관과의 완전한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2.2.2 창원시 마을도서관 운영 사례

창원시는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 대신 “마을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의 부천시 사례를 기점으로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이 확산되기 이전에 이미 작은도서관 조성을 시에서 추진하면서, 1960-70년대 문고 운동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임대점의 “마을문고”에서 명칭이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표 4〉 창원시 마을도서관 설립 현황

(2006. 9월 현재)

설립시기	작은도서관수	운영방식	설립 장소 <sup>11)</sup>
1995년	32개소	민간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탁	공공시설 및 아파트 (복지관 9개소, 동사무소 6개소, 민원센터 9개소, 아파트관리사무소 7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창원시는 1994년 10월에 결성된 “경남도서관 및 정보문화발전연구소”가 마을도서관 설립을 추진하던 중 마을도서관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는 계기를 맞아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도서관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마을도서관의 운영을 시립도서관과는 연계 없이 사회단체가 담당하면서, 마을도서관 운영은 점차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양재환은 “마을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보조금액이 부족하다 보니 사회교육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실비를 받아 실무자들의 인건비와 마을도서관 운영비로

11) 창원시 마을도서관의 시설 규모는 대부분 사회교육센터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평수를 산정하기가 어렵다.

보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교육분야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을도서관 운영 과정에 다수 참가하게 되고, 수탁단체로 참여하는 사회단체들이 그들 나름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해야할 입장에 있어 마을도서관의 명칭 자체가 사회교육센터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sup>12)</sup>.

결국 1998년 2월에 대부분의 마을도서관이 사회교육센터로 통일되고, 2005년 7월에 제정된 “창원시 평생학습조례”에 따라 마을도서관은 사회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하나로 규정되어 현재는 창원시 평생학습과에서 마을도서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sup>13)</sup>. 즉,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없이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은 수탁기관의 성격에 따라 변질되기 쉬우며, 이는 1980~90년대 노동도서관과 지역주민도서관 운동이 도서관을 사람을 조직하는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도서관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쇠락<sup>14)</sup>한 것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운영주체의 도서관정체성 확립실패와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없이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도서관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 창원시 마을도서관 운영 현황

(2006. 9월 현재)

인력현황	자료현황	예산현황 <sup>15)</sup>	네트워크
1명 또는 없음 (사서가 필수조건은 아님)	1개소당 3,000~10,000여권	운영비 일부 보조, 사회교육센터 3,720만원 마을도서관 2,160만원	시립도서관 및 민간단체 간에도 연계 없음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창원시는 마을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을 대부분 채용하고 있으나, 사서 채용을 필수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시립도서관이나 마을도서관간에도 연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양재한이 언급한 바와 같이 시에서 마을도서관 운영비의 일부만을 보조한 것도 강좌를 통한 수입 등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즉, 창원시 마을도서관은 다른 도시보다 약 10여년이나 앞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였으나, 시립도서관과의 연계 없이 사회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12)양재한,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 대구: 태일사. 2000.

13)이진우. 상계서.

14)이연옥. 한국공공도서관운동사. 서울:한국도서관협회, 2002. p33.

15)사회교육센터와 마을도서관의 운영비 차이는 사회교육센터의 경우 마을도서관 담당 인력 외에 사회교육센터의 인력 1인의 인건비가 더 추가되기 때문이다.

### 2.2.3 순천시 작은도서관 운영 사례

순천시는 앞서 부천시와 창원시가 민간에서부터 먼저 “작은도서관”이 제안되고 준비되기 시작한 것에 비해 시에서 작은도서관 사업을 주도한 사례이다. 즉, 순천시는 2003년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킨 “기적의 도서관” 제1호 설립지역으로서, “기적의 도서관” 유치 시 보여준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당해 9월 평생 학습도시로 선정되는 계기를 맞아 2004년부터 “주민에게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만들기”사업을 시작하였다<sup>16)</sup>.

〈표 6〉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립 현황

(2006. 9월 현재)

설립시기	작은도서관수	운영방식	설립 장소	시설 규모
2004년	24개소	민간자체 운영 유도	공공시설, 아파트, 기타 (주민자치센터 5개소, 아파트 공용공간 7개소, 마을회관 5개소, 기타 시설 8개소)	10~50여평 (대부분 20여평)

〈표 7〉 순천시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2006. 9월 현재)

인력현황	자료현황	예산현황	네트워크
1명 또는 무 (사서 0%)	1개소당 1,000~4,000여권	운영비 일부, 1개소당 월 30~50만원 보조	시립도서관에서 순회문고 및 종사자 교육 운영

그러나 부천시와 창원시가 “작은도서관”을 새로 설립한 데 반해, 순천시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500세대 이상 아파트 문고 및 공립문고 중 자체 운영 및 자원봉사 운영이 가능한 곳과 공공시설 중 특색 있는 시설 등을 작은도서관으로 선정하였다<sup>17)</sup>. 따라서 선정 기준에서 볼 수 있듯이 순천시는 작은도서관 설립 기획 단계부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체 운영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작은도서관 설립 초기에만 시설 리모델링 및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할 뿐<sup>18)</sup>, 이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거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2006

16)이진우. 상계서. p31.

17)순천시. 시정백서 2005.

18)순천시는 작은도서관으로 선정된 문고에 대해 시설 리모델링만 지원하거나 도서구입비만 지원하는

년 4월부터 월 30~50만원의 담당인력 활동비와 월 1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급되었으며, 도서는 매년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북스타트 운동”이나 “책 한 권 하나의 순천”에 해당되는 행사용 도서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시립도서관과의 연계도 순천시의 경우 순천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모두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사업소)내 평생학습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작은도서관 업무는 시립도서관과는 별도로 평생학습과 내 도서관지원계에서 담당하고<sup>19)</sup>, 시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순회문고 시범운영 및 종사자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sup>20)</sup>. 즉, 순천시는 작은도서관 사업을 시에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드문 사례이나, 시립도서관과의 연계 없이 자율적인 운영에 도서관을 맡김으로써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지닌 사례라 할 수 있다.

#### 2.2.4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사례

안성시는 앞선 세 도시의 사례와 또 다른 방식으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는 도시로서, 작은도서관을 시립도서관의 분관으로 운영하는 가장 발전적인 방향을 갖춘 도시이기도 하다.

안성시에서 작은도서관이 분관으로 운영되기까지는 1998년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문고 설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문고들이 자원봉사로 운영되었으나 2001년 폐관되는 문고가 생겨나자 기존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7월부터 지원 대상이었던 2개 문고를 포함하여 4개 문고를 직영으로 전환하였다<sup>21)</sup>.

따라서 안성시의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공용공간에 설립되어 있고, 규모도 크지 않지만 입구에 안성시립도서관의 분관임을 표시하는 팻말이 부착되어 있고, 자료의 구입도 시립도서관에서 일괄 구입하여 등록·라벨링 등의 정리 작업을 거친 후 작은도서관에 배포하고 있다. 이는 부천시나 창원시가 자료의 구입을 개별 도서관에서 담당하는 것과 달리 통합적인 장서 관리 및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

---

등 지원의 규모와 형태가 각기 다르다.

19)이진우, 상계서. p49.

20)이재희.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모델 국내사례”,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국제세미나 자료집, 2006. 8. 25.

21)류병장, 공정자, 백진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안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제43회 전국도서관대회 자료집. 2005.

〈그림 3〉 안성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3~2011)에 의한  
공공도서관 기반시설 확충도



〈표 8〉 안성시 작은도서관 설립 현황

(2006. 9월 현재)

설립시기	작은도서관수	운영방식	설립 장소	시설 규모
2002년	4개소	직영	아파트 공용공간	10~50여평

〈표 9〉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2006. 9월 현재)

인력현황	자료현황	예산현황	네트워크
1명~2명 (사서 0%)	1개소당 5,000~9,000여권	시립도서관 예산에 포함	시립도서관의 분관으로 직영

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발전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성시의 사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작은도서관 4개소의 상근 직원이 모두 시간제 계약직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무원총 정원제나 총액인건비 등의 조항에 묶여 사서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부천시와 같이 민간위탁의 형식이 아닌 직영 운영이므로 계약직 직원의 지속적인 고용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안성시 작은도서관 중 10여 평 규모의 2개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13:00-18:00까지 오후에만 개관하여 1명의 직원이 운영을 담당하며, 50여 평 규모의 2개소는 10:00-19:00까지 개관하며 2명의 직원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즉 안성시의 사례는 작은도서관을 시립도서관의 분관으로 운영하는 발전적인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방식이라 할 수 있으나,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실제 운영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2.2.5 광주시 북구 자치도서관 운영 사례

광주 북구의 작은도서관은 일곡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하여 권역별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2001년부터 계획하여 2002년 1호 작은도서관인 <동림 자치도서관> 개설을 시작으로 현재 25개 동에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규모가 15평~30 평 정도에 장서량 또한 140 여권에서 6500 여권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작은도서관 모두 대출서비스를 실시하며, 또한 대출·반납이 작은도서관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다.

〈표 10〉 광주 북구 자치도서관 설립 현황

(2006. 9월 현재)

설립시기	작은도서관수	운영방식	설립 장소	시설 규모
2002년~2005년	25	직영	주민자치센터	10~30여평

이 사업은 2001-2005년 <거점도서관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북구청에서 예산, 일곡 거점도서관에서 자료관리 프로그램 등 도서관 서비스 부분,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자와 홍보 등을 담당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즉 지자체도서관 1주년을 맞이하여 공공도서관의 확대를 위한 계획에서 출발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도서관 운영규정 제정 등 법적 환경을 갖추고 일곡도서관과 구청 주민자치과, 동사무소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로 ‘자치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가 지역 주민의 정보문화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일곡 거점도서관에서 도서관리 프로그램 보급과 홈페이지, 도서대출, 작은도서관 근무 공익요원 및 차량 확보, 독서활동 지원과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담당하고, 주민자치센터는 대출카운터 혹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 역할을 하게 되며 지자체는 작은도서관 선정과 도서구입비, 비품 등 관련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25개 자치도서관 중에서 13개 독서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장서량이 아직 극히 부족하여 책 기증 등의 행사를 하기도 한다.

〈표 11〉 광주 북구 자치도서관 운영 현황

(2006. 9월 현재)

인력	자료 수	예산	네트워크
자원봉사, 공익	140~6500 (관당 차이)	구청 주민자치과	구립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 직영

또한 전담직원 부재와 자원봉사자 전문성 부족, 운영시간, 공간협소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특이한 점은 아파트 단지 등 상가에 설치된 개인운영 도서 대여점 중 희망업소에 한하여 거점도서관과 연결, 회원제 업소로 지정하여 대출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립, 사립 등 다양한 문고의 레벨에서 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기에 따라서는 방법이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 2.2.6 분석결과 및 시사점

부천시와 창원시, 순천시, 안성시, 광주 북구 등의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2.6.1 설립 방식

첫째, 작은도서관의 설립을 부천시와 창원시는 민간단체에서, 순천시와 안성시, 그리고 광주 북구는 지자체에서 먼저 제안하고 추진한 사례이다. 민간단체에서 먼저 작은도서관 설립을 제안한 2개 도시 중 부천시는 기획 단계부터 시립도서관이 함께 참여하여 작은도서관 사업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는데 반해, 창원시는 시립도서관과의 연계가 없이 민간주도로 추진되면서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위협 받고 있다.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 설립을 주도한 순천시와 안성시의 경우에는 기존 사립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시작한 것은 동일하나 순천시는 민간 자율운영을 기조로, 안성시는 시립도서관의 분관으로 직영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안성

시가 작은도서관 사업의 기획 및 담당을 시립도서관이 하는 반면, 순천시는 평생학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과는 연관된다고 보인다. 거기에 비해 광주북구청은 구립 일곡도서관과 동사무소가 함께 추진주체가 되어 주민자치센터내에 작은도서관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둘째, 특히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작은도서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천시의 사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도서관 사업에 함께 하면서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높여내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많은 민간역량을 어떻게 공공도서관의 범주 내에 포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그러나 민간단체가 주도한 창원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없이 추진되는 작은도서관은 수탁단체의 성격에 따라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문화센터나 사회교육센터로 변질 될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작은도서관을 시립도서관의 분관으로 운영하는 안성시와 광주북구의 사례는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포인트이자 해당 도시의 도서관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발전적인 설립방식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보다 완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안성시와 광주 북구의 사례는 공공도서관 체제가 중심이 되어 작은도서관의 개념과 역할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례이다.

다섯째, 따라서 작은도서관 설립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점은 해당 도시의 공공도서관이 사업의 추진주체이자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며, 이를 기본 조건으로 하여 공공도서관이 지역에서 필요한 도서관의 수와 규모, 위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2.2.6.2 시설 현황

첫째, 작은도서관의 시설 규모는 10여 평에서 110여 평까지 다양하지만, 대부분 50여 평 이내로 설립되고 있다. 그러나 부천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 설립되는 작은도서관이 110여 평에 이르는 등 향후 작은도서관은 보다 다양한 규모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은도서관이 설립된 지 5년여가 지난 부천시의 경우 지속적인 장서량의 확충으로 작은도서관 중 시설 규모의 협소함을 호소하는 곳이 늘어나는 것과는 연관되는데, 작은도서관이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공공도

서관 설립 정책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과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기본 조건이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작은도서관의 설립 장소 또한 공공시설에서부터 아파트 공용 공간, 마을회관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천시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시설에 설립하는 것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창원시는 아파트 공용공간에, 그리고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순천시에는 아파트 뿐 아니라 마을회관이나 기타 공간 등을 활용해야할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작은도서관의 설립 장소는 도시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도서관망 구축의 선진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가 될 경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면 장소 선정의 기본적 그물망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 2.2.6.3 인력 현황

첫째, 현재 사서의 채용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는 곳은 4개 도시 중 부천시 밖에 없다. 안산시에는 2007년부터 시행예정이다. 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도서관으로서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측면보다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문화사랑방 정도로 바라보는데 일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서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인식의 부족도 원인 중 하나이며, 공무원총정원제와 총액인건비 등의 문제도 사서 채용의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즉, 부천시는 작은도서관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면서 사서의 지속적인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안성시는 현실적인 대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운영에 있어서 사서직을 별정직으로 하여 총정원제에 묶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채용은 필수적임을 사회적으로 인식시켜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인 공공도서관의 설립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과 더불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제도적인 해결책 모색,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사서직을 별정직으로 하여 총정원제에 묶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 모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력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소규모 서비스 포인트로서의 기능을 하게 한다면, 거점공공도서관에 서비스 포인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담사서를 두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2.2.6.4 예산 및 자료 현황

첫째, 작은도서관의 연간 운영 예산이 부천시와 안성시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즉, 부천시는 사서인건비 및 운영비, 자료구입비, 제세공과금 등 작은도서관 운영비 전액이 시에서 보조되고, 안성시는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시립 도서관 예산에 작은도서관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광주 북구의 경우는 주민자치과에서 작은도서관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운영하는 반면, 창원시는 운영비 일부, 순천시는 월 30~50만원의 보조금만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부족한 예산을 사회교육센터의 강좌 수입 중 일부로 충당하면서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순천시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등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일부에서는 해당 아파트 주민 외의 대출을 제한하는 사례도 나타나는 등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공공성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둘째, 자료 구입도 예산 운영 현황에 따라 1개소당 1,000여권에서 10,000여권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2006년의 경우 부천시는 1개소당 연간 1,000만원씩의 자료구입비를 책정하여 4,000~8,000여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데 반해, 창원시는 1개소당 연간 480만원의 자료구입비를 책정하였으며, 순천시는 초기 설립 시에만 약 1,000만 원가량의 자료구입비를 책정하고, 이후에는 행사용 도서만을 지급하여 1개소당 1,000~4,000여권의 자료만을 소장하고 있다.

셋째, 자료의 구입 및 등록, 정리 작업 등이 안성시와 광주 북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작은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효율적인 장서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자료의 구입을 인력도 부족한 작은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장서 구성과 선정 기준이 제각각일 뿐 아니라 업무의 과중에 의한 서비스 질 저하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료의 구입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의 중앙관에서 통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 2.2.6.5 이용 및 서비스 현황

첫째, 작은도서관의 주 이용자는 주로 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용하는 가족들로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의 이용이 가능하며,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 장소로도 활용되어지는 등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이용형태 및 서비스 경향을 가진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도서관으로서의 기본 성격과 역할보다 우선하여 강조함으로써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을 망각하게 하는 문제도 남

고 있다. 즉,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인식하고 접근하기보다 주민들의 컴퓨터나 문화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성격의 특별한 시설로 인식되어지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셋째, 작은도서관의 개관시간은 지역마다 동네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 2.2.6.6 네트워크 현황

부천, 순천, 안성, 광주 북구, 창원은 각각 다른 수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작은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될 수 있는 요건이 공공도서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라면 네트워크는 시스템과 서비스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첫째, 부천시와 안성시와 광주 북구는 시립도서관과의 밀접한 연계위에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부천시의 경우에는 공공도서관과는 별도의 시설로 설립 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광주 북구는 지자체와 시립도서관과 주민자치센터가 합동추진체가 되어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안성시는 대출문고에서 자원봉사체제 운영을 거쳐 안성시립도서관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시립도서관의 직영체제로 작은도서관별 운영위원회도 조직되었다.

둘째, 작은도서관이 큰 도서관으로 기능하기 위한 기본 서비스인 상호대차서비스도 부천시와 안성시를 제외하고는 진행되는 곳이 없다. 부천시의 상호대차서비스는 시립도서관의 대출회원에 한해 시립도서관의 자료를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이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부천시와 같이 시립도서관과의 연계 뿐 아니라 “부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를 통한 민간역량의 결집과 참여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활발한 활동을 통해 도서관의 역할을 높일 뿐 아니라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작은도서관을 통한 민간역량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사업은 지역단위 공공도서관의 분관체제로 설립 및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더불어 작은도서관에 대한 민간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함께 포용해냄으로서 작은도서관 사업이 그간 도서관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의 극복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높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섯째, 분관체제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 뿐 아니라 그 외 민간 작은도서관들과의 연계도 보다 확대하여 순회문고나 더 나아가 부분적인 상호대차서비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단위 도서관과 문고를 공공도서관 중심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두 포함하여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거점도서관에 대한 인력과 예산지원이 보다 필요할 것이다.

### 3.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 확대에 대한 조망

#### 3.1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개념

우리는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어쩌면 공공도서관을 ‘도서관’이라기보다는 ‘평생교육’ 및 ‘문화’시설로 보는 사회의 시각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해도, ‘평생교육’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도서관’이라는 핵심을 흐리게 해서 안 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확대서비스 접점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좀더 명백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근래 영국에서 나온 지식정보사회의 요구에 응하는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몇 가지 자료<sup>22)</sup>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Peoples’s Network』 project<sup>23)</sup>를 통해서 영국은 2002년 말까지 모든 공공도서관을 정보네트워크로 묶어 정부의 정보화 프로그램을 위해 설치된 영국 Online Center로서 기능하게 하며, 사서들에게 IT skill 훈련을 시키고, 도서관을 위한 콘텐츠 작업을 추진하였다. 또 2002년에 영국감사위원회 보고서인 『보다 나은 도서관 서비스의 구축(Building Better Library Service)』과 2004년 비영리단체인 Libri에서 나온 『책임을 지는 것은 누구인가?(Who’s in Charge?)』에서 <과거 10년간 공공도서관 이용자수, 대출책수의 감소와 국가 도서관 비용의 31% 증가>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여기서 납세자의 요구와 필요에 응

22) <시민의 네트워크(People’s Network)>, <보다 좋은 도서관 서비스의 구축(Building Better Library Services)>, <미래를 위한 기본적 생각-금후 10년의 도서관·학습·정보(Framework for the Future: Library, Learning and Information in the Next Decade)>, <책임을 지는 것은 누구(Who’s in Charge?)>; Tim Coates. Libri>: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3) 『Peoples’ Network』project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지만 전국적 계획으로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공공 접근을 제공했다.

하기 위한 행동계획으로 자료구입비가 3배 증액하고, 개관시간을 50% 연장할 것과 시설의 개보수 등을 이미 정해진 예산안에서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 가운데 영국정부는 <People's Network Project>가 끝난 단계에서 「장래를 향한 기본적 생각-금후 10년의 도서관·학습·정보(Framework for the Future-Library, Learning and Information in the Next Decade)」를 통해 영국정부의 공공도서관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여기서 도서관의 현대적 사명으로 ①점진적 발달<sup>24)</sup>, ②공공적 가치<sup>25)</sup>, ③시차성<sup>26)</sup>, ④ 국가 레벨의 계획으로 지역에 맞춘 운영<sup>27)</sup>을 들었다. 또한 4 가지 지표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3가지 주제의 영역<sup>28)</sup>을 서비스내용으로 설정했다. 즉 국가단위의 도서관법이 없는 영국에서 공공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을 세우고, 규모에 따른 서비스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이 해야 할 서비스를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말하자면 공공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결정의 프로세스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공공도서관의 발전<sup>29)</sup>은 1833년 뉴햄프셔 주 북동부의 Peterborough도서관<sup>30)</sup> 개관에서 시작한다.<sup>31)</sup> 미국공공도서관의 수와 규모는 상당부분 부호들의 자선기부<sup>32)</sup>에 의한 도움으로 19세기 후반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후에 대부분은 공공도서관으로 합병되었다. 도서관발달이 늦어졌던 30년 동안을 지나 1945년 이후로 미국은 공공도서관 설립과 지역사회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진전을 보

24)도서관은 독서·비정형학습·스스로 추진이라고 하는 독특하며 오랫동안 배양한 힘을 계속 축적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서비스는 핵심이 되는 전통적인 스킬에서 떠오르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25)도서관은 공공의 관여가 편익을 가져올 것 같은 영역 즉 성인의 리터러시 향상과 취학전 학습을 촉진시키는 데 중점적으로 몰두해야 한다.

26)도서관은 열려진, 차별이 없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문화를 축적해야 한다. 다른 공공부문과 민간 프로바이더의 활동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도서관은 독특한 힘을 발휘하여 다른 기술을 가진 다른 사람과 항상 협력해 갈 필요가 있다.

27)전국계획은 국가 레벨의 파트너와 재원을 끌어들이고 동시에 도서관 서비스가 다른 공공서비스와 주민 전반에게 있어서 파트너인 것을 확실하게 하도록 책정되어야 한다. 국가 레벨의 제안은 지역의 요구와 필요, 특화 그리고 우선도에 맞추어 낼 수 있는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28)독서와 비정형학습의 촉진, 디지털 스킬과 전자정부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사회참가를 촉진시키는 정책.

29)Michael Gorman. 2006.“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국제세미나. 국립중앙도서관

30)동 도서관은 이용료가 없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도서관을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지역사회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도서관으로 공개와 공비의 개념을 가진 공공도서관

31)그 이전에도 협회 도서관들이 있었으나 그 도서관들은 협의회 회원, 일반 가입자 그리고 기고자들만 이용

32) John Jacob Astor와 그의 상속인, 두 사람의 백만장자 자선사업가, Lenox와 Tilden, 카네기 등

였다. 이 진전은 성장뿐만 아니라 중요한 특징을 보인다. 즉 초기에는 표준화의 과정을 통해 기준을 설정하려는 시도와 그 이후의 접근법은 공공도서관의 임무와 목적에 적합한 계획과 계획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집중하고 20세기의 마지막 10년간과 21세기 초기는 서비스 결과에 대한 접근법과 관련된 다수의 간행물<sup>33)</sup>들을 출간하였다.

즉 공공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성장의 시기에 표준화작업을 통해 기준설정을 시도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작은도서관 설립의 민간 열의에 뒤쳐진 채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준 설정을 위한 시도는 공공성 확보라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민간의 열의로 시작된 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 합병하고, 그 후 표준화 단계, 서비스 프로그램 단계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 보면서 ‘작은도서관의 개념설정이 충분히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설립에 집중한 작은도서관 정책은 다시금 진지하게 접근 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공공도서관에서의 표준화 경향은 지방 공공도서관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협력과 개입을 이끌어 내었다. 즉 표준화, 기준을 통해 시스템화하려는 정책은 독립성이 강한 행정체계 하에서도 정보자료의 사회적 집적소이며 또한 공공의 접근점인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을 통해 시행하였다. 주정부의 역할의 첫 단계는 표준화와 시스템화에 박차를 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 단계를 건너뛰지 않고, 시스템화를 위한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방안이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로서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지역에 대한 서비스목표는 ‘누구라도, 어디에 살고 있어도, 어떤 자료라도 이용할 수 있다’를 이루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 도서관이 이런 움직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의 지역도서관(분관), 더하여 이동도서관을 배치하여 지역중심관(중앙관)과 밀접하게 연결된 조직체(도서관 시스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sup>34)</sup>

동일행정구역 내에서 공공도서관이 대형도서관 몇 개로 각기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분관체제로 시스템화하여야 한다는 필요성<sup>35)</sup>은 많이 언급하지만 실제 분관으로서의 시스템화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sup>36)</sup> 이의 가장 큰

33)결과를 위한 계획: 공공도서관 전이과정'(Planning for results: a public library transformation process. Chicago: ALA, 1988. In 2 Parts(How to manual) 그리고 '결과를 위한 인력 배치: 효율적 작업의 지침'을 포함한다.

34)日本図書館協會. 2005. “図書館ハンドブック”第六版. 日本図書館協會.図書館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会.

35)이용남. 2004.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분관 운영체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이용남. 상계 논문



걸림돌이 행정체계의 2층 혹은 3층적 구조에 있다는 점과 따라서 행정체계 일원화의 당위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지만,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인하여 가능한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인적인 네트워크마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행정체계와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문제에 ‘작은도서관’이라는 또 하나의 층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합의와 중지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이다. 김세훈이 언급한 C 유형의 작은도서관<sup>37)</sup>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 안에 포함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 발전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작은도서관 정책에서 지원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영국·독일 등에서 보듯이 다른 층 구조안에서도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전 국민에게, 전 국토에 다다를 수 있는 지혜가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협약과 지원을 통해 네트워크 시대의 한 노드로 기능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것이다. 작은도서관이 ‘생활밀착형 도서관 섬’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표 12〉 유형별 협력 및 연계 수준

구 분	유형별 협력 및 연계수준
A형	건립, 리모델링 지원, 예산, 인력 지원, 교육지원, 정보화지원, 상호대차 협력
B형	리모델링 지원, 교육 지원, 예산 지원, 운영 컨설팅 (일정수준 이상시 정보화 지원, 상호대차 협력으로 확대)
C형	교육연수지원, 운영 컨설팅

출처 : 김세훈. 2006.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방향”.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국제세미나. 국립중앙도서관

덴마크의 경우에도 모든 유형의 도서관들 간에 증가하고 있는 협력과 네트워크가 두드러진다. 즉 도서관의 경향은 단일기관이 아니라 도서관시스템에서의 서비스-요소이다<sup>38)</sup> 이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가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때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 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레벨의 협약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정책적으로 또한 전략적으로 수행해야할 필요가 제기된다 할 것이다.

37) 김세훈. 2006.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방향”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국제세미나. 국립중앙도서관

38) Jens Thorhauge. 2006. 상계서

## 3.2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의 양태

### 3.2.1 상호대차서비스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서비스가 도달되지 않는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 상호대차, 복사서비스, 단체 대출, 장애자를 위한 택배서비스 등의 서비스유형을 가지고 있다. 분관으로 시스템화 될 경우에 상호대차, 복사서비스 등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지만, 시스템화 되지 않은 기초단계에서도 서비스영역의 확대, 서비스 포인트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상호대차는 자관에 없는 자료를 타관에서 빌려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것은 대출과 예약, 요청과 참고업무의 연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도서관끼리는 자주성, 자립성을 존중하고, 상호의 실정에 맞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도서관협력 측면에서 상호대차를 <행할 것>과 <협력을 구한다>는 것이 명기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협력의 내용은 도서관 서비스의 협력<sup>39)</sup>, 자료의 수집, 보존상의 협

〈표 13〉 공공도서관의 상호대차 및 복사서비스 통계

지역	관의 대출(단위는 개관과 건)		복사서비스(단위는 개관과 건)	
	도서관	건 수	도서관	건수
서울	*	*	3	916(성북정보)
부산	12	*	12	*
대구	9	*	7	*
인천	*	*	*	*
광주	3	*	*	*
대전	*	*	*	*
울산	4	*	*	*
경기	52	우편(1,424), 직접방문(192,924), 이동도서관(34,689)	1	*
강원	3	5(택배)	3	*
충북	15	*	6	*
충남	*	*	*	*

지역	관의 대출(단위는 개관과 건)		복사서비스(단위는 개관과 건)	
	도서관	건 수	도서관	건수
전북	*	*	*	*
전남	15	우편(8), 직접방문(41)	10	5
경북	3	우편(1), 직접방문(4)	2	13
경남	8	우편(6), 직접방문(1), 이동도서관 등(12,023)	8	우편(14), 팩스(60), 파일전송(3)
제주	*	*	*	*
총계	124	241,126	52	1,011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2005년도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력<sup>40)</sup>, 자료 정리상의 협력<sup>41)</sup>, 도서관 관리상의 협력<sup>42)</sup>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운영의 특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현황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은 경기와 경남으로, 경기도의 경우 그 내용은 ‘부천’시립도서관과 분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직접방문을 통한 상호대차가 활발한 것 등에서 기인한다. 또한 수원 선경도서관의 경우는 우편을 통한 상호대차가 2004년 ‘86’건 발생하여 최고 기록이다. 이것은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협정’ 등이 아직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43)</sup>

일본 기후현립도서관의 경우 지역정책실과 현립도서관의 합동사업으로 2003년 2월에 실험, 2004년 4월 모델사업으로 실시, 2005년 총점검과 평가를 한 후 2006년 3월에 종료했다. 그 내용의 시사점은 편의점을 대출 반납 창구로 이용함으로써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도<sup>44)</sup>가 있었다는데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적극적·능동적 발상으로 서비스 포인트 확대를 시도하였다는 점이며 더 나아가 고령자와 장애자를 위하여 이용자의 ‘집으로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의 증가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할 것이다.

39) 상호대차, 문헌복사의 상호제공, 공동대출, 참고봉사 처리의 상호의뢰, 홍보의 공동실시, 정보검색기기의 공동이용

40) 공동선택 및 공동구입, 자료의 분담수집, 분담보존, 자료교환, 자료의 공동보존, 공동제본

41) 집중정리, 종합목록

42) 인사교류, 직원의 연수, 도서관평가, 도서관조사, 도서관용품의 공동구입, 도서관설치 진흥을 위한 협력

43) 2005년 공공도서관 상호협력 97개관에서 2006년 122개관으로 증가했으나 건수는 미미.

44) <http://www.library.gifu.jp>

### 3.2.2 분관·분실 및 서비스 포인트

일본의 경우 서비스 포인트는 공공도서관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서비스 포인트라는 명칭구분으로 통계에 포함시킴으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도서관간의 협력체계는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 건수는 극히 미미하여 명목상의 협력시스템이 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서비스 포인트 확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부족과도 연관된다.

〈표 14〉 일본 규모별 분관·서비스 포인트·이동도서관 수의 비교

인구규모	도서관(분관)	서비스 포인트	북모빌
15000이하(촌립)	449	132	92
15000이상(정립)	379	186	75
광역시정촌(시립)	3	78	2
4만 미만	189	131	54
4만 이상	276	191	51
6만 이상	355	428	79
10만 이상	257	321	47
15만 이상	132	176	27
20만 이상	129	192	27
30만 이상	118	371	24
40만 이상	179	288	33
정령지정도시	188	388	11
특별구	214	20	1
도도부현립	64	X	2
합 계	2,929	2,902	525

출처 : 日本図書館協會. 2006. 『日本の図書館 通計と名簿 2005』

일본은 각 공공도서관당 평균 1개소의 서비스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인구 6만 이상 도시의 공공도서관 중 도도부현립과 특별구립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도서관수보다 많은 서비스 포인트의 수를 보이며 평균적으로 1관이 1개소 이상의 서비스 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다.

〈표 15〉 영국 공공도서관 수 및 서비스 포인트 수

구 분	공공도서관	이동도서관	서비스 포인트
잉글랜드 지방	3,146	473	15,411
웨일즈 지방	314	66	546
스코틀랜드 지방	561	93	763
북부 아일랜드 지방	149	32	383
UK 전체	4,170	664	17,103

출처 : 株式會社 シーデーアイ.2006.

“諸外國の公共図書館に關する調査報告書 ; 図書館の情報據点化に關する調査研究”  
平成十六年文部科學省委託事業.

영국 공공도서관은 각 공공도서관당 평균 4개소의 서비스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며, 잉글랜드 지방의 도심에서의 서비스 포인트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 있어서도 봉사대상인구수가 많을수록 중앙관보다 분관의 숫자가 많아지며, 반대로 봉사대상인구수가 적을수록 중앙관이 분관보다 많아진다. 이는 도시 규모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 분관의 규모 또한 상당히 다양한데, 대부분 봉사대상인구수에 따라 규모도 차이를 보인다. 45)

〈표 16〉 미국 봉사대상인구 수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봉사대상인구	공공도서관수	총공공도서관수	중앙관	분관	이동도서관
계	9,211	16,541	9,062	7,479	864
1,000,000명이상	25	1,029	18	1,011	33
500,000~999,999	52	1,104	40	1,064	62
250,000~499,999	97	1,108	81	1,027	78
100,000~249,999	329	1,981	290	1,691	163
50,000~99,999	531	1,602	514	1,088	179
25,000~49,999	935	1,741	914	827	144
10,000~24,999	1,772	2,282	1,757	525	137

봉사대상인구	공공도서관수	총공공도서관수	중앙관	분관	이동도서관
5,000~9,999	1,463	1,626	1,454	172	42
2,500~4,999	1,326	1,369	1,319	50	14
1,000~2,499	1,649	1,664	1,644	20	9
1,000명 미만	1,032	1,035	1,031	4	3

출처 : 이진우, “작은도서관의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2006. 12.

도서관시스템은 국가에 따라 다른 요구로 조직되기도 하는데 덴마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아주 작은 분관들은 폐쇄되어 왔으며,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서비스-단위(공공도서관, 분관, 자동차문고)의 수는 1,106개에서 686개로 축소되었다.<sup>46)</sup> 일본의 경우도 시정촌 합병등과 맞물려 작은도서관들은 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서비스 포인트의 활성화와 단체대출과 상호대차는 분관시스템의 성립이전의 단계에서도 시행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서비스로서 이에 대한 연구도 작은도서관 확대를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보다 깊이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 3.3 도서관망과 협력시스템

#### 3.3.1 도서관 서비스의 협력시스템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인구 6만 명당 1개관인 800개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총 소요예산은 1,536억원이고, OECD 국가의 평균 도서관 1관당 인구수인 8만 2천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총 소요예산이 651억원이 되며, 연평균 국고 보조금 74.1억원을 매년 지출할 경우 건립을 위한 소요기간은 8년 8개월이 걸린다고 하였다<sup>47)</sup>. 이는 그 간의 도서관 건립 추세나 경향을 넘어서는 새로운 도서관 건립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 하게 한다.<sup>48)</sup> 우리나라의 도서관망은 1997년 설립되었으며 2006년 현재 지역대표관 16개관, 지방대표관 33개관 단위도서관 514개관이 참여하는 공공도서관 협력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그 협력의 정도는 극히 미약하다.

작은도서관의 발생이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확대를 목표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

45)이진우. 상계서

46)Jens Thorhauge. 2006. 상계서

47)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문화기반시설 중장기 확충 및 발전방안연구. 서울: 동기관

48)이진우. 상계서

도서관에서도 서비스 확대와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분관 등 협력시스템이 점차 관중을 넘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계획 단계부터 여러 절차와 기준을 고려하여 공공도서관의 분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sup>49)</sup> 이에 반해 우리는 학계와 정책과 행정, 그리고 현장의 현실적 거리감이 먼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공공도서관 지역망이 250여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단위의 도서관 보급을 목표로 일정규모 이상 중대형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어왔다면 작은도서관은 3,500여 읍면동 행정단위 공공도서관 보급을 목표로 계획되고 기획되고 이들이 시스템화 됨으로서 국가의 정보문화정책에 있어서 예산·인력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다. 즉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안에서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안에서 그리고 국가적 도서관정보 정책 틀 안에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도, 작은도서관 확대에 기여하는 단체도, 공공도서관 담당자도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

도서관은 건물보다 기능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도서관시스템을 도서관의 기능은 중앙관(본관), 지역관, 분관, 분실, 이동(자동차)도서관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이 그 특색을 살려서 움직이고 있다. 이들을 도서관 조직망 또는 도서관 서비스망이라고 한다. 도서관망은 복수의 도서관이 있는 지자체 안에서 온라인 네트워크에 의한 것 뿐이 아니고, 자료유통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자료유통의 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동경·墨田구에서는 실버인재 센터에 의해 오토바이편으로, 埼玉·新座시, 鶴ヶ島에서는 배송회사에 의한 연락편이 각각 하루 수회의 배송을 행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오전 중에 요청된 자료가 오후에는 이용자의 손에 건네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도서관 설립도 지역의 규모나 인구수에 관계없이 비효율적으로 규모가 큰 단일 도서관이나 수개의 독립 도서관 설립만으로 그친 채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독서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봉사거점망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다가<sup>50)</sup> 분관 운영에 대한 체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본관과 분관 사이에 시설규모나 업무량, 도서관 서비스 내용 부분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sup>51)</sup>

지역과 행정체계가 다른 도서관의 광역이용을 위해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도서관조직망을 계획적으로 만든다면 더욱 광범위한 네트워킹을 통한 서비스의 확대

49)이용남, 2006, 상계서

50)손정표, 1993, 지방자치제하에서의 공공도서관 지역계획에 관한 고찰, 도서관,

51)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도서관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서울: 동기관

를 기약할 수 있으며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도 새로운 길을 열 수가 있을 것이다.

명목상의 협력, 계수상의 네트워크보다 실질적인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의 보완사업으로 도서관을 시스템화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 공공도서관 74관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이 22관, 구청이 서울시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이 25곳 있지만 ‘시립-구립’이나 ‘구립-구립’간 협력체계는 거의 없다. 도서관을 완전 개방하는 구립도서관에 서울시에서 연간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하지만, 완전 개방한 곳은 38%에 그쳤다. 또 상호대차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금천정보도서관(구립)에 있는 자료를 도봉문화청소년센터(구립)에서는 빌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다른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층과 관종간의 경계를 넘는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협력이 일반화된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도서자료를 ‘자산’으로 취급하여 사서에게 가해지던 부담이 폐기율이 높아지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경직성이 존재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California 주에서는 1999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민의 평등한 정보 서비스를 위하여 “the Library of California”라는 다중 관종 도서관 협력망(multitype library network)을 구축하였으며, NewYork 주도 23개의 공공도서관 협력망과 9개 참고·연구도서관 자원협력망, 42개 학교도서관 협력망의 총괄을 뉴욕주립도서관 산하의 “Division of Library Development”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콜로라도(Colorado) 주는 850여개의 공공·대학·학교·전문도서관이 가입된 “Central Colorado Library System (CCLS)”을 1976년에 구축하여, 사서 교육 및 훈련, 자료배송, 직원 컨설팅 등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다.<sup>52)53)</sup>

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이 미비한 시점이라 하더라도 협력의 수준을 달리 하며 시행하는 순차적 시스템 만들기가 필요하다. 순차적 공공도서관 서비스시스템 만들기가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 포함시킬 수 있는 첫 시도가 될 것이다.

---

52)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상계서

53) 이진우. 2006. 상계서



### 3.3.2 도서관망과 도서관계획도<sup>54)</sup>

어떻게 시스템을 기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어렵더라도,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느리게 천천히 기초부터 시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도서관 지역시스템계획에서는 우선 도서관 서비스의 봉사구역전체에 대한 계획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조건은 ①서비스 목표수준의 설정<sup>55)</sup> ②지역 특성의 파악<sup>56)</sup>과 서비스 대상인구와 그 장래 예측<sup>57)</sup>이라 할 수 있다.<sup>58)</sup>

일반적으로 주민의 도서관이용은 도서관에서의 거리가 멀어지면 급속하게 감소해가지만 그 감소방향은 동심원적인 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의 통근과 쇼핑동선을 주축으로 하는 달걀형이 된다.<sup>59)</sup>

#### 3.3.2.1 도심지 이용권역 배치계획<sup>60)</sup>

개가규모가 큰 도서관일수록 이용 권역이 넓고, 도서관 근방의 인구 1명당의 대출책 수가 증가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지역도서관을 개가 장서규모에 따라 소형관(1만권~ 5만권), 중형관(5~10만권), 대형관(10만권 이상) 3개의 타입으로 나누고 각각의 이용권역을 표시할 경우 이 이용권역 모델은 이용하여 계획 지역 내를 일정수준 이상의 인구 1 명당 대출 책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면 계획 지역에 대한 지역도서관군의 배치를 입안할 수가 있다. 즉, 계획지역이 일정 목표 수치 이상의 대출책 수로 덮어질 수 있도록 도서관 배치를 행하는 것이다.

즉 지역 내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 확장으로 작은도서관을 정책적으로 설립·운영하려고 한다면,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계획상에 들어오는 도서관 규모를 대·중·소로 배치하거나 지정함으로써 지역의 공공도서관 서비

54)日本図書館協會図書館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会. 2005 상계서

55)서비스 목표의 수준은, 주민의 자료와 정보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도서관에서 만족시킬 것인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지표로서 나타낸다. 이 지표의 기본이 되는 것은 통상 주민 1명 당 연간 대출책수와 그를 위해 필요하게 되는 연간 수입책수이다.

56)도서관은 주민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편리성이 좋은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도서관의 배치를 정하기 위해서 지리지형적 조건을 시작으로 하여 거리의 중심부와 주변부와의 관계 등 자체체의 지역 구조를 파악한다. 구 중에서도 주민의 통근과 통학 과 쇼핑동선 등 일상의 생활동선에 관한 데이터가 중요해진다

57)인구와 그 구성은 이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그 때문에 우선 인구 현황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장래에 관하여 예측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58)日本図書館協會図書館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会. 2005 상계서

59)日本図書館協會図書館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会. 2005 상계서

60)日本図書館協會図書館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会. 2005 상계서

스의 소외지역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규모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공공도서관 서비스기준을 보강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있어서 ‘민간의 의지’를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도서관 서비스’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행해져야 할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 3.3.2.2 도시 이외 지역의 배치계획

인구가 밀집된 시내에 비하여 행정구역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이 군읍면사무소 등의 관청 등에 가까운 마을의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는 예가 많고, 주민의 생활동선은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구심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를 위해 도서관의 이용권역은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부보다 넓고 동심원적으로 넓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용권이 상당히 넓은 이유로서는 자가용차에 의한 이용자의 비율이 극히 높다는 점과 지역에 서점 등의 정보원이 적고 정보입수 수단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 등에 따라 도서관이 수행하는 역할이 크다는 점도 있다.

이와 같이 지역도서관의 규모계획은 ①봉사대상인구수의 산정<sup>61)</sup>, ②서비스 목표 수준의 설정<sup>62)</sup> ③ 개가장서규모의 산정<sup>63)</sup> 이 포함된다.

즉 작은도서관을 정책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 기능하게 하고자 한다면, 장기적으로 작은도서관이 타당한 위치에, 타당한 규모로 설립될 수 있도록 가이드해야 하며 또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운영프로그램의 여러 단계의 협약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예산적 지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적어도 현재 김세훈의 3단계 유형의 작은도서관 지원정책<sup>64)</sup>에서 상호대차는

61)개개의 지역도서관의 봉사대상인구는 지역도서관군의 배치계획에 기초하여 인접지역도서관과의 현재(현상적인)경계를 편의적으로 상정한 위에 그 경계내의 인구를 세어서 산출한다. 봉사권역의 경계설정에는 관해서는 예를 들면 인접도서관간을 거리적으로 이등분하는 점의 궤적에 의해 행하는 것이다.

62)주민 1명당의 연간평균대출책수를 예로 들면 6권, 3권으로 상정한다. 그림으로 종축에 일인당 연간대출책수를, 횡축에 1명당 연간수입책수를 잡고, 1 자치체를 1 점으로 하여 구성하여, 양자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일명당 연간대출책수는 1명당 연간수입책수와 강한 상관관계에 있는 점, 즉 신간서를 많이 갖추는 것이 높은 이용을 생기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3)지역도서관의 개가장서는 대출용과 참고용장서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각의 필요량을 산정한다. 대출용개가장서수는 연간 수입책수의 몇 년치를 배가하는 가에 의해 정한다. 이 때 일반서의 이용은 간행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어서, 6~7년이면 거의 제로가 된다. 따라서 살아있는 도서를 개가에 내어 놓으려면 그 책 수는 연간 수입책수의 7배를 예상해두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참고서비스용 장서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대출용장서수의 10% 정도를 예상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개가장서규모로서의 이 분량을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64)김세훈. 2006. 상계서

A형, B형 도서관에 필요한, 또한 현재 공공도서관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원책이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자료구입의 압박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서비스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3.3.2.3 지역 전체 수입책수 계획<sup>65)</sup>

지역주민의 독서량을 1인당 연간 30권이라고 상정하고 도서관의 대출책수치가 그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되는가를 계산해봄으로써 주민의 독서가 도서관에 의존한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일인당 연간 대출책수는 일인당 연간 수입책수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즉 신간자료를 많이 갖추는 것이 높은 이용을 가져온다. 작은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입 책수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자료의 신진대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의 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 목표치로서의 주민 1인당 대출책수를 정하고, 다음에 그만큼의 대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일인당 수입책수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좋을지를 정하고, 그 수치를 권역내의 봉사인구에 곱하는 것으로 대출용의 필요 수입 책수 규모를 산출 한다. 다음 단계는 이동도서관의 계획<sup>66)</sup>과 지역중심관(중앙관)의 계획<sup>67)</sup>과 장서규모 계획<sup>68)</sup> 으로 옮겨간다.

### 3.3.2.4 시 지역도서관망 계획<sup>69)</sup>

동경도(東京都)는 1995년 히노(日野) 시 경우를 통해 1995년 세운 지역도서관망계획의 예를 들 수 있다. 日野市는 동경도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인구 166,537 명(1995년 10월 1일 현재), 면적 27.53 km<sup>2</sup>를 가진 동경의 베드타운이다.

---

65) 日本図書館協會図書館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会. 2005 상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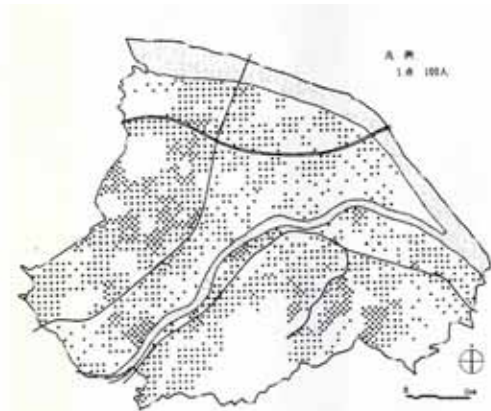
66) 북모빌(이하 BM) 스테이션의 이용권역은 거의 250m로 본다. 인구분포도에 있어서 반경 250m 이내에 200인 이상의 인구집적이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BM의 필요대수에 관해서는, 40 스테이션 마다 1대로 한다. 또 BM용 장서규모에 관해서는 1대당의 적재책수를 3,000책으로 하고, 적재책수의 10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하면 BM 1대당 필요장서수를 30,000 책이 된다.

67) 지역중심관 중에 규모가 크고 입지도 좋은 특정관을 지역중심관으로 한다. 이 경우 당관은 지역중심관으로서의 기능외에, 주변에 대한 지역도서관으로서의 대출기능을 함께 가지는 형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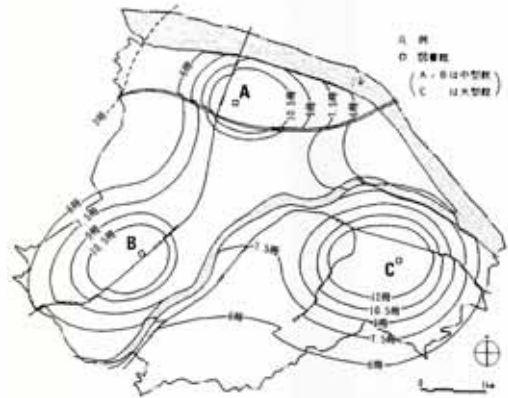
68) 장서규모로서는, 서비스 권 전역에 대한 참고서비스용 장서와 보존용의 장서를 예상하는 것 외에 주변지역에 대한 대출용 도서(개가)를 갖추는 것으로 한다. 수치의 목표치로서는 개가분 참고용도서수(해당 시구정촌에 계획된 전도서관의 대출용·BM용도서수 합계의 10%)+ 주변지역에 대한 대출용도서수와 개가분(개가분과 동일량으로 하든가 BM용도서분)을 예산한다.

69) 日本図書館協會図書館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会. 2005 상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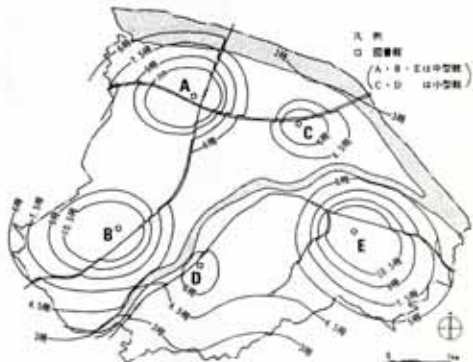
〈그림 2〉 시 지역 도서관망 계획도 - 히노(日野) 시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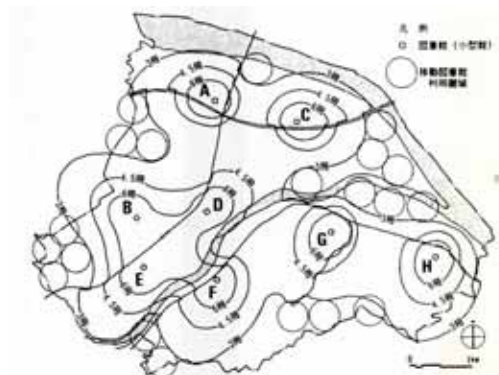
図VI-4 日野市の人口分布図



図VI-5 大型館成立を優先した場合の図書館網計画図 [1인당年間貸出冊數6冊保障]



図VI-6 中型館成立を優先した場合の図書館網計画図 [1인당年間貸出冊數6冊(中型館)·3冊(小型館)保障]



図VI-7 小型館を基本とした場合の図書館網計画図 [1인당年間貸出冊數3冊保障]

히노시의 도서관활동은 1965년에 1대의 BM에서 출발하여 1973년에 중앙관의 완성을 거쳐 현재 9개 분관과 BM 1대로 시 전체에 대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우선 전체 계획은 ①계획조건의 설정(인구분포상황과 봉사수준)<sup>70)</sup> ②지역도서관망 계획(규모와 배치)<sup>71)</sup> ③ 지역도서관 등의 규모산정<sup>72)</sup> ④ 평가로 이루어진다.

70) 봉사수준은 일인당 대출책수에 대하여 대형관 또는 중형관의 성립을 우선한 경우는 6권(단지 소형관이 성립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3책), 소형관을 기본으로 한 경우는 3 책으로 한다.

71) 계획에 관해서는, 지역을 대규모도서관의 소수 배치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규모가 적은 것을 수가 많게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를 비교 검토한 위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대형관 성립을 우선으로 한 경우와 중형관 성립을 우선한 경우 및 소형관을 기본으로 한 경우에 관하여 각각의 이용권역 모델을 이용하여, 시전역에 대한 배치계획을 행한다

72) 도서관망계획도에서는 각각의 지역관에 관하여 연간 수입 책수·대출용장서수 및 필요장서량의 산정을 행하여 이들 지역관 가운데서 규모가 가장 크게 산정되는 것을 지역중심관으로 설정하고, 이

이용권역의 넓이는 대출책수의 목표설정에 따라 다르며, 도서관의 규모별 타입마다 설정목표 레벨에서 지역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도서관 수와 그 위치는 각각 다른 것이 된다.

검토 결과를 3개로 나누어 보면 ①대형관 성립을 우선시한 경우에는, 개개의 도서관의 장서규모는 크게 매력적인 것이 되는 반면, 각각의 도서관의 이용권역이 커지고, 이용자에게는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도 생긴다. ②중형관 성립을 우선시한 경우에는, 권역내 봉사인구로서 상정되는 인구수, 즉 지역내 인구에 대한 책임비율이 가장 높아진다. 소형관이 2관 포함된 것과 도서관수와 각각의 장서규모에서의 균형이 맞는 갖춰진 계획이라고 생각된다. ③소형관을 기본으로 한 경우에는, 수 많은 도서관 배치가 되어 극히 섬세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일인당 대출 책 수를 낮게 설정하게 됨에 따라, 개개의 장서규모가 작아 매력이 감해지고, 지역내의 인구에 대한 공급율도 오히려 낮아지며 BM서비스 필요 지역이 더 생겨난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 계획함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이 집중적으로 많은 지역의 규모별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망계획을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조사항목<sup>73)</sup>과 작은도서관의 평가항목<sup>74)</sup>에서 그런 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후에 지원하고,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위해서는 기본 베이스로 인구분포의 파악을 1 km<sup>2</sup> 단위면적당 인구가 계산된 그물망을 만들고 그 후에 행정구역별 도서관 계획망의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3.3.2.5 광역 도서관망 계획의 예<sup>75)</sup>

광역도서관망 계획에서 중요 포인트는 ①기준 그물망에 의한 인구자료의 대입 ②이용권역모델을 그물망으로 변환 ③장서규모 산정도 ④지역도서관의 성립조건에 관한 인구환산 ⑤광역시정촌권의 영역 설정으로 이루어진다.

---

관에 관해서는 레퍼런스용, 보존용을 더하여 필요장서규모를 산정한다.

73)책 읽는 사회 국민운동본부: 운영자, 주변환경 및 도서관 수요, 장서, 이용자, 문화복지 서비스, 예산

74)2004년 작은도서관 조성 평가: 건립과정의 효율성, 운영의 적절성, 이용자 만족도 증진노력

75)日本図書館協會図書館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会. 2005 상계서





図VI-11 愛知県図書館網計画図  
(地域中心館・広域中心館の全必要蔵書量の算定)

그 위에 인구분포가 조밀하여 산출한 장서수가 10만권 이상이 된 곳은 대형관 성립지역으로 보고 해당지역에 대하여 다시 12그물을 적용하여 장서규모의 산출을 행한다. 계속하여 중형관·대형관이 설립하는 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대출수준을 3책으로 내린 경우에 소형관(4그물로 11,905명 이상)이 성립하는 곳을 찾아서 같은 모양으로 장서수를 산출한다.

대출책수 3~6권으로 설정한 서비스 목표수준에 대응하여 설치해야 할 도서관의 배치를 나타내고 광역시정촌마다 중심이 되는 시정촌에 있어서의 최대규모의 도서관을 광역중심관으로 설정하여, 지역도서관·지역중심관·광역중심관의 각 도서관의 장서규모(BM용 장서수도 포함)를 산출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아이치현의 도서관망 계획도를 만들었다.

인구와 지리적 검토를 거쳐서 도서관 계획망을 만드는 것은 그 지역 지자체의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도서관이 지역도서관망의 한 노드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지원정책이 지역적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알 수 있다.

### 3.3.2.6 행정과 운영을 위한 도서관망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남이 분관체제에 대한 설문지 분석 및 사례 조사를 통해 현실정에서 가능한 우리나라 분관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지방정부 주도의 제도권 봉사거점들은 “중앙관-분관-이동도서관(직영)-공립문고-순회문고”로 구조화하고, 민간단체가 운영주체인 봉사거점들은 “중앙관-분관-새마을이동도서관-사립문고”로 체계화하되, 느슨한 행정적 연결고리 형태로 연계 운영하도록 하였다.<sup>76)</sup> 이는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이에 더해 도서관 협력망 구축은 공공도서관 범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의 해외 선진 사례나 우리나라에서 2002년에 발표된 “도서관 종합 발전계획”에서 제시하였던 지역단위 통합 도서관 협력망과 같이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을 포괄하는 협력망으로 발전해야 한다.

더불어 도서관 시스템 구축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도서관 행정체계의 일원화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 설립·운영주체간의 협정에 의한 다단위 통합시스템 방식의 운영도 살펴볼 수 있다.<sup>77)</sup> 도서관망 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은 지역의 정책차원에서 장기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체의 실시와 더불어 분출될 각종 이익 집단들의 다양한 요구와 맞물려 사실상 짧은 기간 내에 실현을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중분관 이상의 시스템 구축은 시당국과의 꾸준한 협상노력을 통해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할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우선적으로 분관설립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말단 봉사거점망 구축과 전화 및 우편 대출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도서관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sup>78)</sup> 즉 우선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가 지역밀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의 서비스유형 또한 공공도서관의 확대말단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도서관 협력망 구축은 공공도서관 범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의 해외 선진 사례나 “도서관 종합 발전계획”<sup>79)</sup>에서 제시하였던 지역단위 통합 도서관 협력망과 같이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을 포괄하는 협력망으로 발전해야 한다.

행정적으로 소속청 일원화 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 설립·운영주체간의 협정에 의해 다단위 통합시스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

76)이용남. 2006.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분관 운영체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1)

77)손정표, 1993, 지방자치제하에서의 공공도서관 지역계획에 관한 고찰, 도서관

78)손정표, 1993. 상계서

79)문화관광부. 2002.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03 - 2011)



람직할 것이다.<sup>80)</sup>

도서관망 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은 지역의 정책차원에서 장기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분출 될 각종 이익 집단들이 다양한 요구와 맞물려 사실상 짧은 기간 내에 실현을 보기가 어려우므로 중분관 이상의 시스템 구축은 시당국과의 꾸준한 협상노력을 통해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할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이 최종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도서관측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1단계 지역계획의 방향을 전술한 외곽 자연부락이나 분관설립이 어려운 지역, 아파트 단지, 사업체, 주민독서회 등을 대상으로 한 기탁소나 대출문고, 인근 주민을 위한 배본소의 설치, 이동도서관 운영 등과 같이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말단 봉사거점망 구축과 전화 및 우편 대출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도서관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sup>81)</sup> 즉 우선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가 지역밀착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며, 만약 작은도서관이 그 역할을 한다면 서비스유형 또한 공공도서관의 확장된 서비스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협정과 협약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을 이끌어야 한다.

### 3.4 분관시스템

분관시스템의 조직은 대체로 서비스의 효과와 경영상의 효율성이란 관점에서 시행된다. 아직 분관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는 곳이 부천지역 정도인 현 상황은 ‘작은도서관’의 개념정의, 분관의 유형에 대한 구분과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도서관 분관 체제는 자연발생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가급적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범위 한에서 철저한 사전계획에 의거해 설계되어야 한다. 즉 Rochell은 분관을 중앙관이 수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도서관 서비스와 비슷하게 참고·정보봉사나 기타 특수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서비스 분관(Library Service Branch)’과 대중이 원하는 자료의 대출만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자료대출 분관’(Book Distributing branch)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경우 ‘자료대출 분관’의 개념에 공립문고를 포함시켜 공공도서관 시스템을 확립하고 체계화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sup>82)</sup> 또한 이동도서관도 ‘자료대출분관’으로 간주하여 이의 체계적 관

80)손정표, 1993. 상계서

81)손정표, 1993. 상계서

리운영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할 뿐만 아니라 순회문고 등의 서비스 포인트 확대를 통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전 지역민에게 전달되게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동도서관도 ‘자료대출분관’으로 간주하여 이의 체계적 관리운영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할 뿐만 아니라 순회문고 등의 서비스 포인트 확대를 통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전 지역민에게 전달되게 할 책임이 있다. 즉 공공도서관 분관 체제는 자연발생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범위 안에서 철저한 사전계획에 의거해 설계되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방정부 주도의 제도권 봉사거점들은 <중앙관-분관-이동도서관(직영)-공립문고-순회문고>로 구조화하고, 민간단체가 운영주체인 봉사거점들은 <중앙관-분관-새마을이동도서관-사립문고>로 체계화 하되, 느슨한 행정적 연결고리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sup>83)</sup>이다.

『日本の図書館』<sup>84)</sup>에서 분관으로 취급하는 것은 도서관에 관한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분관으로 자리 매김한 것 그리고 독립된 건물이나 독립실을 가지고 있을 것과 분관만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임직원이 있을 경우 분관으로 계수하고 그 이외 공민관 등의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등 도서관으로서의 건물을 가지지 않는 것은 『분실·서비스 포인트』등으로 취급하여 도서관관리의 장서책수, 자료비 및 대출 등의 서비스실적은 본관에 포함하여 집계하고 분실·서비스 포인트 수를 조사표 보충 설명란에 부기함으로써, 도서관통계가 전체 도서관 서비스의 계수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서관 통계의 기준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도서관 정책의 방향 제시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계 산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작은도서관을 분실 또는 서비스 포인트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도서관 통계에서 계층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통계 기반들을 토대로 지역도서관 정책이 일관성 있게 혹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작은도서관이 지구(역)관<sup>85)</sup>, 분관<sup>86)</sup>, 분실<sup>87)</sup>, 이동도서관<sup>88)</sup>의 계층구조 안에서

82)이용남. 2005 상계서

83)이용남. 상계서

84)日本図書館協會. 2006. 상계서

85)본관에 준하는 것으로 본관과 동등한 기능·운영설비를 가지고 있다. 일정의 넓은 지역에 책임을 가지고, 본관과 분실 등의 조직을 가진 것도 있다. 또 지자체에 따라서는 분관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있다.

86)문부성에 의하면 ‘분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관에 대비되어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도서관봉사 활동이 도서관의 소재지주민에게 균등하게 닿을 수 있도록 본관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위성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다’(도서관법촉조해설. 1950)

분실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전체의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합을 높이려고 한다면 본관에서 도서와 그 밖의 자료를 배분하고, 일정의 간격(1개월 정도)을 가지고 자료의 신진대사를 취해가면서, 3,000권 내지 1만권 정도의 도서를 상치해두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안성시의 경우는 대출분소 운영 시에 자원봉사자에 의해 관리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짐을 경험한 바 있다. 이동도서관은 도심지에서는 주차장 문제와 방문 간격이 뜬한 점도 있어서 이용이 줄기도 하지만 멀리 도서관까지 가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편리한 존재이다. 또 아동의 이용감소라는 측면에서는 초등학교의 점심시간과 방과 후, 또는 아침저녁 지하철 역 앞의 개설, 낮 동안 변화가와 비즈니스 가에서의 이용을 위한 대출을 행할 수도 있다. 또는 ‘그림책도서관차’, ‘놀이도서관’ 등 프로그램과 내용이 특화된 도서관 또한 가능할 것이다. 즉 개관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서 네트워킹이 되어있을 때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설정 등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예산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해 쓰여 경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문제연구회에서는 ‘본관에 대하여, 외부로 나뉘어져 만들어진 시설·조직. 도서관 서비스 활동을, 균등하게 전 지역의 주민에게 펼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도서관 시설이며, 본관과 지휘명령계통이 하나고 도서관 봉사를 행하는 거점이 된다. 시설과 일정수의 장서(3~5만권)와 정규직원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의 권한 안에서 독자적으로 운영기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본관과 작은도서관을 분실과 서비스 포인트로서 거점이 되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기본을 확장하고 유형을 달리하면서 시스템화할 수 있는냐하는 점에 있다.<sup>89)</sup> 현재 자료열람·대출 업무와 교육·문화 프로그램 업무, 참고·정보 봉사까지 중앙관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담당하는 분관도 적지 않다. 직원인사 관련 업무 이외에는 중앙관에서 담당하여야 할 업무까지 모두 담당하는 분관체제는 도교육청 소관 분관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이렇게 분관시스템조차도 미비한 공공도서관 현실에서, 작은도서관을 분실 혹은 서비스 포인트로 기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의 어려운 점은 충분히 예견된다.<sup>90)</sup>

87)공립도서관이 전역서비스를 행함에 있어서 설치하는 서비스 포인트로서, 본관, 분관에 이어지는 규모의 시설

88)분관, 분실은 고정된 위치에 개관하는 시설이지만, 이동도서관은 문자 그대로 도서관이 이동해 가는 시설이다. 이것은 광범위한 지자체에 있어서 주민이 도서관까지 발을 옮기는 것이 불편한 지역에서 도서관 측에서 주민쪽으로 나아가서 도서관 업무를 행한다

89)안성, 광주 일곡, 경기도 안산

90)경기도 교육청 산하 독립도서관시스템은 1개의 독립중앙도서관(수원시 소재), 2개의 독립도서관

분관 시스템 안에서도 전체의 77%가 분관체제에 걸맞은 자료교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91)</sup> 경기도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분관시스템에서 상호대차는 독립도서관 시스템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경기도내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상호대차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동도서관과 순회문고는 독립중앙도서관에서 직접 관장하며 공립문고는 독립도서관 봉사거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이나 공립문고는 주로 시·군청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도서관 서비스 시스템으로 품어 안는 일을 소관부처문제로 어려워 보인다.<sup>92)</sup> 즉 현실은 실제로 분관 시스템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상북도립도서관의 분관체제로의 개편은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경상북도 조례 제 2525호에 의거 1999년 1월 각각 독립된 독립도서관이 다른 독립도서관의 분관으로 편입된 사례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인사 관련 업무를 제외하고는 예산, 회계, 자료 구입 및 정리 등 일반적으로 중앙관이 담당하기 마련인 업무까지 분관에서 총괄하는 자율성이 강한 운영모습을 보인다.<sup>93)</sup> 시스템이라는 것은 상호협력 하에서만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체제통합은 무리가 있음이 운영에서 드러난다.

자치단체 산하 시립도서관의 사례로 경기도 부천시는 부천시립중앙도서관을 중앙관으로 하여 산하에 심곡분관, 북부분관, 꿈빛분관 등 3개 분관을 두고 있는데, 민간 위탁의 공립문고도 상호대차기능까지 가능한 분관시스템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순회문고 또한 아파트, 기업체,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1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립중앙도서관에서 2-3개월간 200권씩의 도서를 장기대출 받아 서비스 포인트의 합을 늘리고 있다. 공립문고가 공공도서관의 봉사거점 역할을 하며, 민간 위탁되어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자율성 또한 일정부분 이루어져 있다. 순회문고 또한 아파트 기업체,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1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립중앙도서관에서 2-3개월간 200권씩의 도서를 장기대출 받아 서비스 포인트의 합을 늘리고 있다. 분관의 특성화도 이루어져 도시전체 정보자료의 합에 도움이 된다. 중앙관, 분관, 공립문고 간의 상호대차는 매우 활발한 편이며, 이에 더해 부천대학 도서관, 시청행정

---

(성남시, 과천시 소재), 그리고 독립중앙도서관 소속 분관으로 평택, 광주, 여주, 포천, 김포분관 등 5개 분관(오랫동안 각기 독립적인 독립도서관으로 운영되다가 IMF 외환위기 때 정부기관 구조조정정책의 일환인 도교육청의 기구축소 방침에 따라 1999년 5개 도서관이 독립수원도서관 분관으로 편입되면서 독립중앙도서관으로 승격됨)

91)이용남. 2005. 상계서

92)일부분관에서는 중앙관과 별도로 독자적인 순회문고 활동 전개, 도서관을 방문하여 단체대출형식

93)이용남. 2005. 상계서

자료실까지도 상호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1주일에 4회(화·수·목·금요일 오후 1시 이후)차량이 순회하며 자료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자료를 소장하지 않은 분관이나 공립문고에서도 1-2일 후에는 중앙관이나 다른 분관의 자료를 받아 볼 수가 있는 셈이다.

성북정보도서관의 경우 지역중앙도서관과 마을문고와의 연계를 통한 분관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관리되고 있던 30개동 마을문고를 정보화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이용자서비스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이를 위해 거점도서관이 되는 아리랑도서관이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표준관리시스템인 KOLASⅡ로 전환하여 이원화된 시스템을 통일하고, 30개동 마을문고도 순차적으로 이 시스템에 연결하여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도서관자원과 회원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목표하고 있다. 이 경우 자료구입을 성북구청에서 실시하면서 30개동 총 구입비 1억원으로 30개동 마을문고의 자료의 신진대사를 계획하고 있다. 간단히 계산해서 25평 마을문고 30개소이면 총 750평의 열람공간의 자료를 매력 있게 관리할 계획을 만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5,000만원의 자료구입비로 구입 예상 도서 수 7,000권으로 계상하여 7,000권을 30개소로 나누면 약 200권의 신간이 개별 마을문고에 배가될 수 있다. 30개소의 자료를 격주 단위로 돌려서 본다고 하면 적어도 한 마을문고가 규모의 협소함을 넘는 자료배포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지역배포를 전담할 담당할 인력과 장비가 지자체 예산 혹은 거점도서관에 반영되고 대출 반납을 위한 자료관리 담당자와의 직접적 커뮤니케이션과 ‘협조’를 통해 최소한의 서비스 포인트 확대를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전산프로그램은 수준과 용량에 맞게 개발될 수 있다.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구비하지 못한 작은도서관에 공공거점도서관이 엑셀파일로라도 서지사항의 입력을 위한 기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배가위치의 개념으로 거점공공도서관에서도 대출·반납 기록 등 자료관리를 공유하는 틀을 만들어 시도해 볼 수 있다. 충북 청원군 강외우체국 작은도서관의 경우 약 2,000권의 자료를 엑셀파일로 입력하여 홈페이지에 연동시켜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인터넷으로 대출을 위한 검색이 가능한 간략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 3.5 해외 공공도서관 사례

〈표 17〉 외국 공공도서관의 통계 비교

구분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공공도서관수(관)	6,000	2,893	4,170	10,584	9,266	921	48,767	2,769	462	2,735
100km <sup>2</sup> 당 도서관수	2.0	0.5	1.7	3.0	0.1	0.01	0.3	0.03	0.5	0.7
인구10만 명당 도서관수	10.5	4.8	7.0	12.9	3.2	2.9	33.9	0.2	1.0	2.1
직원수(명)	23,840	15,000	25,724	10,372	133,455	14,000	176,166	48,792	5,368	27,826
1관당 직원수	4.0	5.2	6.2	1.8	14.6	15.2	3.6	17.6	11.6	10.2
장서책수(책)	56,959,914	96,170,520	116,073,634	84,301,717	767,055,000	90,300,000	946,666,470	395,390,000	30,970,051	319,776,000
1관당 장서책수	9,493	37,684	27,835	14,565	84,024	98,046	19,412	142,792	67,035	116,640
면적(1000km <sup>2</sup> )	301	552	243	357	9,629	9,971	17,075	9,597	99	378
인구(백만명)	57.4	59.7	59.7	82.0	288.5	31.3	143.8	1294.4	47.4	1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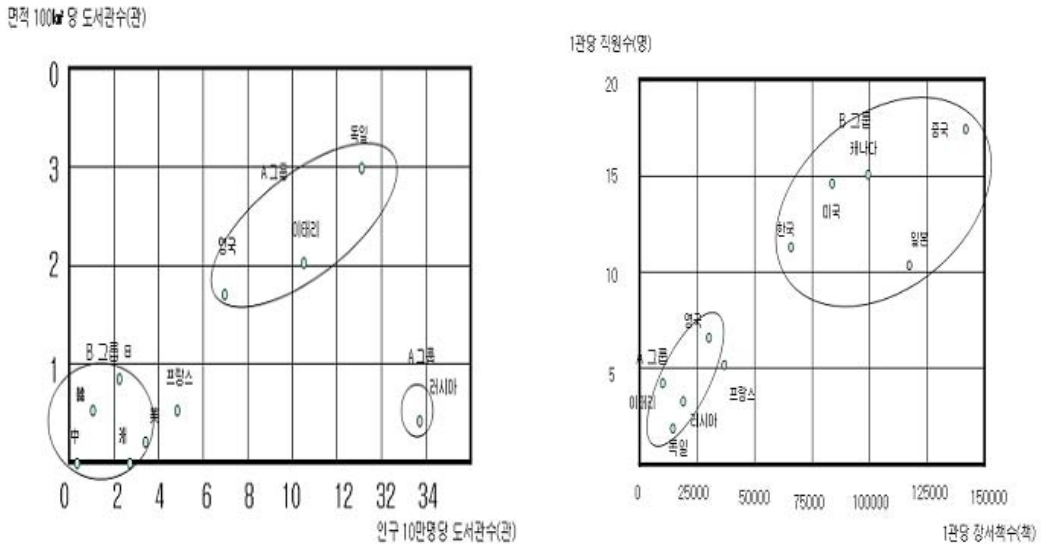
株式會社 シーデーアイ。2006：諸外國の公共図書館に關する調査報告書；  
 図書館の情報據点化に關する調査研究。平成十六年文部科學省委託事業

외국의 공공도서관의 제도와 정책을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같은 명칭이 붙어있지만 실태도 이미지도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도서관은 거의 공립도서관이지만 외국에서는 민간단체나 교회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도 드물지 않다. ‘널리 일반시민의 이용에 열려있는 도서관’이라는 뜻에서 ‘공공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썼다.

### 3.5.1 해외 공공도서관 규모 및 밀도 분석

공공도서관이 어느 정도의 밀도로 설치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각각 공공도서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를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두 개의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외국 공공도서관의 설치밀도·규모·직원수·장서수 비교



출처 : 株式会社 シーデーアイ.2006.  
 “諸外國の公共図書館に關する調査報告書；図書館の情報據点化に關する調査研究”  
 平成十六年文部科學省委託事業.

A 그룹으로 이름 지어진 독일, 이탈리아, 영국(UK)은 비교적 소규모인 공공도서관을 국토·국민 가운데 비교적 밀도 높게 설치해온 나라이다. 러시아는 인구당 관수로서는 많지만 면적당으로는 적어 A 그룹과는 떨어진 듯이 보이지만, 광대한 국토 넓이와 자연의 혹독함을 고려한 주거가능 면적으로 생각하면 A 그룹에 포함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 거기에 비교하여 B 그룹이라고 이름 지어진 중국, 한국, 일본, 캐나다, 미국은 비교적 대규모인 공공도서관을 국토와 인구수와 비교하여 낮은 밀도로 설치하고 있는 나라다. 미국, 캐나다, 중국과 같은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고밀도로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 무리이므로 비교적 대규모의 것을 저밀도로 설치하여, 거기서 이동도서관(북모빌)과 원격검색, 원격신청과 원격배송으로 서비스를 보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정책 계획을 보면 2011년에는 영국정도의 도서관밀도(약 인구대비 6만명당 1관, 100 km<sup>2</sup> 당 1.2개관 정도)에 근접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영국의 공공도서관의 운영은 검토할 만하다. 문제는 시설의 밀도가 서비스의 밀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시스템의 정착이 가장 필요하다 할 것이다. 김세훈은 ‘협력과 연계’ 내용을 수준과 내용과 방식의 측면에서 A, B, C로 나누어 접근하여, 작은도서관의 정체성을 논할 때 거론될 수 있는 지역독서커뮤니티의 수준이 아닌, 지역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접점과 지식정보서비스 지역협력체를 위해서는 건립·리모델링, 예산·인력, 교육, 정보화, 상호대차 협력과 리모델링, 교육, 예산, 운영컨설팅(일정수준 이상시 정보화 및 상호대차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sup>94)</sup>.

두 개의 그룹에 비하여 프랑스는 조금 다른 위치이다. 즉 프랑스는 밀도로 말한다면 B그룹에 가까운 공공도서관저밀도설치국이며, 규모로 말한다면 A 그룹에 가까운 소규모관국이다. 즉 밀도에 있어서도, 규모에 있어서도 공공도서관이 발전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학술도서관이 강력한 프랑스가 지금부터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충실하게 만들어 간다고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향할까가 흥미 깊다.

### 3.5.2 해외 공공도서관 분관시스템

기초 지자체별로 설치된 공공도서관을 잇는 협력관계라든가 복수의 지자체에 걸친 도서관네트워크, 컨소시엄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복수의 레벨에 걸친 네트워크의 형성이 시도되고 있는 단계이다. 미국에서도 77.2%의 공공도서관이 네트워크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공도서관 제도<sup>95)</sup>는 1992년 법률에 의해 코뮌도서관 가운데서 근린 지자체 지원을 사명으로 하는 지역거점시립도서관이 창설되어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등에 32관이 지정되고 이를 계기로 코뮌 도서관과 데빠르망 도서관의 협력관계가 깊어졌다. 국가의 역할은 기술적 조정에 의해 장서구성과 컴퓨터 서비스 내용의 확인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분관 설치 현황은 1991년의 경우 공공도서관 총 271개관 중 분관이 9개관(3.3%)에 불과하였는데 2004년말 현재로는 총 471개관 중 74개관(15.7%)으로 급속히 늘어났다.<sup>96)</sup> 그럼에도 이러한 수치는 2003년말 현재 9,211개의 공공도서

94)김세훈. 2006. 상계서

95)코뮌(시군읍) => 데빠르망(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데빠르망이 수 개모여 레지옹을 형성한다. 프랑스의 공공도서관은 레지옹에 속하는 도서관은 없으며 코뮌과 데빠르망에 속하는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루어진다. 코뮌과 데빠르망은 병렬적으로 그것을 레지옹이 조정하는 형태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



관에 7,479개관의 Branch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sup>97)</sup>이나 중앙관 169개와 5,183개의 Branch를 운영하는 영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숫자이다<sup>98)</sup>

A.L.A의 미국 공공도서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2003년에 50개주와 콜럼비아 지역에 9,211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이들 공공도서관은 전체 인구의 97%에 봉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공공도서관은 대부분 하나 이상의 직접서비스점(direct-service outlets)을 가지며 그 형태는 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 outlets) 및 분관도서관(branch library outlets), 이동도서관(bookmobile library outlets)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공공도서관 현황은 <표18>과 같다.<sup>99)</sup>

**<표 18> 미국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공공도서관수	봉사대상인구	총공공도서관수	중앙관	분관	이동도서관
9,211	283,481,000	16,541	9,062	7,479	864 <sup>100)</sup>

즉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중앙도서관과 분관을 하나의 도서관으로 각기 통계에 산정하지 않고, 하나 이상의 direct-service outlets을 포함하는 도서관 서비스망을 하나의 공공도서관으로 기준하여 통계를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공공도서관수는 9,211개관이라고 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도서관 수를 산정한다면, 분관까지 포함한 16,541개관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공공도서관은 봉사권역과 봉사인구 입지기준에 따라 크게 3개의 분관형태로 나뉜다.

**<표 19> 미국의 규모별 도서관 봉사권역과 봉사인구 입지기준**

구 분	봉사권역	봉사인구	입 지
대분관 (중앙관)	시 전체	제한 없음	중심업무 및 상업지구의 1-2 블록 내 교통이 편리한 간선도로변에 위치
중분관	1-1.6 마일	25,000-50,000	접근성이 양호해야 하며 인구100,000 이상 도시
소분관	소지역	지역에 따라 다양	매일 개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교, 임대건물 내에 위치 가능

96)이용남, 2006, 상계서

97)ALA, 2005

98)김혜숙. 2002.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분관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서교육 전공

99)ALA 2005

100)최미순. 2006. “미국의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세미나

분관의 형태는 봉사인구나 서비스 반경, 연간 대출권수로도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각 주의 주법과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sup>101)</sup>

〈표 20〉 샌프란시스코에서 분류하는 공공도서관 분관 유형

구 분	Major Branch	Neighborhood Branch	Station
봉 사 인 구	50,000 이상	35,000 이상	10,000 이상
봉 사 반 경	1-1.5 마일	1 마일 이내	분관 미설치 지역
연간 대출권수	200,000권 이상	100,000권 이상	성인, 아동을 위한 기본자료 제공

### 3.5.2.1 일본

일본의 동경도북구도서관의 경우 구민의회·의향조사보고서<sup>102)</sup>에서 지역시설 26개소 중 두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도서관’으로, 특히 도서관 이용자의 증가가 가장 눈에 띈다. 동경도 북구도서관은 1중앙관 14지구도서관이 있으며, 1관당 봉사대상 면적은 1.37km<sup>2</sup>로서 동경도에서 두 번째로 좁은 지역이다. 이것은 동경도 북구도서관 기본계획에서 반경 1km 이내에 1 도서관이라고 하는 방침에 기초한 것으로 평성13년의 ‘東十朝도서관’의 개관으로 <도서관장비계획>은 완료되어 총15개관이 되었지만, 1관 평균 면적은 755m<sup>2</sup>이며 동경 23구중 23위이다. 이상의 사항에서 ①주민 바로 가까이에 도서관이 있다. 이는 어린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며 또한 고령사회에 있어서도 장점이 된다. ②1관당 규모가 작다. 이것은 1개 도서관만으로는 넉넉한 공간을 얻기가 어려운 점과 장서구성상 모든 분야를 수집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sup>103)</sup> 북구도서관은 도서관 서비스의 최전선인 ‘지구도서관’으로서 중앙도서관의 백업을 기초로 지역 자원봉사자들과의 연대제휴를 가진다. 또 특색 있는 지구도서관으로 함과 동시에 학교패밀리의 일원으로서 지역학교와의 연계와 지원을 강화해 간다.

특색 있는 지구도서관으로 작아도 개성 있는 도서관 ‘부티크 라이브러리’를 목표로, 구민의 많은 사람이 지구도서관을 이용하며, 여기서 미래의 가져야 할 지구도서관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가깝다’, ‘몇 개나 있다’는 장점을 더욱 살리고 ‘작다’는 단점을 극복한다면 필요한 곳에 새로운 지구도서관을 창조할 수 있다. 걸어서 15분 범위

101)최미순. 2006 상계서

102)2003.2월~3월

103)北區図書館あり方研究會報告~今後の地區図書館を中心として~ (平成 16年一月) p.28~31

에 지구도서관이 있다. 23구 가운데서도 문경 구에 뒤이어 2번째로 도서관 밀도가 높다. ‘가까우므로’ ‘어린이와 이용자가 걸어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도서관’이 될 수 있다. 가까이 있으므로 퇴근길에 쇼핑에서 돌아올 때 잠시 들릴 수가 있는 것이다.

### 3.5.3 해외 공공도서관 운영체계 비교

#### 3.5.3.1 독일<sup>104)</sup>

독일은 지방자치가 강하며 문화행정과 교육행정에 관해서는 주정부의 관할이 되어 있다. 독일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연방단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공도서관은 주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 또 공공도서관의 설치의무와 운영방침, 재정에 관해서도 연방단위에서의 통일은 보이지 않는다. 연방사상이 강하므로 중앙도서관도 존재하지 않고 복수의 국립도서관이 전국서지 등의 작업을 분담하고 있다. 국립도서관은 라이프치히, 프랑크푸르트, 베를린의 3개소에 있지만 그 국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직접관계도 없다. 따라서 지방제도의 층구조와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 시스템의 층구조와는 반드시 관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93년 도서관>에서 수요에 대응한 각각의 도서관이 주로 수행해야할 4개의 단계능단계가 표시되어 있다. 즉, ① 기초적 수요 ②고도의 수요 ③전문적 수요 ④고도의 전문적 수요 이다. 각 도서관은 어느 것인가 하나의 기능단계에 속하여 특정의 과제를 가진다. 도서관 네트워크는 이 4종의 도서관기능을 기초로 한 구축이 목표가 되어 있다. 현재는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독일은 <학교도서관법>이 없고, 학교도서관이 아직 제도화되어있지 않으므로 학교 내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는 예도 있다.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은 많은 경우 지방자치체의 문화예산과 주의 격려금에 의해서 행해진다. 그 외 친구교회, 회사조직 등에 의한 사립의 공공도서관도 있다.

공공도서관의 직접 설치자 및 유지자는 대개 지자체지만 특징적인 존재로서 재단법인에 의한 경영<sup>105)</sup>, 유한회사에 의한 경영<sup>106)</sup>이 등이 있다.

함부르크 공공도서관은 사법적 재단법인이며 미국 기념도서관(AGB)와 베를린시립도서관이 합체하여 <베를린중앙주립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름의 공법적 재단법인이고 슈리스하임시와 도서관구매센타(EKZ)가 1966년에 <슈리스하임 시립도서관·유

104)株式会社 シーティーアイ.2006. 상계서

105)베를린과 함부르크

106)큐타스로와 슈리스하임

한회사>를 설립하여 1997년 1월 1일 이래 시립도서관의 업무를 새로운 법적형식으로 계속하고 있다. 비슷한 검토가 다른 도시<sup>107)</sup>에서도 개시되어, 공공도서관의 사립화가 <New Public Management>의 일환으로서 진행되고 있다. 예산 자주경영, 분산적 재원관리, 관리와 엄밀한 제품분석은 가져오는 기업적 예산운명을 공적행정에도, 도서관에도 부족해져가는 한정된 재원에서 새로운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도서관 운영에서 직영을 요구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가의 우려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립문고와의 협력 또한 적극적으로 논의 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공립도서관은 지방행정부전체로 5,788관(주립과 시정촌립), 그 가운데 시정촌립 도서관이 4,981관 존재한다. 교회립 등의 도서관 수는 이하와 같이 되어 있다.

〈표 22〉 독일 공공도서관수

(2003. 12. 31 현재)

구 분	도서관수	이용자수(1관당)	대출자수(1관당)
지역행정부립 도서관(주립과 시정촌립)	5,788	94,186,697(16,273)	7,152,100(1,236)
시정촌립 도서관	4,988	85,665,732(17,199)	6,334,591(1,274)
카톨릭 교회립 도서관	3,794	3,053,174(805)	1,274,293(336)
개신교 교회립 도서관	893	238,838(267)	203,542(1,867)
그 외 경영모체의 도서관	109	5,217,637(47,877)	203,542(1,867)
총 계	10,584	102,697,346(9,703)	8,821,468(833)

독일의 경우 통계에서 보듯이 운영모체가 다양한 공공도서관도 네트워크가 운용되며 복수의 단계에서 다양한 도서관 네트워크, 지역적 네트워크, 컨소시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공공도서관은 대개 일요일을 휴관일로 하고 있으며 개관시간은 평균 22시간으로 짧으며 연간 총 개관시간은 2003년 실적으로 4,604,197 시간이다.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전문직원은 <고등직>, <상급직>, <중급직>의 3단계의 도서관자격에 의해 나뉘어지며, 그 구성 비율은 2.2%, 33.3%, 50.0% 정도가 된다.<sup>108)</sup>

독일에서는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영역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어린이를 위한 낭독회 등 독서지원의 개개 프로젝트와 고서적 시장, 도서관이용자 그룹의 사람

107)고타, 마인호반의 오펜바하, 지그부르크

108)독일에서는 도서관원, 정보전문가, Documentalist가 각각 교육되며 또 사서직과는 별도로 양성되는 정보전문직으로 1988년에 <미디어 및 정보서비스 직원>이 신설되고 교육기간은 3년이다.

들과 외부 사람들과 협력하여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해 주고 있지만 시스템으로서의 자원봉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원봉사자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규제와 가이드라인도 없다. 유료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아르바이트가 전문직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위기감은 독일에도 있으며 유자격자가 위협을 느껴 논쟁이 되고 있다.

독일의 공공도서관은 건물은 현대적이라고 해도 이용자에게 정보센터로서 인상 지워지지 않고, 참고자료, 정보자료도 불충분하며 대출 도서관으로서의 존재감이 그다지 없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도서관은 정보제공을 행하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sup>109)</sup> 상호대차 또한 행정부 소속 도서관간에만 활발함을 알 수 있다.

〈표 23〉 독일 상호대차 관련 통계

구 분	접수와 발송 의뢰 건수		상호대차 실적	
	접수 의뢰	발송 의뢰	빌린 책 수	빌려준 책 수
독일 전국	80,283	184,675	53,921	164,494
행정부 도시	49,772	66,779	28,461	58,973
행정부 농촌	30,029	107,892	25,183	96,910
종교계 도시	442	8,703	239	7,579
종교계 농촌	40	1,301	38	1,032

### 3.5.3.2 영국

영국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 하나의 도서관법을 제정하고, 스코틀랜드 지방도 도서관법, 북부 아일랜드는 도서관법이 명령으로 만들어져 있다.

영국에서 공공도서관은 각 공공도서관법과 교육·도서관령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나라의 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법령상 직접 관계가 없다.

현재의 영국도서관(British Library)은 1972년 영국도서관법(The British Library Act 1972)이 제정된 것에서 시작한다. 그것을 통해 1973년 7월 대영박물관도서관부문의 5대 도서관을 일체화하여, 국가관리하에 독립된 영국도서관으로서 설립되었다. 영국도서관은 납본과 전국서지의 작성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도서관과 지역

109) 株式会社 シーデーアイ.2006. 상계서

〈표 24〉 「영국의 이용자 조사(Public Library User Survey : PLUS)에 의한 서비스 평가 상황: 2003년 공공도서관기준」(2001년 발표)에 따른 실시

구 분		아주 좋음	좋음	보통	좋지 않음	아주 나쁨
잉글랜드, 런던 (3,146)	개관시간	18	41	30	20	1
	직원의 전문적 지식	55	38	7	-	-
	직원의 유용성	60	36	3	1	-
	도서·그 외 자료	34	49	15	2	-
	정보서비스·질문서비스	45	45	9	1	-
웨일즈, 게어필리 (314)	개관시간	43	43	12	2	2
	직원의 전문적 지식	72	26	2	-	-
	직원의 유용성	72	26	2	-	-
	도서·그 외 자료	40	42	16	2	-
	정보서비스·질문서비스	62	33	5	-	-
스코틀랜드, 이스트더번쇼 (561)	개관시간	59	39	9	1	-
	직원의 전문적 지식	57	38	5	-	-
	직원의 유용성	71	25	4	-	-
	도서·그 외 자료	33	39	23	4	1
	정보서비스·질문서비스	39	41	15	4	1
북부아일랜드 동북부 (149)	개관시간	45	39	14	2	-
	직원의 전문적 지식	75	24	1	-	-
	직원의 유용성	86	14	-	-	-
	도서·그 외 자료	43	42	12	3	-
	정보서비스·질문서비스	82	13	5	-	-

도서관과의 관계에 근래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 바, 2003년 2월부터 도서관 협동·파트너십 프로그램(Co-operation and Partnership Programme)의 일환으로서 ‘지역에 도달한다’(reaching the Regions)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그 첫 대상에 잉글랜드 지방의 북동부와 남동지역이 정해졌다. 이 사업은 영국도서관(British Library)과 그 장서를 보다 많은 국민과 연계하여 원격지의 이용자에게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각 지역의 박물관·도서관·문서관 평의회를 통해서 약 100,000파운드의 기금조성이 행해졌다. 기금을 받은 지역에서는 영국도서관의 장서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책정하고 계획에

따라서 영국도서관과 함께 협력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즉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금이 영국도서관(British Library)의 자료를 기초로 국가단위의 체제와 방침으로 정보 접근점 구성에 지원한 것이다.

또 영국(UK)의 보조금에는 사용처를 특정 목적에 한정하는 보조금과 포괄적인 보조금이 있으며 도서관에 대한 포괄 보조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UK의 경우에도 보조금의 재원으로 문화·미디어·스포츠성이 소관하는 복권수익기금도 포함되어 있다. 복권수익자금은 신기회기금과 지방기금을 합친 것으로 영국의 도서관 정보 네트워크 정비를 위한 계획인 시민 네트워크에 대한 보조금은 신기회기금에서 지출되었다.

잉글랜드 지방에서는 2003년 2월 10일, 문화·미디어·스포츠 성에 의해 금후 10년간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략의 비전이 되는 『미래를 위한 틀 짜기』가 공표되었다. 이 비전에서는 21세기의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사명으로서, ‘독서와 학습의 촉진’, 시민에 대한 컴퓨터 기능교육과 전자정보 서비스의 제공, 커뮤니티의 사회적 참가의 촉진 3가지를 들고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법은 없어도 이것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공도서관의 사명을 공유하여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게 되어 있다.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를 통해 지역에 따라 서비스요구 수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공통적인 점은 ‘직원’의 전문성과 유용함이 가장 많은 만족도를 줄 수 있는 항목이라는 점이다. 영국과 독일, 덴마크 등에서 자원봉사자에 의존한 도서관 운영의 감소와 전문직의 운영 추세가 타당한 이유를 갖는 대목이기도 하다.

서비스 포인트도 많고 도서관도 많은 잉글랜드 지방의 경우가 개방시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다는 것도 눈에 띈다.

## 4. 결론 및 제안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반면에 아직까지 그 개념은 모호한 채 수많은 요구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다. 작은도서관을 현실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그 범주와 기준에 대해 뚜렷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다. 기대와 이상을 담은 원론만이 아니라 지금의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실제적인 개념이 도출되어야 사업의 목표와 정책 추진방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 자리매김

해야 할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작은도서관 사업을 통해 지역마다 공공도서관 서비스 망이 발전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풀어가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1) 작은도서관, 뚜렷한 개념과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의 개념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여러 주체의 입장을 검토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에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요구다. 단지 도서관의 물리적인 규모가 작아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서비스를 어디서나 누구나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요구, 다시 말해 공공도서관이 생활 속으로 가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커져야 한다’는 요구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 꾸준히 제몫을 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어떻게 확장시켜나갈 것인가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작은도서관 정책의 목표도 ‘누구라도, 어디에 살고 있어도, 어떤 자료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한다는 공공도서관의 궁극적인 목표에서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은 새로운 관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둘째, 양극화 해소 및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할 동네사랑방에 대한 요구다. 물리적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수를 채우는 데에서 한 발 나아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접근성과 참여를 담보하는 서비스로 도서관이 정보와 사람이 만나고 소통하는 공동체의 장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몇 해 동안 민간에서 만들고 꾸려온 여러 문고들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작은도서관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데 큰 몫을 해온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결집하고 참여시키는가도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꾸준히 높이고 다양한 자원이 도서관문화 발전에 모아지기 위해서도 민관 협력의 방안을 찾아가는 일은 중요한 뜻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 2)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망을 발전시켜가야 한다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넓혀가는 ‘더 큰’ 도서관의 몫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체계적인 도서관 망이 그 바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서비스 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필요성은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도서관은 시장논리로 풀어낼 수 없는 공공영역이다. 동시에 자료의 수집부터 제공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전문 인력과 안정적인 예산이 필요한 영역이다.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지 않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도서관 서비스를 이어가기는 어렵다.

둘째, 규모의 면에서 장서 1만권 이내, 30~50평 규모로는 꾸준히 늘어나는 도서관 서비스 요구를 감당하는 데 분명한 한계를 보일 것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사업을 벌인 지 5년여가 경과한 부천시의 경우 장서량 증가로 인한 시설 규모의 협소함을 호소하는 곳이 늘고 있었다. 지역 내의 여러 도서관들이 각각 중복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할 때 빚어질 비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변화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공공도서관도 갈수록 크고 작은 서비스 포인트를 늘려가야 한다는 요구를 맞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동일행정구역 내에서 대형도서관 몇 개로 각기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분관체제로 시스템화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실제로 2004년말 현재 471개 공공도서관 가운데 74개관이 분관으로 시스템화 되어 15.7%의 증가세를 보였다.<sup>110)</sup>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일과 공공도서관이 분관 형태의 서비스 포인트를 늘려가는 일이 따로 진행되는 것은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도 소모적이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3) 각 지역 공공도서관들이 서비스 망을 만들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을 펼치고 각 언론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반면에 정작 공공도서관들에서는 아직까지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해 충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도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이 해당 지역에 속한 문고들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작은도서관의 범주와 기준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황조사가 어렵다는 건 말할 나위도 없지만, 지금까지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이 현실적으로 분관체제를 만들어 갈 의지와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110)이용남.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분관 운영체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200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1) p354.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정책과 별개로 진행된다면 도서관 발전의 과제로 지적되어 온 행정체계의 일원화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사업의 주체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층을 만들어내고 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 독일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층 구조 안에서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전 국민에게, 전 국토에 다다를 수 있는 지혜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 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마다 작은도서관들의 거점 뭉클 할 공공도서관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규모와 역량이 다른 여러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통합적인 장서관리 시스템도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예산도 필요하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은 긴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우선과제를 선정하여 정책 추진과정을 좀 더 구체화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도서관에 사람을 채울 법적,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를 만들어가기 위해 가장 어렵고도 시급한 과제가 사람이다. 작은도서관들의 거점이 될 공공도서관에는 서비스 포인트를 운영하고 관리할 전담사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각각의 작은도서관들도 규모의 한계를 넘어서 통합된 ‘큰 도서관’으로 제몫을 하려면 공공도서관과 효율적으로 연계하면서 서비스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일상 속에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활발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은 틀림없이 전문성이 필요한 몫이기 때문이다. 도서관 선진국에서도 자원봉사자만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려는 추세가 사라지고 있으며<sup>111)</sup>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전문직의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도서관에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행정체계의 이원화나 공무원총정원제로 인한 현실적인 인력충원의 어려움은 개별 도서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책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현실적인 벽을 넘어설 정책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관계 부처와 꾸준한 논의를 통해 법적,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 도서관계 전반에서 활발

111) 덴마크. Jens Thorhaug. 2006. "The Library System in Denma"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국제세미나. 2006.8.25.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한 논의와 대안을 찾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한 작은도서관 증장기발전방안에 대한 연구('06. 5~11월)도 진행된 바 있다. 우리 현실을 섬세하게 반영하고 진지하게 대안을 고민한 안이 꾸준히 모색되고 실제적인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 5) 다양하고 세밀한 자료출판이 필요하다.

전문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에서도 많은 작은도서관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협력 체제를 만들고 대안을 모색하는 동안에 작은도서관은 문을 열고, 업무는 진행되지만 그 업무의 질을 가늠하고 방향을 조정할 시간도 능력도 없다. 비단 작은도서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장을 보완할 구체적인 편람, 가이드북, 매뉴얼, 통계자료, 연표 등등 참고할 도구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영리적 관점에서 출판된 자료가 아닌 공공성을 띤 자료가 필요하다.

첫째, 간략한 작은도서관 업무편람을 만들어 실무 현장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수준의 협조체제를 만들 수 있는 각종 표준화된 행정양식을 배포하여 사무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지역정책입안자들이 참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6) 민간의 역동성과 자발성을 담아낼 틀이 필요하다

도서관 서비스가 좀 더 이용자들의 요구에 가까워지고 지역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도록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성공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의지로 이루어진 민간 도서관운동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도 큰 과제다.

작은도서관을 민간의 도서관활동에 무게를 둔 '한국적 이념형'으로 보는 연구 사례도 있다. 작은도서관은 면적, 인력, 자료 등의 수준으로 설정되는 공식 개념이라기보다 민간주도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여백을 메워오며 다양한 문고 및 도서관활동을 장려하고 이들의 자발적 봉사와 헌신으로 형성된 작은도서관 운동을 공공도서관 분관체제로 연계하여 지역사회 풀뿌리 문화로 형성된 자치문화운동을 고양하는 한국적 도서관운동의 오랜 전통을 반영하는 이념형적 개념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up>112)</sup>

작은도서관 조성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부천시에서도 사업 성공요인의 첫 번째로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들고 있다.<sup>113)</sup> 사업의 출발부터 민과 관이 수평적 관계를

112)정현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1집. 2006. 10.

113)이재희. “부천시 작은도서관(공립문고) 운영사례”, 서울지역 작은도서관 활성화 연찬회 자료집, 2006. 10. 30.

유지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방송 및 언론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큰 힘을 가졌다는 것이다.

한편, 민간에서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해 온 문고들은 도서관법 개정과 더불어 작은도서관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겪어온 어려움을 벗어날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기대가 큰 만큼 효과적인 지원과 협력의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실망과 무력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의 공백을 메워온 민간 도서관운동의 동력을 크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민간의 작은도서관들이 정책적인 지원, 협력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먼저, 민간의 문고를 공공과 연계하는 작은도서관으로 지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평가지표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마다 협력, 지원 또는 역할분담 등 다양한 수준으로 연계할 기준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그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최소한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는 서비스 포인트로 기준이 마련된다고 할 때 그 수위가 어떻든 당장 기준을 충족시키는 문고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문 사서가 상근하는 문고는 꾸준히 자료를 구입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렇다면 일정한 기준을 갖춘 문고를 먼저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출발해, 민간부문의 다양한 도서관활동이 도서관으로서 제 몫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분관화를 목표로 협력체계를 만들어간다고 할 때에도 그 과정에서는 다양한 지원협력의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부천시 작은도서관협의회와 같은 지역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협력 주체로 삼거나 작은도서관 사업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2005년도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 김준, 2006. “작은도서관 개념에 대한 이해”, 도서관계. 2006. 3
- Michael Gorman. 2006. “Public Library in the United States”.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협력 시스템 구축방안 국제세미나 자료집. 2006
- 류병장, 공정자, 백진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안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제43회 전국도서관대회 자
- 문화관광부. 2002.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3-2011)
- 문화관광부. 2004. 문화비전21 :창의한국
- 문화관광부. 2005. “2005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평가보고서”
- 삼성문화재단, 책읽는사회모임. 한겨레신문사. 2006. 76곳 선정 콘텐츠 지원
- 성정희. 2006.“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및 범국민운동 확산”
- 손정표. 1993. “지방자치단체하에서의 공공도서관 지역계획에 관한 고찰”, 도서관, 제11권, 제6호, (1993, 9·10), p.24.
- 순천시. 시정백서 2005.
- Jens Thorhauge. 2006. “The Library System in Denma“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국제세미나. 2006. 8. 25.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양재한.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 대구: 태일사. 2000.
- 이연옥. 한국공공도서관운동사. 서울:한국도서관협회, 2002. p33.
- 이용남.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분관 운영체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200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1)
- 이용훈. 2006,.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행복한 만남”. 도서관계, 2006(5)
- 이재희.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모델 국내사례”,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 방안 국제세미나 자료집, 2006
- 이재희. “부천시 작은도서관(공립문고) 운영사례”, 서울지역 작은도서관 활성화 연찬회 자료집, 2006. 10. 30.
- 이진우, “작은도서관의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2006.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2003.
- 日本図書館協會：『日本の図書館 通計と名簿 2005』. 2006
- 北區図書館あり方研究會報告～今後の地區図書館を中心として～（平成16年一月）p.28～31
- 株式會社 シイーデーアイ。2006：諸外國の公共図書館に關する調査報告書；図書館の情報據点化に關する調査研究。平成十六年文部科學省委託事業
- 日本図書館協會. 2005. “図書館ハンドブック”第六版. 日本図書館協會.図書館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會.